

노어노문학과 대학원 어학분과 세미나

일 시

2023년 2월 1일 수요일

장 소

연세대학교 외솔관 427-1호

발 표

1부 13:30 ~ 15:30

- 류진경 정태/부정태 동사의 범주적 특성에 대한 재고
- 신지윤 러시아어 수사의 품사적 속성 연구
- 김세림 러시아어 무동사 생략문의 개념에 대한 고찰

2부 15:40 ~ 17:40

- 조서진 러시아어 주격에 관한 고찰:
무표격으로서의 주격에 대한 재고
- 이예린 러시아어 전치사 'в'와 'на'의 의미 차이 연구:
동일 명사와의 결합을 중심으로
- 임혜민 러시아어와 영어의 상 범주에 기초한 기계번역 결과 분석

토 론

변군혁(한국외대), 정영주(고려대)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노어노문학과 대학원 어학분과 세미나

목 차

|제 1부|

정태/부정태 동사의 범주적 특성에 관한 재고(류진경)	· · · · · 1
러시아어 수사의 품사적 속성 연구(신지윤)	· · · · · 6
러시아어 무동사 생략문의 개념에 대한 고찰(김세림)	· · · · · 26

|제 2부|

러시아어 주격에 관한 고찰: 무표격으로서의 주격에 대한 재고(조서진)	· · · · · 43
러시아어 전치사 ‘в’와 ‘на’의 의미 차이 연구 : 동일 명사와의 결합을 중심으로(이예린)	· · · · · 62
러시아어와 영어의 상 범주에 기초한 기계번역 결과 분석(임혜민)	· · · · · 73



정태/부정태 동사의 범주적 특성에 관한 재고

류진경

1. 문제 제기

독립적인 어휘 의미적 동사 유형으로서 정태/부정태 동사는 쌍을 이루는 폐쇄적인 동사 그룹을 구성한다. 이러한 정태/부정태 동사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운동 동사(глагол движения) 또는 이동 동사(глагол перемещения)로 불리는 동사 유형의 틀 안에서 두 동사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했다. 특히 두 동사 유형이 지니는 의미는 공통적으로 속하는 불완료상의 상 의미와 완전히 분리하여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두 범주, 즉 의미적 및 문법적 관점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태/부정태 동사의 의미 분석을 시도하기 이전에 해당 동사 부류의 범주적 특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태/부정태 동사가 독립적인 어휘 의미 그룹을 구성하는 해당 동사 유형의 범주적 특성에 대해 재고해 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요르단스카야 외(Иорданская, Л. Н. et al. 2020: 27-64)는 본문의 논의 대상인 정태/부정태 동사를 총 18쌍으로 구성되는 이동 동사(глаголы перемещения)로 규정하고, 기본적인 이동 수단 및 이동 행위를 야기하는 의미(каузирование перемещения)를 지니는 동사 부류로 분류한다. 이러한 해석을 토대로 단일 방향성 및 비방향성의 문법소를 포함하는 정태/부정태 동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종결점 (Конечная точка)	실제성 (Актуальность)
단일 방향성 (Однонаправленность) ‘лететь’	+	+
비방향성 (Ненаправленность) ‘летать’	+	-
	-	+
	-	-

[표 1] 방향성의 문법소들의 의미 도식 제시

위 표에 따르면 단일 방향성을 포함하는 정태 동사는 종결점, 실제성이 모두 유효적이며 이러한 특성은 한 방향으로의 이동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낸다. 한편 비방향성을 포함하는 부정태 동사는 종결점 또는 실제성 중 하나가 무표적인 경우와 두 자질 모두 무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 총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ibid 2020: 51-52). 이때 문장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종결 지점과 달리, 실제성은 관찰자가 기술되는 사건을 볼 수 있는 임의의 순간이 존재하는지와 관련된다. 이러한 실제성이 유효적이기 위해서는 관찰 순간이 고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는데, 고정된 관찰 순간(фиксированный момент наблюдения)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개념의 구체적인 정의와 더불어, 각 방향성이 나타내는 예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야 한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정태/부정태 동사는 단일 방향성(однаправленность) 및 비방향성(ненаправленность)으로 분류되는 방향성의 문법소들(граммемы направленности)로 구별된다. 정태 동사의 단일 방향성은 주어진 순간에 L_1 에서 L_2 로의 이동(‘в L_1 из L_2 и в данный момент’)이며, 부정태 동사의 비방향성은 주어진 순간에 일어나지 않은 L_1 에서 L_2 로의 이동 혹은 L_1 과 L_2 가 부재하는 경우(‘либо (а) в L_1 из L_2 , но не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либо (b) {«без L_1 и L_2 »}’)를 포함한다. 이때 이 두 가지 방향성 문법소는 상과 동일한 형태적 체계를 통해 표현될 수 있지만, 상의 하위 부류가 아닌 개별적인 굴절 범주라고 설명한다(ibid 2020: 53). 하지만 다음의 형태가 각각의 문법 의미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a- vs. -aj- (беж + a + ть ~ бег + a[j] + ть, гн + a + ть ~ гон' + a[j] + ть)

-Ø- vs. -и- (вс + Ø + ти ~ вод + и + ть, нес + Ø + ти ~ нос + и + ть) и т. д.

뿐만 아니라, 요르단스카야는 방향성을 문법 범주(грамматическая категория)의 틀 내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법 범주란 동종의 의미를 지니는 문법 형태들의 서로 대립되는 계열 체계(Ярцева 1990)를 의미한다. 이때 한 단어는 동일 범주에 속하는 여러 문법소(граммема)를 동시에 포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단일 방향성을 나타내는 동사 부류는 비방향성의 [-실제성]을 의미할 수 없어야 한다.

(1) Когда я могу, я всякий раз лечу на Новый год в Москву. (ibid: 40)

(저는 가능할 때마다, 새해를 맞이하러 모스크바로 매년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2) Самолёт летал три раза в неделю из Москвы в Екатеринбург. (ibid: 38)

(비행기는 일주일에 세번 모스크바에서 예카테린부르그로 비행합니다.)

우선 위 두 예문은 공통적으로 반복적인 이동을 나타낸다. 특히 예 (1)에서 갈 수 있을 때마다 모스크바로 가는 상황은 ‘주어진 순간에(в данный момент)’, 즉 새해를 맞이하러

비행기를 타고 이동한다는 점에서 실제성이 유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라도, 전체 문장의 의미를 고려하면 반복적인 이동을 전제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예문 (2)는 일주일에 세번 출발지에서 목적지로의 이동이 발생하는 상황이 부정태 동사를 통해 묘사된다. 이 논문에 따르면 두 예문은 모두 [+중결점]을 지니므로, 실제성을 기준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하지만 예문 (1)이 과연 [+실제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분명한 횟수를 나타내는 예문 (2)는 왜 실제성을 나타낼 수 없는지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정리해 보면, 문법적 범주로서 정태 및 부정태 동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동사 유형의 형태소가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과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방향성 문법소가 포함하는 의미인 중결점 및 실제성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단일 방향성/비방향성의 각 유형에 해당하는 예시를 통해 문법적 범주로서 정태/부정태 동사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의미적 범주로서의 정태/부정태 동사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태/부정태 동사를 문법소를 기반으로 한 형태적 대립을 지니는 문법적 범주가 아닌, 고유한 의미적 특성을 포함하는 의미적 범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는 이사첸코는 결정적인 의미적 기준을 ‘공간 내 운동의 방향성(направленность движения в пространстве)’으로 보고, идти는 한 방향으로의 이동, ходить는 행위 특성의 상관관계에서 약한 성분으로 설명한다. 즉, 후자의 경우 운동 방향에 있어 무표적이다. 따라서 ходить는 다방향성(разнонаправленност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단일 방향성에 무표적인 비방향성(ненаправленность)을 의미하며, 한 방향으로의 이동(с.г. он ходит в школу через парк)뿐만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의 이동(с.г. он ходит по лесу)도 표현할 수 있다(Исаченко 1960/2003: 309-312).

그에 따르면 이러한 비방향 동사들(ненаправленные глаголы)은 다음의 부분적 및 추가적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

а) 반복(또는 습관)의 의미(значение кратности (или узуальности))

: По субботам он ходит в баню.

б) 행위의 지속의 의미(значение длительности действия)

: Он ходит по комнате.

в) 한번에 수행되지 않는 행위의 의미(значение совершения действия не в один приём)

: Он ходит в школу.

г) 행위 완수에 대한 능력의 의미(значение способности к совершению действия)

: Больной уже ходит.

д) 주어의 변별적 특성의 의미(значение отличительной черты субъекта)

: Пробка плавает; Птицы летают.

е) 두 방향으로 완수되는 운동의 의미(значение движения, совершаемого в двух направлениях)

: Он ходил в город и принёс газету.

하지만 그도 언급했듯, 앞서 제시한 의미 중 (a)-(д)는 동사가 지니는 상적 의미와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또한 마지막 (e)에서 두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부정태 동사의 의미는 단일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정태 동사의 이동에 대비되지만, 이사첸코가 제시한 방향성 개념만으로는 두 동사의 다양한 의미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불완료상 동사인 정태/부정태의 상적 의미를 언급하지 않고 각 동사 유형의 고유한 의미적 특성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방향성 외에도, 두 동사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미적 특성을 제시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점은 의미적 특성을 통해 두 동사 유형을 분석한다면 정태 및 부정태 동사가 지니는 각각의 유형적 특성뿐만 아니라, 두 동사가 교차되는 영역에서 그 차이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위 부정태 동사의 의미 가운데 (г)의 주어의 능력 또는 (д)의 주어의 특성과 같은 의미를 동일한 의미적 성분을 활용하여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동사 유형의 의미적 특성을 실제 사용 측면에서 고려함으로써 더욱 실제적이며 체계적인 의미 기술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3. 결론

여러 선행 연구에서 정태/부정태 동사의 의미는 불완료상의 상 의미를 활용하여 기술되었다. 하지만 해당 동사 부류는 독립적인 의미 범주로 분류되어야 하며, 의미 분석을 토대로 상 의미와의 상관성을 논의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정태/부정태 동사의 의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참고 문헌

Иорданская, Л. Н., Крылосова, С. Г., Мельчука, И. А., & Михельв, П. А. (2020). Категория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у русских парных глаголов перемещения (на примере глаголов ЛЕТЕТЬ/ЛЕТАТЬ). *Вопросы языкознания*, 1, 27-64.

Исаченко, А. В. (1960). Грамматический строй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орфология. Ч. II. *Изд-во*

Словацкой АН, Братислава.

Ярцева, В. Н. et. al. (1990).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러시아어 수사의 품사적 속성 연구

Исследование свойств русских числительных как часть речи

신 지 윤*

1. 서론

러시아어 수사는 형태적, 통사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통시적인 측면에서 17세기 이전까지는 수사라는 품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수’와 ‘양’을 표현하는 어휘들은 다양한 품사에 속했다. 이후에 이러한 어휘들이 재정립되면서 수사 체계 및 수사라는 독립적인 품사가 갖춰졌다. 오늘날 일부 수사들은 다양한 품사들의 형태적 속성과 통사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는 여러 품사로부터 재정립된 수사의 역사적인 발전과 관련이 있다. 또한 현대 러시아어에서 수사는 명사류(именное)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성 범주와 수 범주를 소실하고 격 범주만을 가지고 있다. 수사의 이러한 속성은 통사적 층위에서 지배와 일치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처럼 수사에 속하는 어휘들의 혼합적인 속성으로 인해, 품사로서 수사는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무엇보다도 수사의 범위와 그 품사적 속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수사를 하나의 독립된 품사라고 인정한다면, 수사에 속하는 어휘들은 공통의 범주적 의미를 가져야 한다. 수사의 범주적 의미는 특정 ‘수량’ 및 ‘숫자(수)’이다. 그러나 현대러시아어의 몇몇 문법서는 ‘수량’ 및 ‘숫자’의 의미를 가진 모든 어휘들을 수사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또한 수사와 관련된 어휘들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품사 분류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밖에 수사의 최근 사용 경향도 수사의 범위 규정에서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숫자’와 관련된 수사는 가장 논리적인 언어 단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수사로 간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수량 의미 어휘들의 혼합적인 품사 속성을 정리하고, 독립된 하나의 품사로서 수사의 존재와 수사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목표로 삼는다.

2. 수사의 혼합적 특성

수사는 혼합적 특성을 보이는 품사이며, 이 특이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의미, 형태, 통사적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 본 논문은 수사를 수량수사(한정수량수사, 비한정수량수사), 집합수사, 서수사 및 대명사형 수사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속성을 형태, 의미, 통사적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수사가 독립적인 품사로 분류되어야

*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석사과정

함을 주장하며 수사의 다양한 특성을 상세히 설명한 멜추크의 이론을 분석의 틀로 삼는다.

멜추크는 한정수량수사만을 수사의 범위에 포함했으므로, 사실상 그가 제시한 17개의 수사의 품사적 속성은 한정수량수사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정수량수사가 수사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므로, 수사에 포함되는 다양한 부류의 어휘들을 한정수량수사와 속성을 공유하는 정도에 따라 수사라는 장의 중심과 주변에 배열할 수 있을 것이다.

멜추크가 제시한 수사의 품사적 속성은 의미적, 형태적, 통사적 속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의미적 속성에 따르면, 모든 수사는 숫자를 명명해야 한다. 그러나 한정수량수사는 추상적 숫자를 명명할 뿐 아니라, 수량 의미와 순서 의미까지 표현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사의 의미적 속성에 숫자의미 외에도 수량 의미와 순서 의미를 추가한다. 수라는 추상적 개념에서 수량과 순서의미는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래에서 살펴볼 것지만 수사가 수량의미와 순서의미 그리고 추상적 숫자의미 가운데 무엇을 표현하는가에 따라 그것이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 맺는 통사적 관계가 달라진다.

형태적 측면에서 수사는 성과 수의 문법적 범주를 갖지 않으며, 따라서 일부 수사를 제외하고는 성과 수의 범주에서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실상 많은 한정수량수사는 형용사와 같은 격변화를 하지 않는다. Два, три,четыре는 형용사 복수형과 유사한 격변화를 하지만 пять~тридцать까지 수사의 격변화는 어간/어미에 강세가 오는 유형의 여성명사의 영형-격변화와 유사하다. 예) одиннадцати книг, двенадцатью листами. 그러므로 형용사와 유사한 격변화를 한다는 기준은 본 논문에서 살펴볼 수사의 품사적 속성 목록에서는 제외한다.

멜추크가 제시한 수사의 품사적 속성은 대부분 통사 층위에 해당한다. 먼저, 수사는 상호 결합을 통해 합성수사를 형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수사는 가산명사와만 결합할 수 있는데, 이는 수사가 기본적으로 대상의 셈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는 명사와 형용사와 결합하여 구(phrase)를 이룰 때 독특한 지배관계를 갖는다. 멜추크가 수사의 통사적 속성을 언급할 때 그는 지배관계를 세심하게 나누었다. 그에 따르면, 어휘 L1과 L2가 결합할 때, L1에 의해 L2의 위치가 결정되고, L1이 L2의 형태를 지정하면 L1은 L2를 통사적으로 지배하고 L2는 L1에 의존한다(Mel'čuk, 2015, 183-185). 수사와 명사의 결합에서 수사는 대부분 명사에 선행하고, 명사의 문법적 수 형태를 지정한다. 또한 격범주에서는 직격에서는 명사에 생격을 지정하고, 사격에서는 명사의 격에 일치한다.¹⁾ 그렇다면 수범주에서 수사는 명사를 지배하고, 격범주에서는 직격에서만 수사가 명사를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정수량수사+명사구가 형용사와 결합할 때, 형용사의 어순은 좀 더 자유로운 경향을 보이며, 형용사의 위치에 따른 선택적 일치 형태가 존재한다. 이는 형용사에 대한 수사의 지배관계가 명사에 대한 지배보다 약함을 보여준다. 수사와 형용사의 일치뿐

1) 멜추크에 의하면 통사적인 관점에서 명사가 항상 수사를 지배하는데, 이는 수사-명사구가 주어인 경우 실질적인 주어가 명사이고 수사는 명사의 수식어로서 명사를 보충하며, 통사적으로 종속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니라 수사 주어와 동사 술어의 일치문제도 흥미롭다. 이 경우 술어는 단수 중성형 혹은 복수형의 선택적 일치를 허용한다. 이러한 둘 이상의 일치형태가 가능한 것은 수사가 독립적인 성, 수 범주를 갖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수사는 인칭대명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수사는 명사와 결합하여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어의 역할을 하는데, 인칭대명사는 이미 한정성이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한정어의 수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수사와도 결합할 수 없다. 이밖에, 뿔축은 수사가 명사와 수사의 결합에서 어순 도치를 통해 대략적 수량의미를 표현하며, 할당 의미를 표현하는 전치사 по 구문 및 명명-동격 구조(назывательно-аппозитивная конструкция)에서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한 통사구문에서의 사용은 수사가 표현하는 의미와 긴밀히 연관된다. 우선 명사와 수사의 결합에서 어순 도치를 통해 대략적 수량의미를 표현하는 것은 수사의 수량의미와 연관된다. 즉 순서나 숫자의미만을 표현하는 수사는 이러한 구문을 형성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명명-동격구조는 순서 의미를 표현하고 할당 의미의 전치사 по 구문은 수량 의미와 관련되므로 각각의 의미를 표현하는 수사만이 이러한 구문을 형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뿔축은 수사의 품사적 속성으로 결합을 통해 합성수사를 형성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수사는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어휘 부류로 간주되므로 결합을 통한 새로운 어휘형성의 가능성을 수사의 전형적인 품사적 속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속성도 본 논문에서 살펴볼 수사의 품사적 속성 목록에서 제외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수사의 품사적 속성을 논의한다:

1. 의미적 속성: 숫자, 수량, 순서를 명명한다.

2. 형태적 속성: 수 범주와 성 범주가 부재하고 격 범주만이 존재한다.

3. 통사적 속성: 1) 가산명사와 결합한다, 2) 구를 이루는 명사와 지배관계: 수사는 수 범주에서 명사를 지배하고, 격 범주에서는 직격에서 명사를 지배한다, 3) 구를 이루는 형용사와 지배관계: 형용사의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고, 둘 이상의 형용사 격 일치 형태가 존재한다, 4) 인칭대명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5) 특정 구문에서의 사용 가능성: 어순 도치를 통한 대략적인 수량의미 구문, 할당 의미의 по, 명명-동격 구문 등 특수한 구문에서 사용된다.

아래에서는 수사를 수량수사, 집합수사, 서수사, 대명사형 수사로 나누고 각 부류가 위에서 제시한 각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 살펴보겠다.

2.1. 수량수사의 속성

수량수사는 특정 숫자나 대상의 수량을 나타내며 'сколько', 'который'라는 질문에 답하기 적합한, 가장 기본적인 수사의 하위 부류이다. 조어적인 관점에서 수량수사는 크게 파생수사와 비파생수사로 나뉘며, 비파생수사는 단순수사로, 파생수사는 합성수사, 분수사 그리고 복합수사로 나뉜다. 의미적인 관점에서 수량수사는 один, два, три 등의 한정수량수사와 много, мало, несколько 등의 비한정수량수사로 구분된다.²⁾

2.1.1. 의미적 속성

자연수를 나타내는 한정수량수사는 특정 집합을 이루는 대상의 ‘수량’을 나타내는 의미(예: восемь рубрах, четыре юбки), 대상의 수량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자연수를 나타내는 추상적 ‘숫자’ 의미(예: пять плюс семь =(равняется) двенадцати) 그리고 집합에서 대상의 ‘순서’³⁾ 의미(номер один, дом Литвиновой номер семнадцать)를 표현한다. 뿔축은 수량명사 миллион, миллиард, десяток, сотня 등을 수사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아마 이들 어휘가 특정 숫자 외에도 '다수성'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어휘도 숫자 외에 수량의미를 표현하므로 수사의 의미적 속성을 충족한다고 본다.

2.1.2. 형태적 속성

한정수량수사는 크게 단순수사(два, сорок, сто), 합성수사(двадцать один, триста девяносто пять), 복합수사(пятнадцать, пятьдесят, пятьсот, полтора, полтораста)로 나뉜다. 수사는 명사류(именное)에 속하면서 명사류에 전형적인 격 범주에 따라 굴절한다. 그러나 같은 명사류에 속하는 명사와 형용사와 달리 수사는 수 범주와 성 범주를 갖지 않는다. 단, один은 단수형(один/одна)과 복수형(одни)으로 곡용하므로 수 범주를 가진다. 따라서 한정수량수사 가운데 один⁴⁾은 가장 형용사에 가깝다. 또한, 대부분의 한정수량수사는 성 범주가 부재한다. 한정수량수사는 명사류이지만 대상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성 범주가 없다. 하지만 один, два, полтора와 같은 일부 한정수량수사는 결합하는 명사의 문법적 성(род)에 따라 통사적 일치를 이룰 수 있다. 예) две, полторы чашки – два, полтора стакана. 마찬가지로 비한정수량수사도 수 범주, 성 범주는 갖고 있지 않고, 격 범주만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столько와 несколько를 제외한 나머지 비한정수량수사는 주로 주격형태로 사용된다. столько와 несколько는 한정수량수사처럼 직격에서만 명사의 격을 지배하고, 사격에서는 명사의 격에 일치한다. 비교) пять вопросов, пятью вопросами — несколько вопросов, несколькими вопросами.

2.1.3. 통사적 속성

뿔축이 제시한 수사의 속성에서 통사적 속성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복잡하고

2) 비한정수량수사는 부사적, 대명사적 및 형용사적 용법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어휘들을 어떻게 정의할지는 논쟁이 대상이 된다. 특히 비한정수량수사를 대명사형 수사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연구는 이들 비한정수량수사가 대명사형 수사로 구분되는 경우와 명료한 기능상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이들을 비한정수량수사로만 정의한다.

3) 해당 의미는 설명을 덧붙여야만 이해할 수 있는 추상적인 의미이므로, 기본의미로 보는 것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4) один은 추상적 숫자 ‘1’과 하나의 수량의미, 첫번째 순서의미 외에도 문장에서 ‘오직’, ‘혼자서’의 의미를 가리키거나, 혹은 앞선 문맥의 선행사를 지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один은 대명사형 수사와 부사로도 분류된다. 이에 대해서는 3.4.에서 자세히 다룬다.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다.

1) 가산명사와의 결합

한정수량수사는 가산명사와만 결합할 수 있으며, 불가산명사는 수량수사와 결합할 수 없다. 예) *две информации, *два песка, *три лая. 수량수사라는 '셈'의 가능성에 기반하므로, 셀 수 없는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는 수량수사와 결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한정수량수사는 비한정적인 수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산명사 그리고 불가산명사 모두와 결합이 가능하다. 예) много книг, мало озер, много молока, мало серебра, сколько муки, сахара, немного пшеницы. 단, 이 가운데 несколько는 다른 비한정수량수사와 달리 불가산명사와는 결합하지 못한다. 비교) несколько человек, *несколько молока, *несколько сахара. 따라서 несколько는 한정수량명사와 비한정수량명사 사이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남혜현, 2022, 62).

2) 명사에 대한 통사적 지배관계

수량수사는 대체로 명사와 결합을 하며 명사와 격일치가 가능하다. 먼저 수량수사는 결합하는 명사의 문법적 수를 지정한다. 예컨대, один(1)~четыре(4)는 결합하는 명사에 단수형을 지정하고, пять(5)~двадцать(20)은 결합하는 명사에 복수형을 지정한다. 단, 이후의 합성수사는 마지막 숫자에 따라 명사의 수 형태가 결정된다. 격 범주에서는 수사가 직격인지 사격인지에 따라 상이한 방향성을 가진다. 주격과 불활성 대격에서 한정수량수사는 후행하는 명사에 단수 생격 혹은 복수 생격을 지정하며 수사는 명사를 지배한다. 예) три пчелы, двое саней, пять домов, два шага. 단, 사격에서 한정수량수사는 명사에 격일치한다. 예) пятью домами.

비한정수량수사도 대체로 명사와 결합을 하며 결합하는 명사의 문법적 수를 복수형태로 지정하며, 한정수량수사처럼 직격에서는 명사에 생격을 지정하며 명사를 지배한다. 그러나 사격에서는 비한정수량수사가 명사에 격일치한다. 예) В поселке том несколько домов(gen.pl) и осталось [В. Дергачёва, «Сибирские огни, 2013); А там, в саду, было очень много девочек(gen.pl) и мальчиков(gen.pl) из детского сада[А. Пантелеев, Наша Маша, 1966]; Обычно блины не снимаются по нескольким(dat.pl) причинам(dat.pl) [Советы хозяйке // «Даша», 2004].

3) 형용사에 대한 통사적 지배관계

한정수량수사와 여성명사의 어결합을 한정하는 형용사는 둘 이상의 일치 형태를 갖는다. 즉, 형용사가 명사에 선행하거나 후행할 때는 복수 주격이나 복수 생격이 가능하다. 예) две замечательные/замечательных картины; пять картин, замечательные/замечательных своей судьбой. 이는 пол, один, полста를 제외한 모든 수사에 해당한다. 남성명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변이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 два замечательных стола; два стола, замечательных своей судьбой.

반면, 형용사가 수사에 선행하는 경우 형용사는 수사에 일치하여 복수 생격형과 복수 주격형의 변이형을 가질 수 있다. 예) целых/целые пятнадцать лет, битых/битые два

часа. 수사와 결합하는 형용사가 이와 같은 변이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수사와 형용사의 어결합에서 수사가 형용사를 지배하는데, 수사는 그 자체로 성과 수의 문법적 범주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의존어의 변이형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한정수량수사는 한정수량수사와는 달리 결합하는 형용사의 어순이 고정되고 형용사에 복수생격 한가지 형태만을 지정한다.

4) 인칭대명사와 결합하지 않음

수량수사는 명사와 결합하여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어의 역할을 한다. 반면 인칭대명사는 이미 매우 한정성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한정어의 수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수사와도 결합할 수 없다. 예) *три нас, *два их.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용례는 가능하다. 예) их(игрушек) было пять, семь их(кошек) было. 이 경우 수량수사는 인칭대명사에 대한 한정어의 역할이 아니라, 주어의 수량을 가리키는 술어의 기능을 한다. 또한 인칭대명사와 한정수량수사가 어순이 도치되는 경우 이 둘의 결합은 가능하다.

비한정수량수사도 한정수량수사처럼 한정어의 역할로서 인칭대명사와 결합할 수 없지만, 술어의 위치에서 주어로서 인칭대명사의 비한정적인 수량을 가리킬 수 있다.

5) 특정구문에서의 사용 가능성

수량수사가 도치될 때 “대략적인 수량” 의미가 발생한다. 이는 один을 제외한 모든 수사에 해당한다. 수사를 명사의 뒤에 배치함으로써 수량의미는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고, 따라서 “대략적인 수량” 의미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수량수사는 할당 의미의 전치사 по 구문과 순서 의미의 명명-동격 구문을 형성한다. 예) Достаточно на чашу весов поместить по три шара [Сборник задач по физике]; И опять мы по три раза клали ящики на весы [С. Довлатов, Виноград, 1990], Настя тоже пришла пораньше. Вот и вагон №7 [А. Маринина, Не мешайте палачу, 1996]. 첫 번째 예문에서 по три는 ‘구 3개씩 용기에 담아 저울을 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예문에서 по три는 ‘3번씩 상자를 저울 위에 올려 두었다’는 할당의미를 표현한다. 마지막 예문에서 вагон №7은 기차의 ‘7호차’ 동시에 ‘일곱 번째 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명명-동격 구문이다.

반면, 비한정수량수사는 이미 비한정적인 수량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도치를 한다고 해서 ‘대략적인 의미’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순서 의미를 표현하지 않으므로 명명-동격 구문에서도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비한정수량수사는 수량의미를 표현하므로, 할당 의미의 전치사 по 구문을 형성할 수 있다. 예) Гробницы грабили по много раз, и все равно что-то оставалось — грабители всегда спешили [Н. Дубова, «Знание — сила», 2006]. 여기서 по много는 ‘여러번 많이’라는 의미에서 할당 의미로 사용된다.

2.2. 집합수사의 속성

집합수사란 사람 및 대상을 하나의 집합으로 간주하여 '수량'을 나타내며, 수량수사처럼 'сколько' 라는 질문에 답하기 적합한 어휘 부류이다. 집합수사는 주로 구어체에서 많

이 사용되며 매우 폐쇄적인 단어그룹이므로, 연구자에 따라 수량수사의 하위부류로 간주하거나 수사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оба, обе, двое, трое, четверо, пятеро, шестеро, семеро, восьмеро, девятеро, десятеро와 같은 단어들이 포함된다.

2.2.1. 의미적 속성

집합수사는 숫자, 수량, 순서의미 가운데 집합의 수량 의미만을 표현한다.

2.2.2. 형태적 속성

집합수사는 수량수사처럼 수와 성 범주가 없고 격 범주만을 갖는다. 집합수사는 자체로 특정한 하나 이상의 수를 나타내므로 사실상 문법적 수 범주가 불필요하다. 또한, 집합수사는 대상성을 갖지 않으므로 성 범주가 없다.

2.2.3. 통사적 속성

1) 가산명사와 결합

대부분의 집합수사는 가산명사와만 결합할 수 있다. двое, трое, четверо는 일부 상시 복수 명사와 결합이 가능하다. 예) Когда это я шил *двое брюк* его людям?[И. Кокорев, Саввушка, 1847]; А сейчас едешь-едешь *трое суток* — и ничего![Ю. Домбровский, Хранитель древностей, часть 2, 1964]. 또한, 예외적으로 оба는 불가산명사와 결합할 수 있다. 이때 불가산명사는 묶음 또는 집합이라는 의미를 가져야 한다. 예) Мука с высоким содержанием глютена имеет процент клейковины около 12-14%, в то время как хлебная мука содержит около 10-13% глютена. *Обе муки* почти полностью изготовлены из твердой пшеницы, но некоторые виды муки с высоким содержанием глютена обрабатывают для снижения содержания крахмала.[Теория о шеничной муке] 위 예문에서 обе муки가 가능한 것은 두 가지 종류(оба вида муки)의 밀가루, 곧 글루텐 함량이 높은 밀가루와 평범한 밀가루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불가산명사인 мука는 하나의 집합으로 간주되며 оба와 결합이 가능하다.

2) 명사에 대한 통사적 지배관계

대부분의 집합수사는 직격구조에서만 사용되며 명사에 복수 생격을 지정한다. 또한, 집합수사는 결합하는 명사에 복수형을 지정한다. 예) *Двое(nom) мальчиков(gen.pl)* танцевали вокруг ошалелого от света и шума кролика [Д. Гранин, Месяц вверх ногами, 1966]; Откуда выскочили *трое(nom) мужчин(gen.pl)* в камуфляжной форме и масках [Л. Беррес, «Известия», 2003]. 단, двое와 달리 оба는 성 범주에서도 일치가 일어난다. 비교) *обеими* книгами(여성) — *обоими* журналами(남성).

3) 형용사에 대한 통사적 지배관계

집합수사가 형용사와 결합할 때, 형용사의 어순은 집합수사+형용사+명사의순서로 고정되어 있다. 이때 집합수사는 수량수사처럼 직격에서 복수 주격과 복수 생격의 형용

사의 격 형태 변이형을 갖는다. 예) двое светловолосые девушки/светловолосых девушек.

4) 인칭대명사와 결합 가능

집합수사는 인칭대명사와 결합이 가능하다. 이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수량수사처럼 집합수사가 인칭대명사와 주어-술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예) А всего в семье их было четверо: кроме Петра, ещё Борис, Георгий и Гавриил [Виктор Вайнерман. «Я — золотистый рыцарь, жизнь посвятивший мечте» // «Менестрель», 2013]. 둘째, 집합수사는 인칭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을 집합화하여, 집합 구성원의 수를 특징한다. 예) Вот он и вызвал к себе нас троих — Лаврова, начальника политотдела и меня [Ю. Н. Ерофеев, Аксель Берг, 2012].

5) 특정 구문에서의 사용 가능성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합수사는 수량 의미만을 갖고 추상적인 숫자의미나 순서의 의미를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집합수사는 일정한 수량의 할당 의미를 표현하는 по 구문에서 사용 가능하다. 예) Вы собирались по трое, по пятеро и даже по десятеро и даже по сотеро и тысячеро! [А. Слаповский, Большая Книга Перемен // «Волга», 2010]. 반면 도치를 통한 대략적인 수량의미 구문이 불가능한데, 이는 수량수사와 달리 집합수사는 집합을 구성하는 대상의 정확한 수량을 명명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략적인 수량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примерно와 같은 별도의 수식어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예) *человек пятеро: примерно пятеро человек. 이외에 집합수사는 순서의 의미를 갖지 않으므로 명명-동격 구문에서도 사용이 불가하다.

2.3. 서수사의 속성

서수사는 대상의 ‘순서’를 나타내며 ‘какой’의 질문에 답하기 적합한 어휘부류이다. 서수사는 형용사와 같이 성-수-격 파라디그마를 보유하므로 많은 연구자들은 서수사를 형용사에 포함시키며, 수사에 대한 의미적 관점을 견지하는 연구자들만이 서수사를 수사로 인정한다.

2.3.1. 의미적 속성

서수사는 ‘수량’과 ‘숫자’ 의미는 없지만 ‘순서’ 의미를 갖는다.

2.3.2. 형태적 속성

서수사는 형용사처럼 성, 수, 격 범주에 따라 곡용을 한다. 따라서 서수사는 성, 수 범주를 갖지 못하는 수량수사, 집합수사와 구분된다. 그러나 서수사의 성, 수 범주는 결합하는 명사의 성과 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독자적인 분류범주(классификационные категории)가 아니라 어형변화범주(словоизменительные категории)이다⁵⁾. 예) первый

5) 어형변화범주와 분류범주는 문법적 범주 분류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어형변화범주에서는 동일한 어휘가 형태변화를 하면서 문법소가 표현된다. 어형변화범주의 대표적인 범주

заказ — первые заказы, шестой класс — шестые классы.

2.3.3. 통사적 속성

1) 가산명사와 결합

서수사는 대상을 셈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지정하므로 우선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가산명사와 결합하고, 순서를 매길 수 없는 물질명사와는 원칙적으로 결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수사와 물질명사가 결합하는 용례도 발견되는데 이 경우 단위를 가리키는 단어가 생략되었다. 예) *третья (бутылка) вода, пятая (пачка) мука.*

2) 명사에 대한 통사적 지배관계

집합수사, 수량수사는 주격에서 결합하는 명사에 생격을 지정하며, 사격에서는 명사와 격일치를 이루는 반면 서수사는 형용사처럼 모든 격에서 명사에 일치하며 일치 한정어 역할을 수행한다. 예) *Во втором вагоне ехал оркестр и, выставив трубы из окон, играл марш Буденного* [И. Ильф, Двенадцать стульев, 1927]. 집합수사와 수량수사가 결합하는 명사의 문법적 수 형태를 지정한 바와 달리, 서수사의 경우는 반대로 명사의 문법적 수에 따라 서수사의 수 형태가 정해진다. 비교) *первый класс — первые классы.* 즉 성, 수, 격 범주에서 명사가 수사를 지배한다.

3) 형용사에 대한 통사적 지배관계

서수사는 형태적으로 그리고 통사적으로 형용사와 매우 유사하다. 영어의 경우, 명사에 결합하는 한정어가 여러 개인 경우 객관적인 의미를 갖는 한정어가 앞에 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개 서수사가 가장 앞에 위치한다. 러시아어에서도 서수사는 대개 형용사처럼 결합하는 명사에 선행하며, 서수사와 형용사가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주로 서수사가 형용사에 선행한다. 따라서 서수사의 경우 결합하는 형용사의 어순은 서수사에 후행하며 격 형태 변이형도 존재하지 않는다.

4) 인칭대명사와 결합하지 않음

서수사는 형용사처럼 한정적인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인칭대명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вторая она, *первый он.* 하지만 수량수사나 집합수사처럼 서수사도 인칭대명사와 주어-술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수사는 주어가 특정 자질에서 특정한 순서를 차지함을 가리킨다. 예) *Она — первая красавица филфака, он — первый интеллектуал* этого замечательного факультета Саратов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А. Б. Белов, Пассажиры бумажного кораблика (2009) // «Волга», 2010]. 서수사는 부사적인 기능도 수행한다. 다음 예문에서 서수사 *первая*는 모두 인칭대명사와 결합하여 '처음으로'라는 의미로 행위수행의 양태를 가리키는 부사처럼 사용된다. 예) *Заперев лабораторию и сдав ключ в проходную, она первая вышла на улицу* [Альберт Валентинов, Умирать будем молодыми // «Наука и религия», 2008]; *Она первая сообщила, в чем тут дело.* [Василий Аксенов, Таинственная страсть, 2007].

는 수 범주라고 할 수 있다. 분류범주에서 문법서의 분류는 반드시 어휘 차이와 관련된다.

5) 특정 구문에서의 사용 가능성

서수사는 수량의미가 없고 대상의 순서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도치를 통한 대략적인 수량의미를 전달하지 않으며, 수량 할당의 по 구문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반면, 서수사는 순서의미를 가지므로, 명명-동격 구문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예) В жизни *инного человека бывает много, и все движение идет вверх по спирали, так что дом второй приходится над первым, выше его, третий дом еще выше, и так растет как бы один дом со многими этажами вверх...*[М. Пришвин, Дневники, 1923]. 여기서 дом второй, третий дом은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의미한다.

3.4. 대명사형 수사의 속성

대명사의 전형적인 기능은 선행 문맥에서 명명된 무언가를 지시하고 대용한다. 대명사형 수사도 대상의 수와 양을 지시하지만, 그것을 정확히 명명하지는 않으며 이전에 언급된 것을 대용하는 용법으로도 기능한다. 일반적으로 대명사형 수사에는 один, оба, много, немного, мало, немало, несколько, сколько, сколько-нибудь, сколько-либо, сколько-то, столько, столько-то, нисколько 등이 포함된다 (Сичинава, 2018, 237). 이 가운데 대부분의 어휘들, 곧 много, немного, мало, немало, несколько, сколько, сколько-нибудь, сколько-либо, сколько-то, столько, столько-то, нисколько는 비한정수량수사에 해당한다. 비노그라도프와 샨스키도 много, мало, несколько 등을 비한정수량수사의 하위 그룹으로 간주한다(Виноградов, 1960, 366, Шанский, 1987, 142). 반면 Потебня는 много, мало를 부사로 정의했다.

그러나 이들 어휘는 대명사형 수사로서 의미적, 형태적, 통사적인 측면에서 비한정수량수사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한정수량수사의 대명사적 용법은 다루지 않으며 대명사형 수사로서 один, оба만을 분석한다.⁶⁾ 그러나 один 도 역시 위에서 한정수량수사에 포함시킨 바 있다. Один은 한정수량 수사 ‘1’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대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예) *Одни* заняли ключевые посты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другие* — в силовых ведомствах[И. Гальперин, «Совершенно секретно», 2003]. 여기에서 одни는 한정적인 수량의미가 아니라, другие와 대구를 이루어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의 의미를 갖는다. «일부의 사람»이라는 대략적인 수량을 가리키기는 하지만 정확한 수량을 명명하지는 않는다. 몇몇 연구자들은 один을 형용사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Оба(обе)는 대용적(지시적)인 의미로 이미 언급된 사물 또는 사람을 나타낸다. 예) И вы, и я, мы *оба* порядочные люди[Тургенев, Гамлет Щигоровского уезда, 1849]; Я

6) Много, мало, немало 등의 단어들은 부사적인 용법으로도 기능한다. 예) В детстве он очень *много* читал и до сих пор *много* читает(А. Данилова); Дима уже начал мучиться совестью, что *мало* работает(Ю. Нельская-Сидур). 본 논문은 수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부사적인 용법은 살펴보지 않았다.

был озлоблен, он угрюм; Страстей игру мы знали оба; Томила жизнь обоих нас; В обоих сердца жар угас [М. Гершензон, Мудрость Пушкина, 1919]. 위의 예문에서 оба는 вы와 я를, 그리고 я와 он을 가리키며 대응적인 용법으로 기능한다.

3.4.1. 의미적 속성

대명사형 수사는 앞서 언급된 수량이나 정도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수량의미를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예) Только Паша вечно надутый, а муж, Андрей, весёлый и спокойный. А тут оба одновременно улыбнулись, и я вижу, что это близкие друг другу люди[Е. Павлова, «Даша», 2004]. 여기서 оба는 앞서 언급된 Паша와 Андрей 두 명을 지시하며 3인칭 복수 대명사 они에 два(2)의 수량의미가 추가된 것 같은 기능을 한다.

3.4.2. 형태적 속성

1) 수 범주의 존재

대명사형 수사로서 один, оба는 단수(один/одна, оба/обе)와 복수형(одни)의 문법적 성과 수 범주를 가지며, 다른 대명사처럼 지시하는 대상의 성과 수에서 일치한다.

3.4.3. 통사적 속성

1) 가산명사와의 결합

대명사형 수사 один, оба는 앞선 문맥에서 언급된 하나 혹은 두 개의 대상을 지시한다. 따라서 대명사형 수사는 명사와 하나의 어결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동지시(коррелятивное)관계에 놓인다.

2) 명사에 대한 통사적 지배관계

대명사형 수사 один, оба는 수량수사와 달리 명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어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 대명사형 수사 один, оба는 대개 주어나 보어로써 독립적인 문장성분을 형성하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것이 대응하는 명사의 성과 수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를 취한다. 이 경우 대명사형 수사는 명사에 성과 수 범주에서 일치를 이룬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일치하는 다른 수사 부류와 달리 구 혹은 어결합의 경계를 넘어선다.

3) 형용사에 대한 통사적 지배관계

대명사형 수사 один, оба는 앞선 문맥에서 명명된 것을 대응하므로, 다른 대명사처럼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다.

4) 인칭대명사와 결합 가능성

대명사형 수사는 원칙적으로 인칭대명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어결합을 형성할 수 없다. 그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명사형 수사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주어나 보어와 같은 문장성분을 이루기 때문이다. Один, оба가 인칭대명사와 결합이 가능한 것은 다음 2가지이다. 첫째, 수량수사처럼 один, оба가 인칭대명사와 주어-술어 관계에 놓일 때이다. 예) Неподражаемый Андрей Мягков, он один в своём роде[Форум: рецензии на

фильм «Службный роман», 2006-2010]. 둘째, один, оба가 부사처럼 ‘혼자서’, 혹은 ‘둘이서’의 의미로 부사처럼 사용될 경우 인칭대명사와 결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один, оба는 인칭대명사가 아니라 행위 수행의 양태를 지시하므로 술어와 하나의 어결합을 이룬다. 예) Они оба собрали большие базы данных, но за пределы массового сравнения пока ещё не вышли [С. Старостин, «Знание – сила», 2003].

5) 특정 구문에서의 사용 가능성

Один, оба는 각기 하나와 두 개의 선행 대상을 지시하며, 비교적 정확하고 한정적인 수량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어순도치를 통해 대략적 수량의 의미를 전달하지 않고, 할당의 의미를 표현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여, 수량수사, 집합수사, 서수사, 대명사형 수사가 수사의 품사적 속성을 얼마나 충족시키는지 아래의 표로 제시할 수 있다. 분석의 결과 수사의 전형적인 속성을 충족하는 순서는 수량수사(한정수사 > 비한정수사) > 집합수사 > 서수사 > 대명사형 수사 순서임을 알 수 있다.

2.5. 러시아어 수사의 최근 사용 경향

수사는 다양한 품사의 속성을 포함하므로, 명사적 속성을 가진 수사는 명사로, 형용사적 속성을 가진 수사는 형용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혼합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은 단어들만 수사로 간주할 경우 수사에는 극히 적은 수의 어휘만이 포함되고, 이 경우 ‘수사를 독립된 품사로 간주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하지만, 현대 러시아어에서 수량 의미를 갖는 어휘들의 사용은 점점 확장되고, 또 기존에 수사로 분류되는 어휘부류들 사이에 기능적 재분배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수사의 품사적 속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최근 사용 경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코퍼스 분석을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Кузнецова, 2018, 145-151, Кувшинская 2013, 2015, 남혜현 2022) 현대 러시아어 수사의 사용 경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수사의 하위 부류 간 기능 재분배

집합수사와 수량수사는 모두 수량의 의미를 가지므로, 이들은 서로 경쟁관계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현대러시아어에서 집합수사의 사용은 수량수사에 비해 훨씬 적고, 그 사용 빈도수도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20세기 전반에는 총 9개의 집합수사(двое, трое, четверо, пятеро, шестеро, семеро, восьмеро, девятеро, десятеро)가 주로 사용된 반면(Виноградов, 1947, 308-310), 20세기 후반에 자주 사용되는 집합수사는 6개(двое, трое, четверо, пятеро, шестеро, семеро)로 감소했다(Шаронов, 2016, 55-56). 집합수사의 사용 축소는 오늘날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2016년도 러시아 코퍼스 분석에 의하면, 수량수사는 집합수사보다 10배~30배가량 더 자주 사용된다(Шаронов, 2016, 56).

원래 집합수사는 дети, ребята, ребяташки와 같은 상시복수 명사⁷⁾, 인칭대명사, 남성 지칭하는 명사나 명사화된 형용사(прохожий, больной 등), 어미 -а로 끝나는 남성 지칭 명사(мужчина, юноша 등), 동물의 새끼를 지칭하는 명사(теленок, воробышек)와 주로 결합한다. 예) Итак, Ростропович приехал в Кольмар на двое суток [С. Спивакова, Не всё, 2002]; У него четверо ребят из семинара ушли, и он недоумевает [С. Есин, Дневник, 2006]; Он напетлял по лесу, и мне кажется — их двое [Ю. Коваль, Сиротская зима, 1980-1993]. 반면, 수량수사는 여성명사 및 동물을 가리키는 어휘와 주로 결합한다. 예) Две девочки накрывают его к празднику, уже стоят ваза с полевыми цветами и чашки [М. Гордеева, Национальный музей Стокгольм, 2013]; И, значит, приезжают два быка из «Ультима Туле»... [В. Пелевин, Чапаев и пустота, 1996].

그러나 오늘날 러시아 코퍼스에서 집합수사와 수량수사의 경쟁구도를 관찰할 수 있다. 예컨대, 오늘날 동물과 그 새끼를 지칭하는 명사는 집합수사보다 수량수사를 더 선호한다. 비교) три волка(13), трое волков(0), три быка(11), трое быков(3), три медвежонка(5), трое медвежат(2), два котенка(10), двое котят(2)⁸⁾.

이 외에 수량명사 + 여성명사라는 관례화된 어결합 외에 двое женщин, трое сестер처럼 집합명사와 여성명사의 어결합도 자주 발견된다. 예) Бригаду из пяти человек,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й входили трое мужчин и двое женщин-смертниц, подрядили на совершение взрывов столице [Павел Евдокимов. Тень «Норд-Оста» (2003) // «Спецназ России», 15.06.2003]. 특히 трое женщин은 여성을 가리키는 명사와 집합명사가 결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현대러시아 표준어의 규범으로 인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집합수사가 동물을 지칭하는 명사와 결합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용례는 동물을 의인화 할 경우 좀 더 자연스럽다. 예) Было трое котов: Прохор, Харлам и Терентий. Вместе их связала крепкая мужская дружба...[Митьки. Три кота (1992)]. 즉, трое котов는 Прохор, Харлам 그리고 Терентий라는 고양이 세 마리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밖에 집합수사는 앞선 언급된 특정 수의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하며 대용적(анафорическое)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경우 집합수사는 대명사형 수사에 근접해진다. 예) Они буквально напоролись на трёх немцев, на трёх неспавших немцев. Эти трое полулежали на грузовой автомашине и, кутаясь в одеяла, разговаривали между собой [Э. Казакевич, Звезда, 1946]. 이 예문에서 трое는 선행문맥의 три неспавших немцев(3명의 잠들지 않은 독일인)를 가리킨다. 동물을 지칭하는 대용적 기능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예) Коты эти - все трое - смущают меня. Мне в их присутствии всегда немного не по себе. (М. Петросян. Дом, в котором...). 마찬가지로 все трое는 선행

7) 단, 이는 직격으로 제한된다. 주격과 대격 외의 사격에서는 집합수사 대신 수량수사가 선호된다. 예) нет двух(*двоих) саней; подойти к двум(*двоим) саням.

8) 괄호 안의 숫자는 코퍼스에서 발견되는 사례의 수다.

행문맥의 коты эти(이 고양이들)를 가리킨다. 집합수사의 여러 기능 중 대응적인 기능은 특히 집합을 나타내는 대상을 가리킬 때 잘 활용될 수 있으며, 집합수사는 수량수사 못지 않게 중요하고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수량수사는 서수사의 전형적인 기능인 순서의미로도 확장하고 있다. 멜추이 제시한 명명-동격 구문은 사실상 순서 의미를 표현하는데, 명명-동격 구문에서는 한정수량수사가 사용된다. 예) Движение автоколонн и танков — от Знаменка на Карабиновка, от Лиманское на Котивець, от Шевченко 2 на Кислянка, от Варваровка на Петро-Михайловка (оба пункта 35-45 км ю. [Сборник боевых документо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ыпуск 42 (1941)]; В самом ее начале, едва ли не от края оврага и до угла Красноармейского переулкa, стояла особняком большая раскидистая изба, не похожая на жилые дома, — с высокими окнами, разделенная на несколько комнат с ученическими партами — это была моя начальная школа № 35.[Р. Б. Ахмедов. Промельки (2011) // «Бельские Просторы»]. 예문에서 Шевченко 2와 школа(№) 35의 수량수사는 거리와 학교의 명칭을 나타냄과 동시에 거리의 순서와 학교의 순서를 나타내며 서수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2) 의미적 일치의 확대

수량의미 주어에서 술어는 2가지 형태의 일치가 가능하다. 즉, 주어 지시체의 복수성을 고려하여 술어는 복수형을 취하거나, 혹은 수사가 문법적 성, 수 범주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술어는 성과 수의 대립에서 중립적인 중성 단수형을 취할 수 있다. 전자를 의미적 일치, 후자를 문법적 일치라고 한다. 비교)два года прошло vs. два года прошли.

수량의미의 주어와 결합할 때 술어는 주로 의미적 일치를 이루며 복수형을 취하는 경향이 강하다(Розенталь 2010, 258; Валгина 2001, 225-226).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правильность русской речи»(러시아어의 문법적 정확성 사전)(Граудина, 2004)에 의하면, сто человек работает(sg.)/работают(pl.)에서 단수형 술어와 복수형 술어의 비율은 각각 46,47%와 53,53%로 비슷했다. 하지만 2018년도에 쿠즈네초바의 실험에 따르면, двадцать специалистов уезжает(sg.)/уезжают(pl.)에서 단수형 술어와 복수형 술어의 비율은 각각 8.7%와 91,30%으로, 의미적 일치가 압도적으로 선호되었다.

하지만 모든 수량의미 주어에서 이러한 의미적 일치가 선호되지는 않는다. 쿠브친스카야는 18세기에서 21세기까지 다양한 수량의미 주어와 술어 사이의 수 일치 형태 변화를 분석하였다(Кувшинская, 2015, 131-132; 남혜현, 2022, 64-65 재인용). 분석에 의하면, 18세기에는 한정수량수사 주어에서 술어는 복수형태가 월등히 많이 사용되었다. 반면, 비한정수량수사의 경우 술어는 중성 단수형태를 취하며 대부분 무표적 일치를 한다. 따라서 주어가 나타내는 수량의미가 구체적인 경우에는 술어가 의미적 일치를 하고, 수량의미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형태적 일치에 따라 단수형의 술어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혜현(2022, 66)에 따르면, 수량의미가 구체적인 경우에는 대상이 각각 분할된 개

체들로 인식되기 때문에 대상의 복수성이 두드러진다. 반면에, 수량의미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대상은 하나의 집합, 집단, 총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상의 복수성이 떨어진다. 한정수량수사 내에서도 два, три, четыре는 пять 이상의 수사보다 복수형태의 술어를 선호하는데 이는 코벳의 개별화(individualization) 정도와 관련지을 수 있다. 해당 개념에 따르면, 인간은 큰 수일수록 그것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수를 나타내는 수사는 하나의 집합이나 총체를 나타내는 집합명사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Corbett, 2009, 346). 이처럼 수량의 구체성이 대상의 분할성/집합성 정도와 관련되어 의미적 일치를 선택하는 원인이 되며, 오늘날에도 비한정수량수사 주어는 단수형의 술어, 곧 문법적 일치를 선호한다.

3) 평가의미를 담은 신조어 수사의 등장

수사는 폐쇄적인 어휘부류이므로 신조어를 생성하지 않는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비한정적이고, 비교적 큰 수량의미에 긍정적인 평가의미를 더한 수사들이 만들어졌다. 예컨대, стопитцот은 100,500을 나타내며 최근에 채팅 및 인터넷 사이트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는 «+ 100500»이라는 인터넷 밈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셀 수 없이 많은 ‘좋아요’를 의미한다. 인터넷의 특성상 신조어의 표기법은 규범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стопитцот도 стопицот, стояцот, стопецот, 100500 등 다양하게 표기된다. 예) А я по опыту знаю, что есть такие, что чем слабее становишься, тем сильнее бьют (фигурально). +стопицот [Коллективный. Форум: Вопрос про себя, 2012]; Ха-ха-ха-ха!!!! 100500! Хорошо! [Коллективный. Форум: Разорять область они не боялись, а книжку боятся, 2011]. 위의 두 예문에서 + стопицот과 100500은 '매우 동의한다', '지지한다', '옳다'라는 긍정적 평가의미로 해석된다.

Миллион-тыщи도 стопицот처럼 '매우 많은 수량'의미에 긍정적 평가의미(точно, правильно, верно 등)가 더해졌다.

이처럼 수사는 폐쇄적인 그룹이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언어사용이 보장되는 구어체와 인터넷 소통에서 '큰 비한정적 수량의미'에 일종의 평가의미를 결합한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3.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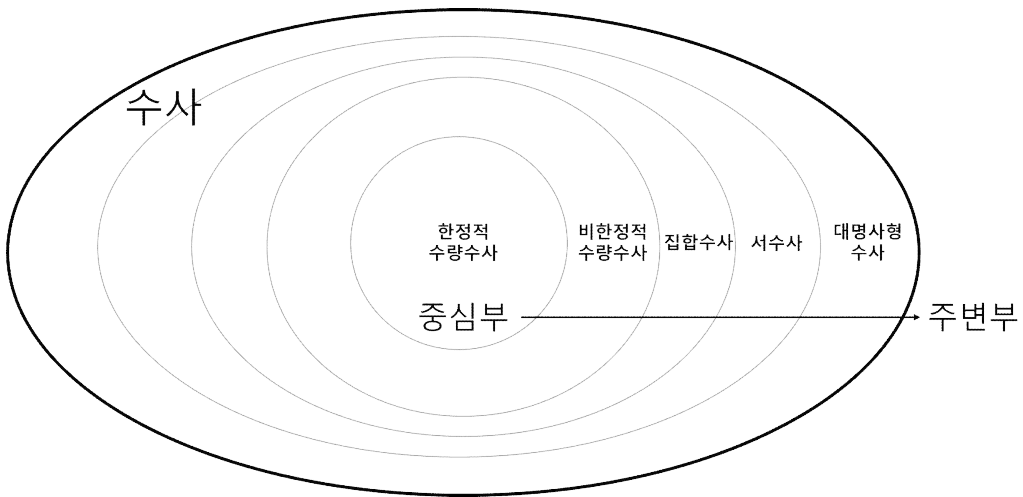
기존 연구에서 수사는 폐쇄적인 어휘부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수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의미적 접근과 문법적 접근이 있다. 의미적 접근에서는 первый와 같은 서수 형용사도, миллион과 같은 명사도 수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문법적 접근에서는 수량수사와 집합수사만 수사에 포함된다. 이 경우 수사로 분류되는 단어의 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며, 독립된 품사로서 수사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멜축은 수사의 속성을 세분화하여 자세히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는 문법적인 접근에서 수사를 바라보았으며, 한정수량수사와 집합수사만이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멜축이 제시한 수사의 의미적, 형태적, 통사적 속성들은 결국 그가 수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한정수량수사 기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제시한 모든 속성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한정수량수사 밖에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멜추이 제시한 속성을 받아드리되, 수사의 전형적인 품사적 속성으로는 보기 어려운 속성들은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의 결과 수사의 전형적인 속성을 충족하는 순서는 한정적 수량수사, 비한정적 수량수사, 집합수사, 서수사, 대명사형 수사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사를 하나의 독립된 품사이지만 유동적인 어휘장으로 파악한다. 즉 수사라는 장의 중심부에는 한정적 수량수사가 있고, 비한정적 수량수사, 집합수사, 서수사, 대명사형 수사가 순서대로 중심으로부터 주변부를 형성한다. 장의 중심부에서 벗어날수록 단어는 다른 품사와 공유하는 속성이 많아지면서 혼합적인 성격을 띤다. 특히 один은 수사의 혼합적인 성격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 один은 그 의미에 따라 한정수량수사는 물론, 대명사형 수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까지 포괄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1. 수사의 어휘장



본 논문에서는 현대 러시아어 수사의 사용 경향성도 살펴보았다. 현대 러시아어에서 수사의 하위 부류, 곧 수량수사, 집합수사, 서수사, 대명사형 수사 사이에는 기능 영역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일종의 경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수량수사가 집합수사와 서수사의 의미영역으로 확장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마지막으로, 한정적 수량의미주어와 술어의 결합에서 의미적 일치가 더욱 증가한다. 이밖에 비교적 큰 수량의 의미에 일종의 평가의미를 결합한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수사가 폐쇄적인 어휘부류라는 기존의 시각에 반증이 된다.

참 고 문 헌

[한국어 문헌]

- 김용화(2010), “현대 표준러시아어 명사류 변화에 관한 통시적 연구: 수사의 변화 추이에 관한 통시적 고찰”.
- 김형섭(2011), “러시아어 수사구에 관한 재해석의 가능성: 핵어의 문제”.
- 남혜현(2022), “러시아어에서 수량의미 주어와 술어의 일치 문제. 언어연구와 언어교육의 접점”, 21세기 연세인문학총서 9권.
- 이수현(2000), “러시아어 수사구문의 통사, 의미 연구”.
- _____ (2013), “러시아어 수사 관용구의 양적 의미와 세계상”.
- 조남신, 박수빈(2017), “러시아어학개론”.
- 추석훈, 홍준희(2008), “러시아어 수사구문의 술어 수일치에 관한 의미-통사적 연구”.

[영어 문헌]

- Corbett, G. G(1993), “Heads in grammatical theory: The head of Russian numeral expressions”.
- _____ (1978), “Problems in the Syntax of Slavonic Numerals”.
- _____ (2009), “Morphology-free syntax: two potential counter-examples from Serbo-Croat”, In: Steven Franks, Vrinda Chidambaram and Brian Joseph (eds) A Linguist's Linguist: Studies in South Slavic Linguistics in Honor of E. Wayles Browne. Bloomington, Indiana: Slavica.
- Mel'čuk, I. A(2015), “Semantics: From meaning to text”.

[러시아어 문헌]

- Абрашкин, А. А.(2016), “О происхождении русских числительных”.
- Бабайцева, В. В.(2014), “Статьи последних лет” / Под ред. д-р филол. наук проф. К. Э. Штайн, д-р филол. наук Д. И. Петренко.– М.- Ставрополь: Изд-во СКФУ.
- Балалыкина, Э. А.(2009), “Числительные как особая часть речи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 Богородицкий, В. А.(1935), “Общий курс русской грамматики”.
- Буслаев, Ф. И.(1858), “Опыт исторической грамматик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 _____ (1959), “Историче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 Валгина, Н. С. и др(2002), “Современный русский язык: Учебник”.
- Виноградов, В. В. и др(1960),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Том 1”.
- _____ (1960),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Том 2”.
- _____ (1947), “Русский язык, грамматическое учение о слове: первое издание”.

- _____ (1986), “Русский язык, грамматическое учение о слове: второе издание”.
- Востоков, А. Х.(1844),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 Гордиевская, М. Л.(2011), “Абстрактные количественные понятия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из опыта анализа синтаксической связи) //Славянский альманах. № 2010. М.: «Индрик».
- Граудина, Л. К., Ицкович, В. А., Катлинская, Л.П.(2004),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правильность русской речи”.
- Дупленко, М.В.(2017), “Собирательные числительные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тексте”.
- Дюрович, Л.(1975), “Обратный словарь”.
- Дьячкова, И. Н.(2009), “Имена числительные: состав, структура 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 в русском литературном языке XVIII века”.
- _____ (2011), “Имена числительные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предпушкинского периода. Состав, структура 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
- Евтюхин, В. Б. и др.(2009), “Морфолог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языка”.
- Жолобов, С. И.(2006), “Краткий темат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 Зализняк, А.А.(1980), “Граммат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 Карпов, А. К.(2019), “Морфолог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языка”.
- Кувшинская, Ю. М.(2013), “Согласование сказуемого с подлежащим, выраженным именной группой с количественным значением”.
- Кузнецова, И. А.(2018), “Тенденции в выборе форм числа сказуемого при разных способах выражения подлежащего”.
- Ломоносов, М. В.(1755), “Россий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 Лопатин, В. В., Улуханов, И. С.(2017), “РУССКИЙ ЯЗЫК” //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Электронная версия.
- Лукин, М. Ф.(1987), “К вопросу о лексико-грамматическом статусе числительных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 Лыков, А. В., Лыкова, Т.В.(2006), “К вопросу об отношении современных русских числительных к частям речи”.
- Мельчук, И. А.(1985), “Поверхностный синтаксис русских числовых выражений”.
- Меркурьева, С. В.(2014), “История происхождения имен числительных” (проблемно-реферативная работа).
- Наумова, И. А.(2018), “Морфология простым языком: Учебно-справочное пособие, версия 2.3”.
-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рпу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www.ruscorpora.ru/>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022.12).
- Никитевич, А. В.(2020), “Семантика числа, числительные и деривация как процесс в

русских говорах”.

Исупова, Т. В.(1992), “Развитие прилагательных с основой числительного два в истори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Павский, П. Г.(1850), “Филологические наблюдения над составом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Панов, М. В.(2004), “Труды по общему языкознанию и русскому языку, ТОМ 1”.

Пешковский, А. М.(1914), “Русский синтаксис в научном освещении: первое издание”.

_____ (2001), “Русский синтаксис в научном освещении: восьмое издание”.

Плунгян, В. А.(2003), “Общая морфология”.

Сидоренко, Е. Н.(2017), “Морфолог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Части речи и контаминанты”.

Сичинава, Д. В(2018), “Числительные”.

Старикова, Г. Н.(2011), “Современные числительные в аспекте языковой динамики”.

Степанов, Ю. С.(1989), “Вопросы языкознания: теоретический журнал по общему и сравнительному языкознанию”.

_____ (1975), “Методы и принципы современной лингвистики”.

Супрун, А. Е.(1959), “О русских числительных”.

_____ (1969), “Славянские числительные”.

Чеснокова, Л. Д.(1997), “Имя числительное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Семантика. Грамматика. Функции”.

Чечулина, Л. С., Домрачева, А. С.(2019), “Проблема частеречного статуса порядковых слов”.

Хэн Цзяци(2021), “Неологизмы в области числительных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Благословенны первые шаги”.

Шанский, Н. М., Тихонов, А. Н.(1987), “Современный Русский язык. Часть II”.

Шапошников, А. К.(2010), “Этим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язык: Том 1”.

Шаронов, И. А.(2016), “Загадки собирательных числительных сквозь призму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орпус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Шахматов, А. А.(1952), “Из трудов А.А. Шахматова по современному русскому языку”.

Шелаев, Р. Ю.(2018), “Изучение имени числительного на уроках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начальной школе”.

Шведова, Н. Ю. и др.(1980),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ABSTRACT

A study on Russian numerals as a part of speech

Shin, Jiyun

The part of speech called ‘numerals’ did not exist until the seventeenth century. Therefore, the words representing ‘number’ and ‘quantity’, which are currently regarded as the main meanings of numerals, belonged to various parts of speech. Later,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those words, an independent part of speech called ‘numerals’ was established. However, there are still controversies about this part of speech. Various opinions are presented among researchers, including the consideration of numerals as an independent part of speech, an individual part of speech, an auxiliary part of speech, or just an auxiliary word.

Mel'čuk presented many grounds to explain numerals as an individual part of speech. Unlike the general classification of numerals, he divided them into five categories and presented 17 semantic, formal and syntactic properties. Therefore, based on them I have examined the formal, semantic, and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To set the scope of numerals, this paper reinterprets the 17 properties of numerals proposed by Mel'čuk; some of properties that are difficult to see as typical attributes of numerals were excluded, while some attributes that should be considered as typical properties were added.

As a result, Russian numerals can be called an independent part of speech, but they are understood as a flexible vocabulary. In other words, in the center of the field of numerals, there are determined cardinal numerals, while non-determined cardinal numerals, collective numerals, ordinal numerals and pronoun-type numerals form the periphery to the center. The further away from the center, the more a word shares with other parts of speech, taking on a hybrid character.

Through the trend of using numerals, there is a redistribution of functional areas among subclasses of numerals in modern Russian: that is, cardinal, collective, ordinal, and pronoun-type numerals, which can be identified as being in a kind of competition. Overall, cardinal numerals tend to expand into the semantic domain of collective and ordinal numerals, and semantic agreement is further increasing in the combination of subject and predicate with determined cardinal meaning. Finally,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neologisms occur in the closed lexical class of numerals.

Key words: Russian numerals, parts of speech, standard of parts of speech classification, flexible vocabulary, mixed nature of numerals, trend of using numerals, functional domain redistribution, semantic field, neologisms.

러시아어 무동사 생략문의 개념에 대한 고찰

Безглагольные эллиптические конструкции

김 세 립*

1. 서론

생략은 언어보편적으로 특정한 문법 범주나 문장 성분에 국한되지 않고, 대화체 구문 뿐만 아니라 성문화된 문학어에서도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언어와 사고, 논리와 문법, 형태와 의미와 같은 근본적인 언어학의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기에 생략문(эллиптические предложения)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언어학자들의 중요한 관심 대상이었다. 특히 러시아어에서는 비어 있는 문장의 통사적 위치 또는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발화의 측면이 많이 관찰되는데, 이에 관하여 바이스(Weiss 1993)는 러시아어의 ‘제로에 대한 사랑(die Liebe zur Null)’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생략은 좁게도 넓게도 이해될 수 있다. 협의의 생략은 구조적 불완전성, 동사 술어의 부재를 가리킨다. 이 경우 특정 의미를 지닌 동사들만 생략될 수 있는데, 해당 생략문은 자립적으로 존재하고 의미상 완전하며 전후 맥락 밖에서 이해된다. 광의의 생략은 구조적 불완전성 뿐만 아니라 맥락적, 상황적 불완전성 또한 아우른다. 따라서 생략된 발화 요소는 통사적 술어가 아닌 다른 성분일 수 있다.

최근 생략문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생략문의 문체론적 역할이 문학 텍스트를 바탕으로 분석되고 다른 언어들과의 교차번역 문제가 고찰된다. 새로운 접근법에 의해 생략문의 연구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학자마다 기술상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하는 생략의 개념이 상이하다. 이러한 불일치는 통사적 부재의 측면에서 표면상 생략문과 유사한 다른 구문들에 대한 이해에 혼란을 가중시킨다. 생략문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생략문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현대 러시아어에서 널리 사용되는 무동사 구문(безглагольные конструкции)에는 의존문법에서 핵심적 성분으로 기능하는 동사가 부재한다. 문장을 규정하는 데에 있어 서술성(предикативность)의 개념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서술성의 표현을 동사와 대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동사 생략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고유한 문법적, 구조적 특성 및 화용적 기능에 대한 총체적 연구가 필요하다.

무동사 생략문은 어느 ‘완전한’ 문장에서 도출되어진 것이 아닌, 표현적 통사론(экспрессивный синтаксис)의 요소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무동사 생략문과 관련된 통사 구문들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무동사 생략문의 개념과 동사 생략의 작용을 명료히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 2장에서는 무동사 생략문과 혼동의 여지가 있는 불완전문, 제로 계사를 포함한 구문, 주격문을 살펴보고(2.1) 동사 생략이 발생하는 동기를 고찰한 후(2.2), 무동사 생략문의 범위를 규정하겠다(2.3).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노어노문학과 석사

2. 무동사 생략문 및 관련 통사적 현상들에 대한 개념 정의

생략의 문제가 복잡한 이유는 그것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생략이 광의의 개념이 될 수도 협의의 개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프레산(Апресян 1986)은 제로(нуль), 수의적 결합가(факультативная валентность)의 미실현¹⁾과 더불어 생략을 통사적 부재의 한 유형으로 본다. 학교 문법에서는 생략이 종종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 중복과 반대되는 언어의 경제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해되거나 통사적 부재의 상위어로서 사용된다. 야르체바의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Ярцева 1990)에서는 생략을 말 또는 텍스트에서 암시되는 언어 단위가 누락된 것, 통사 구문의 구조적 불완전성이라 정의한다. 테스텔레츠의 Введение в общий синтаксис(Тестелец 2001)는 연결된 텍스트나 대화의 문장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빠지는 것을 생략적 축약(эллиптическое сокращение) 또는 생략이라 일컫는다. 학자 간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으나 가장 전통적인 연구들에서는 “특정 행위 의미를 표현하고 구조적으로 동사 술어가 부재하지만, 인접 맥락 또는 상황으로부터 어휘의미적 보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발화들”을 생략문(эллиптические предложения)이라고 칭한다(Сковородников 1967; Попова 1953; Лекант 1974). 이러한 생략문의 전통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가리킨다.

- (1) Вы из аэропорта сразу домой?
- (2) Ты с ним сквозь зубы?
- (3) Я его кулаком в бок.

생략문 외에도 ‘무동사 생략문(безглагольные эллиптические предложения)’(Сковородников 1967), ‘무동사문(безглагольные предложения)’(Щаднева 2000), 구어 연구에서 전통적인 ‘제로 동사(нулевой глагол)’, ‘제로 유의미 동사-술어(нулевой полнозначный глагол-предикат)’를 포함하는 발화’(Земская 1973, Ширяев 1973; Wiemer 1996) 등의 여러 용어가 사용된다.²⁾ 본고에서는 동사 성분이 문장에서 생략되어 부재한다는 특성을 잘 나타내는 용어인 ‘무동사 생략문’을 사용한다.

2.1. 무동사 생략문과 관련된 통사적 현상들

2.1.1. 불완전문

러시아어 생략문의 연구를 살펴보면 ‘불완전문(неполные предложения)’이라는 개념이 자주 함께 등장한다. 불완전문이란 특정 문장성분이 누락되어 문법적 구조가 불완전한 문장을 일컫는다. 불완전문에서는 문장의 주성분 뿐만 아니라 부차성분도 생략될 수 있고, 여러 성분이 동시에 누락될

1) 직접 타동사(прямопереходный глагол)의 절대적 사용을 예로 들 수 있다: мальчик читает.

2) ‘без-’는 무(無), 결(缺), 부(不) 등의 뜻을 나타내는데, 동사가 부재하지만 완전한 구문을 표현하기에는 ‘빠져서 부족함’을 의미하는 결(缺)보다 ‘없음,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무(無)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제로(zero)’라고 번역한 ‘нуль’은 ‘영(零)’ 및 ‘영형(零形)’과 거의 동일하게 이해된다.

수도 있다.

(4) Вот этот сок нужен липе, тот $\emptyset_{\text{сок}}$ — $\emptyset_{\text{нужен}}$ ландышу, тот $\emptyset_{\text{сок}}$ — $\emptyset_{\text{нужен}}$ сосне, а тот $\emptyset_{\text{сок}}$ — $\emptyset_{\text{нужен}}$ папоротнику или дикой малине. [А. Куприн, Ночная фиалка]

(4)의 Вот этот сок нужен липе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문법적으로 구조가 불완전하다. 주성분인 сок нужен은 문장의 앞 부분에 존재하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다. сок와 нужен은 문장에서 지칭되지는 않지만, 각각 남성 단수 주격의 한정어 тот, 여격 보어 ландышу, сосне, папоротнику, малине의 형태들을 지배한다. 불완전문은 누락된 문장성분이 맥락과 발화 상황 중 무엇에 의해 명확해지는가에 따라 맥락적(контекстуальные) 불완전문과 상황적(ситуативные) 불완전문으로 나뉜다. 먼저, 맥락적 불완전문에서 지칭되지 않은 문장성분은 인접한 문장 또는 (만일 복문이라면) 동일한 문장 내에서 언급된다.

(5) По одну сторону прорыва, скрестив руки, в женском малиновом берете — $\emptyset_{\text{стоял}}$ фигурант с голубыми глазами и маленькими черными усиками над загнутыми в мекфистофельскую улыбку тонкими, змеистыми губами. По другую $\emptyset_{\text{сторону}}$ стоял начальник, и каждый знал, что начальник сейчас за правду стоит и ни одной минуты не поколеблется. [М. Пришвин, Осударева дорога]

(5)에서 술어 стоял은 두 번째 문장에는 있지만 첫 번째 문장에는 없고, 문두에 위치한 상황어구는 첫 번째 문장에 온전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는 сторону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두 문장은 모두 맥락적 불완전문에 해당한다. 맥락적 불완전문은 특히 공백화(gapping)의 개념과도 관련 있는데, 공백화란 (6)과 같은 등위 혹은 비교 구문의 후행절에서 동사가 생략되는 현상을 말한다.

(6) Мишка сидел впереди, а Танька $\emptyset_{\text{сидела}}$ сзади, обхватив Мишку поперёк живота.

[В. Токарева, День без вранья]

공백화를 허가하는 요소는 선행사를 포함한 선행절과 생략절 간의 구조적 평행성(parallelism)이다. 선행사는 언어외적 맥락에 의해서만 암시될 수 없고 선행절에 명시되어야 한다. 공백화 구문에서 복구되는 동사는 선행 발화에서 규정되기 때문이다. 러시아어에서는 공백화가 문체론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모든 발화 사용역(register)에서 자유롭게 사용된다.³⁾ 반면 상황적 불완전문에서 지칭되지 않은 문장성분은 상황에 의해 암시된다. 상황적 불완전 발화는 생생한 구어의 가장 큰 특성이며, 가끔

3) 영어와 러시아어를 비교한 맥세인에 의하면 공백화는 영어에서 다소 형식적이거나 계획된 발화에 가장 일반적이고, 형태론적 격 표지가 존재하는 러시아어에서는 그보다 공백화의 가능성이 더 크다(McShane 2005: 139-140).

예) a. Мама попросила Мишу спеть, а отец $\emptyset_{\text{попросил}}$ — сыграть на гитаре.

*Mom asked Misha to sing and Dad $\emptyset_{\text{asked}}$ to play the guitar.

b. Мама попросила Мишу спеть, а $\emptyset_{\text{она}}$ попросила отца — сыграть на гитаре.

Mom asked Misha to sing and $\emptyset_{\text{she}}$ asked Dad to play the guitar.

일어나는 의미구조 일부의 비언어화(невербализация)와 관련 있다. 이때 생략되는 술어는 특정 어휘의미로 국한되지 않는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7) Самое милое дело комнату бы сразу ∅_{купить}, а потом уже решить.

(8) Так что мы зря ∅_{обвиняли} на бокового ∅_{судью}, боковой ∅_{судья} был прав. (Сай 2002: 71)

술어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7)와 (8)의 의미는 의사소통 상황 또는 화청자가 상호작용하는 공통 환경으로부터 쉽게 관독될 수 있다. 생략된 단어들(купить, обвиняли, судью, судья)이 선행하는 문장이나 담화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의 문장들은 상황적 불완전문에 해당한다. 그러나 불완전문을 맥락적 불완전문과 상황적 불완전문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조건적이다. ‘맥락’이라는 단어가 종종 말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글에서는 당연히 상황이 언어적(словесное) 표현을 갖게 되므로 맥락적 문장의 일부 특성을 획득한다.

(9) а. Ребята ∅_{взяли} ложки в руки и принялись за еду.

б. Положение участников таково: Иванов — ∅_{набрал} два очка, Петров — ∅_{набрал} одно ∅_{очко}.

(Грамматик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2257)

(9a)에는 아이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상황이, (9b)에는 경기 참여자 이바노프와 페트로프의 득점 현황을 알리는 상황이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적 맥락은 각 문장에서 술어의 역할을 하는 동사 взять ‘들다, 잡다’와 набрать ‘(점수를) 따다’가 생략되어 있음을 신호한다. 문법적 구조가 불완전하지만, 불완전문은 아무런 문제 없이 정보 전달이라는 의사소통 목적에 부합한다. 특정 문장성분의 누락이 해당 문장의 의미적 완전성과 명료성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불완전문은 끝까지 다 말해지지 않은 문장, 곧 어떤 이유로 중단된 발화와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무동사 생략문은 메시지 전달을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문장성분이 누락되며, 술어와 관련된 부차성분이 술어부에 남아서 생략된 술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불완전문에 가깝다. 따라서 흔히 생략문을 불완전문의 특수한 변이형으로 간주하거나(В.В. Бабайцева, Е.М. Галкина-Федорук, А.П. Сковородников, Д.Э. Розенталь, А.А. Шевцова 등) 불완전문의 동의어로 사용하였다(В.Г. Адмони, С.Г. Бархударов, В.А. Белошапкова, Н.С. Валгина, А.А. Реформатский 등). 그러나 무동사 생략문은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맥락도 상황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것이 지닌 불완전성은 구조적 규범이다.

2.1.2. 제로 기사(∅_{быть})를 포함한 문장

앞서 무동사문의 다른 용어로 ‘제로 동사(-술어)를 포함하는 발화’가 사용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당 용어에서 제로 동사는 실질적 의미를 갖는 내용어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기능어인 동사-기사⁴⁾가

4) 러시아 언어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어휘의미의 발현 정도에 따라 동사-계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а) 어휘의미를 상실한(неполнозначные) 동사-기사: быть, являться, б) 어휘의미를 부분적으로 상실한(полузнаменательные)

영형태로 나타나는 문장도 존재한다. 사실 러시아어를 포함한 많은 언어에서 계사 BE⁵⁾는 제로로 나타난다.

(10) Лондон — столица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계사(связка)란 동일화(=), 집합-구성원(∈), 포함(⊂) 등과 같은 논항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품사로, 주부와 술부 사이에 위치하여 둘을 연결한다. 러시아어의 *быть* 동사는 영어의 *be*와 마찬가지로 어휘의미의 개별성을 상실한 정도가 높아, 계사 범주 체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흥미롭게도 해당 동사-계사는 (10)과 같은 현재시제의 문장에서 흔히 생략된다. 즉, ‘제로 계사(нулевая связка)’로 나타난다. 멜추크는 이러한 영형태의 계사가 러시아어의 유일한 제로 어형(нулевая лекса)이라고 주장하는데(Мельчук 1974: 349), 언어 체계에 동의어적 비제로 표현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리기나와 슈멜레프가 정의한 통사적 제로(синтаксический нуль)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Булыгина&Шмелев 1990: 110). 통사적 제로에 대한 이해는 대체로 구조주의적 파라디그마(парадигма)와 관련되며 형태론에서 제로 요소를 밝히는 과정과 비슷하다. 실제로 그린버그의 사각형(Greenberg’s square)⁶⁾을 적용하여 *быть*와 일반 불완료상 동사의 통사적 파라디그마를 비교해보면 제로 어형의 존재는 더욱 명백해진다.

<표 1> *быть*와 *рисовать*의 통사적 파라디그마 비교

현재	Он $\emptyset$ студент	Он <i>рисует</i>
과거	Он <i>был</i> студентом	Он <i>рисовал</i>

표 왼쪽 상단의 문장 Он студент에서는 상응하는 영어 문장 He is a student의 is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이 주어와 술부의 명사들이 직접 연결된다. 레투치(Летучий 2018)에 의하면 제로 계사는 술어 자리에 동사 외의 다른 품사의 단어가 오는 문장에서 표현되지 않는 동사를 가리킨다.

(11) a. Иван $\emptyset$ инженер. (비교: Иван *был* инженером; Иван *будет* инженером)

b. Она $\emptyset$ красивая. (비교: Она *была* красивая; Она *будет* красивая)

동사-계사: именоваться, казаться, составлять, находиться 등, c) 어휘의미를 유지하는(знаменательные/полнозначные)
동사-계사: стоять, лежать, ходить 등.

- 본고에서는 대문자 BE를 개별 언어에서 영어의 구체적 어휘 *be*에 상응하는 부분들의 집합을 일컫는 보편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
- 형태소를 분석하는 방법 중 하나로 러시아학계에서는 ‘квадрат Гринберга’라 칭한다. 사각형은 연속적인 AC, BC, AD, BD 형태들로 구성되는데, 영어의 예를 들자면 eating:sleeping::eats:sleeps(A=eat-, B=sleep-, C=ing, D=s), hand:hands::table:tables(A=hand, B=table, C=제로, D=s) 등이 있다. 즉, 동일한 어근/어간을 갖지만 접사/어미가 다른(혹은 없는) 단어와, 동일한 접사/어미를 갖지만 어근/어간은 다른 단어가 비교된다. 더 자세한 설명은 J. Greenberg(1960)을 참조.

- c. Концерт $\emptyset$ завтра. (비교: Концерт *был* завтра; Концерт *будет* завтра)
d. В саду $\emptyset$ хорошо. (비교: В саду *было* хорошо; В саду *будет* хорошо)

(11)를 보면 술부에서 명사(a), 형용사(b), 부사(c), 상태 범주(d)가 사용된다. 이 품사들은 서술성이 자동적으로 전제되는 동사와 달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술성이 불완전하다. 서술성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능적 수단으로서 제로 계사는 술어성분과 주어 간의 등식적 관계⁷⁾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문장에서 시제나 서법을 표현한다. 괄호 안의 비교 예문들을 통해 알 수 있듯, 제로 계사는 동사 *быть*의 직설법 현재형들을 대치한다. 즉, 삼분법적 시제 대립이라는 전통적 관점에서 $\emptyset_{\text{быть}}$ 는 *быть*의 비제로 형태로 표현되는 과거시제, 미래시제형과 함께 문법적 파라디그마를 구성한다. 제로 계사가 파라디그마의 성분이 된 배경에는 현재시제형 *есть*의 탈락 현상이 있다. 고대러시아어의 BE는 현재형에서는 **es-*를 기원으로 하는 어간을, 그 밖의 경우에는 **bhu-*를 기원으로 하는 어간(*бѣ-, бы-, буд-*)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접미 **es-* 어간 활용형은 도태되고⁸⁾ 아주 드물게 사용되는 3인칭 복수형 *суть*(12b)와 더불어 3인칭 단수형 *есть*만이 남아 있다. 이들은 고대러시아어의 활용형과 형태만 동일할 뿐 기능을 달리한다.

- (12) a. *се бо есть очи храму.* 그것은 집의 눈이기 때문이다.
b. *Киты не суть рыбы.* 고래는 어류가 아니다.
c. *Маша и есть умная.* 마샤는 정말 똑똑해.
d. *Кто же ты есть?* 너는 도대체 누구니?
e. *Дети есть дети.* 애들은 애들이야.

(12a)의 고대러시아어 *есть*는 순수한 계사이지만, (12c~e)의 현대러시아어 *есть*는 3인칭 단수라는 정보를 갖지 않으며 단언의 진리성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한다.⁹⁾ 이남경(2018: 359) 또한 제로계사와 달리 문체적 유효성을 지닌 *есть*가 표현되는 경우는 별도의 기능을 갖는 소사-계사(*частица-связка*)¹⁰⁾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형태론적으로 *быть*로부터 독립한 *есть*가 고대러시아어의 3인칭 단수형과

7) 계사 범주는 공통적으로 ‘주어 A와 술어성분 B가 같음(A=B)’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변 의미는 두 성분의 (개념적) 동일성, 어떤 그룹에의 소속 및 집합 관계, 또는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특징 및 자질과 같은 세부 의미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

8) **es-* 어간 활용형이 사라진 현상은 러시아어가 BE 유형에서 무(無) 유형으로 이진해 간 것의 결과이다. 고대 문어 러시아어는 교회슬라브어의 막강한 영향 하에 대부분의 인도유럽어처럼 BE 유형으로 발전한 반면, 핀-우그르어적 기저층의 영향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 구어에서는 일찍부터 무유형 지향성이 감지된다. 이러한 무유형 지향성이 궁극적으로 현대러시아어의 기반을 이루게 되었다(이인영 2004: 188).

9) 진리성이 단언될 필요성은 무표적 시제와 무표적 서법으로 제한된다. 과거 및 미래시제 구문과 명령법 및 가정법 구문은 시제나 서법 자체가 이미 일어난 사실인지 비사실인지 명확히 밝힌다. 그러나 무표적 시제, 무표적 서법의 구문은 화자의 관점에서 본 사실 내지는 주관적 판단의 표현이므로 경우에 따라 청자가 그것을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진리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필요로 한다(이인영 2004: 188).

10) 소사-계사는 동사-계사와 달리 시제, 서법 등과 같은 서술적 의미를 표현하지 못하고 서술구조의 필수적 구성성분이 아니다. 주어와 술어의 위치는 비교적 고정적인데, 소사-계사는 두 성분 사이에서 이들을 연결하는 동시에 그 경계를 명시화한다.

동일한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은, 해당 형태가 갖는 무표성에 기인한 것일 뿐 주어의 인칭이나 수와는 무관하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동일화구문(идентифицирующая конструкция) 및 자질서술구문(характеризующая конструкция) 외에도 *есть*는 존재구문에서 사용될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13) а. В комнате *есть* самовар.

б. В комнате самовар.

“어디에 무엇이 있다”라는 순수한 존재발화에는 근본적으로 담화적 전제가 없다. 따라서 (13a)와 같은 순수한 존재구문은 전제부 없이 단언부만으로 이루어지며 진리성이 항상 단언부에 포함되는 특수한 구조를 갖는다. 그 결과, 해당 구문은 강조 맥락의 일반적 진술처럼 *есть*를 취하게 된다. 반대로 (14b)와 같이 전제부가 존재하여 *есть*가 사용되지 않는 소위 ‘약한 존재구문’이 있다. 이 문장에서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전제되며, 초점은 존재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맞추어진다. 소유구문(У него (*есть*) квартира)에서 *есть*의 사용도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또한 *есть*의 이러한 존재 단언적 성격은 왜 처소구문(Самовар /¹¹⁾ в комнате)에서는 *есть*의 사용이 부자연스러운지를 설명한다. 처소문에서는 단언의 초점이 처소에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BE에 대한 다양한 가설 중에서도 가장 표준적인 이론으로 채택되는 다의미설에서는 BE를 크게 존재사 BE와 계사 BE로 구분하고, 이들의 하부 의미들을 또 세분한다.¹²⁾ 하지만 이인영(2004: 177-178)은 러시아어 BE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 존재나 계사란 BE가 구체적인 맥락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 여러 해석 중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¹³⁾ 이에 따라 본고에서도 제로의 BE를 계사적 해석을 갖는 것과 존재적 해석을 갖는 것으로 구분하고, 후자의 존재구문을 무동사 생략문의 범위에 포함한다. 계사구문과 존재구문은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하지만, 각 문장에서 표현되지 않는 성분이 술부에 자리한 품사의 불완전한 서술성을 보충하는가, 혹은 별도의 어휘의미를 포함하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특히 계사는 선행 문맥의 특정 요소를 함축하지 않으므로 $\emptyset_{\text{быть}}$ 가 포함된 구문은 불완전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1) 휴지의 표시이다. 다른 예) Красивая / она. 그녀는 아름답다.

12) 대표적인 예로 예브레이노프(Evreinov 1973: 46-54)는 러시아어 BE를 크게 계사 BE와 존재사 BE로 나누고, 전자를 자질부여, 분류, 정의, 단호한 주장, 동일화, 시간적 정렬이라는 하부 유형들로, 후자를 (존재론적) 존재, 배치, 소유, 처소의 하부 유형들로 분류한다.

13) 러시아어 처소구문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예) Саша дома? 사샤는 집에 있나요?

а. — Нет, его нет дома. 아니요, 그는 집에 없어요.

б. — Нет, он не дома. Он в школе. 아니요, 그는 집에 있지 않아요. 학교에 있어요.

질문에 대한 답은 부정의 범위에 따라 부정 존재구문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기도(a) 부정 계사구문과 동일한 형태(b)를 취하기도 한다. 처소는 어떤 특정 객체가 속해 있는 공간으로 간주될 수도 그 객체의 공간적 자질로 간주될 수도 있다. 곧, 처소구문은 객체와 공간 간의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존재구문과 유사하지만, 객체의 자질을 서술한다는 점에서는 계사구문으로 간주될 수 있다(이인영 2004: 171).

2.1.3. 주격문

주격문(номинативное предложение)은 동사가 없는 일성분 문장(односоставное предложение)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 명사 주격형이 대상이나 현상을 명명하며 그것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¹⁴⁾ 주격문은 외형상 주어와 생략된 동사 술어를 갖는 불완전문과 매우 유사하다.

(14) Осень; Тишина; Аптека; Ветер.

문장의 주성분인 주격의 명사는 존재성(бытийность)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주로 감각적으로 지각되거나 어느 기간에 걸쳐 있을 수 있는 물체, 현상, 행위 및 상태를 가리킨다. 해당 어휘들은 글로 쓰일 경우 대문자, 마침표와 같은 구두법 요소들의 사용을 통하여, 발화시에는 단언적 어조의 도움을 받아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완성된다. 따라서 문장의 서술성을 표현하기 위한 동사의 사용은 불필요하다. 주격문은 형태-통사적으로 부차성분 및 테테르미난트(детерминант)¹⁵⁾에 의해 확장될 수 있다(어건주 2005: 11-12). 아래의 예를 보자.

(15) a. *Интересная* встреча; Тишина ночи.

b. Встреча с родителями.

c. В аудитории шум; Скоро весна.

(14)가 주격 명사만으로 구성된 비확장 주격문인 반면, (15a~b)는 각각 한정어적, 보어적 역할을 하는 어휘들 — 형용사 *интересная*, 생격 명사 *ночи*, 전치사구 с родителями를 통해 확장된 주격문이다. 그리고 (15c)는 각각 장소와 시간을 의미하는 테테르미난트 в аудитории와 скоро가 부가된 주격문이다.

동사 술어가 누락되었지만 엄연히 제로 위치 형태로 존재하는 무동사문과 달리, 주격문에는 동사가 원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동사에 수반하는 성분 또한 없다. 다시 말해, 표층 구조에 동사가 나타나지 않는 생략문(불완전문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과 주격문을 구분하는 근거는 동사 술어의 복원 가능성이 아닌, 그 자체의 존재 유무에 있다. 주격문의 서술성에는 동사성(глагольность)이 부재하고, 주격문은 동사에 의해 표현될 수 있는 시제소의 영향 하에 있지 않는다. 그러나 문장은 현실에 대해 전달 내용이 갖는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통사적 시제 범주의 밖에서 표현될 수 없다. 따라서 동사가 없어도 주격문이 항상 현재 시제를 부여받는 것은 대상 및 현상의 현존을 전달하는 화자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화자는 대개 관찰자로서 직시 중심(deictic centre)을 ‘나-여기-지금’에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시제, 미래시제와 가정법, 명령법의 의미들은 불완전문을 신호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14) 페쉬콥스키(Пешковский 1956: 379-380)는 문장의 의미에 따라 주격문의 종류를 존재문(бытий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지시문(указатель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명명문(назывные предложения)으로 분류한다.

예) 존재문: Ненастный день; Вечерние сумерки.

지시문: Вот мельница; И вот, наконец, вчерашняя тяжелая весть.

명명문: Больные в Ялте; Случайиз практики.

15) 테테르미난트(혹은 한정소)는 문장의 부차성분과 달리 형식상 독립적으로 사용되며 어결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 (16) a. И как придавил сургуч - *по жилам огонь*, а распечатал - *мороз*, ей-богу, *мороз*.
 b. ... Пстой, пстой: *день только, день один*: И казней нет, и всем свобода ...
 c. Я их ужо! Десятого повешу, *разбойники!* (Пешковский 1956: 378)

위 예문들은 각각 과거시제(17a), 미래시제와 명령법(17b)의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주격문이 아닌 불완전문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페쉬콥스키는 술어적 성분으로서의 주격 명사가 선행 발화(의 단어)에 의해 야기된 표현과 명백히 관련되는 경우(16c)도 주격문이 아니라고 덧붙인다(Пешковский 1956: 378).

2.2. 동사 생략의 발생 동기

생략은 그 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동기가 다르다. 크게 통사적 생략에는 공지시(coreference)를 갖는 생략과 공지시를 갖지 않는 생략이 있다. 전자는 구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선행사가 있는 경우로, 문법 구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적 생략이다. 곧, 공백화와 불완전문(16)에서의 생략과 상통한다. 반대로 후자는 구문적으로 접근 가능한 선행사가 없는 생략으로 무동사 생략문에서 관찰된다. 지금까지 언어학에서 생략에 관한 논의는 전자의 유형 위주로, 그것이 발생하는 구조적 조건에 치중해 왔다.¹⁷⁾ 전자의 생략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좀 더 유효한데, 이는 언어의 사용이 근본적으로 경제성과 최적성의 원리를 준수한다고 본다. 즉, 언어는 경제성의 원리에 의거하여 정보전달을 위해 잉여적인 요소는 제거하고, 최적성의 원리에 의거하여 정보 전달에 있어 최대의 효과를 얻을 목적으로 최적의 수단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언어 사용의 기본 기능이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라고 한다면, 화자는 청자에게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 반복하여 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화용론적 작업 분담의 측면에서는 외형적 구조가 단순하여 노력을 덜 요하는 언어 표현이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비교적 장황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무표적인 표현이 전달하지 않았을(혹은 못했을) 유효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17) a. Он предложил мне пойти погулять. Я отказался $\emptyset$ пойти погулять.
 b. В одной руке он держал удочку, а в другой - $\emptyset$ держал кулан с рыбёшкой.

(17a)에는 *пойти погулять*가, (17b)에는 *держал*이 생략되어 있다. 생략의 요인에는 선행 문장에서 언급된 동일한 표현의 반복을 피하려는 경제성의 원리가 작용한다. (17)과 같은 불완전문에서의 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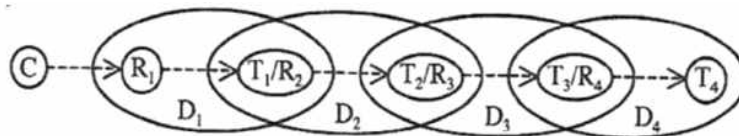
16) 크게는 상황적 불완전문도 맥락적 불완전문과 함께 첫 번째 유형의 생략에 속한다. 예) «Пролили кровь, расклинаемся». — «Что за зверь?» — «Сорока». — «За что вы её, бедняжку?» [А. Вампилов, Прощание в июне]

17) 생성 문법 초기의 Ross(1970)나 Hankamer(1971)는 생략을 일종의 표면구조적 삭제 현상으로 보고, 생략전 구조와 생략후 구조를 변형 규칙으로 연결하려 하였다. 또한 Lerner&Pinkal(1995)은 비교구문에서의 생략을 변형 결속으로 분석하고, Frazier&Clifton(2005)은 생략의 통사적 구조를 정보구조 제약으로 설명한다.

생략은 Valluduví&Engdahl(1996)이 제안한 정보부(informational component) 이론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화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청자가 얼마나 아는지 그리고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한 후, 청자가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식(바탕)에 그것과 관련된 정보(초점)를 덧붙인다. 즉, 화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새로운 정보를 지시하기 위해 문장의 통사구조를 정보의 가치에 따라 재구조화 한다. 여기에서 전달 내용의 어느 부분이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인가의 여부는 화자가 전후 맥락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반면, 무동사 생략문은 접근 가능한 선행사가 없는 두 번째 생략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유형의 문장에서 생략된 동사는 구체적인 맥락이나 발화 상황과 관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부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는 동사 생략 현상과 무동사 생략문은 그 결이 명백히 다르다. 본 논문은 무동사 생략문의 구조적 생략을 참조점 관계와 환유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언어학에서 환유(metonymy)란 임의의 한 단어를 그것과 관련되는 다른 단어를 통해 지시하는 표현 방법을 말한다. 환유를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닌 개념화의 문제라고 보는 인지언어학에서는 “동일한 영역(domain)에서 하나의 개념적 실체(매체, vehicle)가 또 다른 개념적 실체(목표, target)에 정신적 접근을 제공하는 인지적 과정”이라고 정의한다(Kövecses 2002/2010: 173).¹⁸⁾ 환유의 정의에는 공통적으로 지시성과 인접성이라는 두 특성이 포함된다. 전자는 매체를 통해서 목표가 지시됨을, 후자는 매체와 목표가 한 영역 안에 인접해 있음을 가리킨다. 래너커에 의하면 어떤 개체에 정신적으로 접근하고자 할 때는, 그것과 관련되는 동시에 그보다 현저성(salience)이 높은 개체를 참조점(reference point)으로 언급한다(Langacker 1993: 30). 그는 어떤 개념작용이 다른 개념작용으로 쉽게 이어지는 자연적 경로가 있다고 보며, 다음과 같은 참조점 관계의 연쇄를 제시한다.

<그림 1> 참조점 관계의 연쇄 (Langacker 2008: 652)



<그림 1>은 개념화자 C(conceptualizer)가 심리적 경로(-->)를 따라 참조점 R1을 통해 목표 T1로 접근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지배영역 D1은 R1의 영향권으로, 참조점을 통해 접근 가능한 개체들의 집합 즉, 잠재적 목표이다. T1은 다음 참조점 R2의 역할을 하고, C는 R2의 영향권인 D2를 거쳐 두 번째 목표 T2에 도달한다. 이러한 참조점 관계는 환유 표현에서 관찰된다.¹⁹⁾ 아래의 예를 보자.

(18) a. 영국은 2003년도 럭비 월드컵에서 호주를 이겼다.

b. 우리는 5.18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18) 정신적 접근은 인지언어학 논의에서의 ‘활성화(activation)’, ‘사상(mapping)’과 대동소이하다.

19) 참조점 관계는 환유 외에도 명사 합성어, 소유 표현, 대명사 대용어 등에서 드러난다. 예컨대 ‘basketball net’은 농구를 참조점으로 삼아 접근할 수 있는 즉, 어느 다른 곳이 아닌 농구장의 그물이다. 또한 전형적인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my sister’와 ‘the rat’s tail’은 각각 친족 관계, 전체-부분 관계 속에만 이해될 수 있다.

(18a)의 ‘영국’은 영국 럭비팀 선수를 가리키고, (18b)의 낱자 ‘오일팔’은 5.18 민주화 운동을 지시한다. 곧, 전자에서는 매체와 목표가 부분 관계에 있고, 후자에서는 매체와 목표가 시간적으로 가까이 존재한다. 두 예문 모두 본래의 표현에서 일정 부분(럭비팀 선수, 민주화 운동)이 생략된 것이다. 언어 기호에서 발생하는 생략 및 축약 현상에는 근본적으로 환유의 인지적 원리가 작동한다.

(19) a. столовая посуда из серебра → столовое серебро

b. студенты в аудитории слушают → аудитория слушает (лекцию)

(19a)의 столовое серебро는 столовая посуда из серебра ‘은으로 만들어진 식당용 식기’에서 명사 посуда ‘식기’와 전치사 из ‘~으로 만들어진’이 생략된 결과이다. 사용 영역과 재료를 가리키는 단어들은 참조점이 되어 그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제품을 암시한다. 주재료와 그것으로 만들어진 음식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пью ромашку ‘(나는) 카모마일을 마신다’에서 카모마일은 국화과의 풀을 일컫는 식물의 명칭이 아닌, настой ромашки ‘카모마일로 우려낸 차’를 의미한다. 그리고 (19b)는 공간이 그 안에 위치한 사람을 대신하는 환유의 유형이다. аудитория слушает은 직역하면 ‘강의실이 듣는다’이지만, 실제로 강의를 듣는 주체는 студенты в аудитории ‘강의실에 (앉아) 있는 대학생들’이다. 장소로 사람을 대신하는 유사한 예로는 весь зал аплодировал стоя ‘홀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다’, цех работает в 2 смены ‘작업장은 2교대로 일한다’를 들 수 있다. 위의 예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환유는 말의 축소와 압축에 기여하고, 환유의 발생에는 인간의 사고적(연상적), 언어적(조어적) 메커니즘이 긴밀히 작용한다. 환유는 다양한 현실 대상 간의 공간적, 사건적, 상황적, 통사적, 논리적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사람들의 의식에 반영되고 단어의 의미에 의해 고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환유는 자유로운 형식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무동사 생략문을 이해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20) a. Татьяна в лес; медведь за нею.

b. Я не об этом.

c. Откуда я знаю, за что он его.

(20)의 각 문장에 남아 있는 특정 전치사구 및 격 형태는 이동, 발화 및 사고, 물리적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생략되었음을 암시한다. 환유적 관점에서 이들은 참조점의 역할을 하며 그보다 인지적 현저성 낮은 행위들을 활성화한다. (20a)의 в лес ‘숲속으로’와 за нею ‘그녀를 뒤따라’는 이동 방향이자 착점(goal)에 해당한다. 이동 행위를 직접적으로 언어화한 표현이 문장에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청자는 주어진 전치사구를 참조점 삼아 ‘побежал(a)’와 같은 잠재적 목표에 접근이 가능하다. 착점 뿐만 아니라 기점(source)도 이동 개념의 참조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장 Мы в школу ‘우리는 학교에’와 Мы из школы ‘우리는 학교에서(로부터)’는 전치사로 인하여 그것이 전달하는 의미가 완전 다르지만, 모두 이동동사군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0b)에서의 전치사구 об этом ‘이에 관하여’는 주제나 연관성을 나타내므로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두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говорил(a)’, ‘думал(a)’, ‘мечтал(a)’

등의 발화·사고 행위의 개념들로 이어진다. (20c)에서는 행위 대상인 대격 목적어와 행위 목적에 해당하는 전치사구 за что의 존재가 강렬하거나 공격적인 어떠한 행위가 있었음을 명백히 신호한다.

유사한 방식으로 동사-술어의 논항 또한 문장에서 언어화되지 않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행위 대상이 실현되지 않는 타동사의 절대적 용법(абсолютное употребление переходных глаголов)²⁰⁾을 들 수 있다. 행위 대상의 의미를 포함하는 타동사가 참조점의 기능을 수행하여 문장에서 행위 대상이 누락되는 데, 청자는 동사를 통해 실현되지 않은 그 논항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21) a. Он готовит на кухне.

b. Ты умеешь водить?

(21)에서 표현되지 않은 행위 대상은 차례대로 음식(21a)과 자동차(21b)이다. 만일 문장성분의 누락을 의미상 긴밀히 연관된 어결합이 축약된 결과인 환유라 본다면, 생략된 해당 성분은 낮은 현저성을 가지며 문장에 남아 있는 다른 성분을 통해 유도된다. 이와 반대로 어느 문장성분이 통사적으로 상승된 경우는 해당 성분을 의미적, 정보적 수준에서 강조하려는 동기가 작용한 것으로 간주된다.²¹⁾

2.3. 무동사 생략문의 개념

러시아어 생략문 연구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생략문’이라는 용어는 그 사용이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별지어진다. 전자는 임의의 문장성분이 생략되는 불완전문의 다양한 유형을 가리키는 반면, 후자는 동사-술어가 의도적으로 부재하고 그것의 복원이 의미적 관점에서 불필요한 특수한 무동사문을 가리킨다. 후자의 개념은 생략을 발화의 뜻에 대한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맥으로부터 복원되지 않는 동사-술어의 형식적 누락이라고 본 레칸트(П.А. Лекант), 발기나(Н.С. Валгина), 바바이체바(В.В. Бабайцева), 스타로두보바(Т.А. Стародубова) 등의 관점에 부합한다. 발기나는 생략문이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유형의 문장이며, 그 구조적 특성은 맥락에서 언급되지 않는 곧,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있어 의미상 필수적이지 않은 술어의 부재라고 주장한다(Валгина 2002: 301). 레칸트는 생략문에 표현된 행위의 의미가 구체적인 어휘의 의미를 지닌 동사에서 표현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Лекант 1960: 17-18). 그리고 바바이체바에 의하면 술어는 제로이지만, 주어와 부차성분을 연결하는 사슬의 연결 고리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중요하다(Бабайцева&Максимов 1981: 137). 이에 무동사 생략문은 아래와 같은 일련의 주요 특성들에 의해 정리될 수 있다. 여기에서 살펴보는 예문들은 솔로호프(М. Шолохов)의 <고요한 돈강(Тихий Дон)>에서 추출한 것이다.²²⁾

20) 더 자세한 내용은 남혜현(2020: 116-120)을 참조.

21) 남혜현은 소유주가 소유물 명사구에 들어가 있는 내부적 소유주(internal possessor) 구문과 달리, 외부적(external) 소유주 구문에서는 소유주가 소유물을 식별하는 참조점으로서 독립적인 통사적 위치를 차지한다고 밝힌다(Nam 2013: 176). 비교 예) Сын Маши пошел в школу; У Маши сын пошел в школу.

22) 텍스트 자료 출처: <http://sholohov.lit-info.ru/sholohov/proza/tihij-don/index.htm>

① 문장의 구조에는 동사-술어가 부재한다.

이를 통사적 부재의 측면에서 ‘제로 동사’ 또는 ‘완전한 의미를 갖는 동사의 영형태’라고 표현할 수 있다. 문장의 완전한 의미를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생략된 동사를 복원할 필요는 없지만, 무동사 생략문에는 임의의 동사-술어가 배치될 자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무동사 생략문과 주격문이 구별된다.

(22) a. *Кисейные шлейфы пыли за каждой бричкой. Поезжанье.*

b. *Кисейные шлейфы пыли за каждой бричкой. Поезжанье.*

(22a)는 무동사 생략문의 예문인데, ‘모슬린 치맛자락과도 같은 먼지 기둥이 모든 4륜 포장마차 뒤에’로 해석된다. 마차 뒤로 먼지가 자욱했던 상황을 묘사하는 점에서 해당 문장의 비어 있는 술어 자리에는 *тянулись*, *стелились* ‘펼쳐졌다’, *поднимались* ‘일어났다’, *появились* ‘나타났다’, *вились* ‘감돌았다’, *тащились* ‘끌려갔다’ 등의 동사들이 올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먼지 기둥이 다양한 존재 양상을 띌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22b)는 주성분이 주격의 명사인 명명문으로, 신부를 향해 가는 ‘신랑의 혼례 행렬’이라는 사건의 존재를 나타낸다. 여기에서는 명사와 어조가 존재의 의미를 충분히 형성하기에 존재동사(*существовать*)가 불필요하다. 주격문의 다른 예로는 *Митьке показалось, что он сказал очень громко. Выждал. Тишина.* ‘정적’이 있다.

② 동사-술어가 부재하지만 문장은 일정한 행위 및 상태의 의미를 나타낸다.

계사가 아닌, 온전한 어휘의미를 지닌 동사가 제거된 것이므로 무동사 생략문은 제로 계사($\emptyset_{\text{быть}}$)를 포함한 문장과 구분된다. 위의 (22a)에서처럼 무동사 생략문의 서술어를 상정할 시에는 문장의 일반 의미를 표현하는 특정 어휘의미그룹의 동사들이 후보가 된다.

(23) a. *Ты не сердчай, Ксюша, на этих жеребцов. От скуки они.*

b. *Краснов-то? [...] Мелкий человек. Политик из него равен нулю. Агеева надо выбирать! Тот – совсем иное дело.*

(23a)는 스테판이 음담패설을 들은 자신의 아내 악시냐에게 화내지 말라고 회유하는 말이다. 그는 덧붙여 카자크 남자들이 따분해서 무례한 언행을 한 것이라 설명한다. 이를 고려할 때 주어진 무동사 생략문 *От скуки они*는 *Они так себя вели/поступали от скуки* 혹은 *Они так сказали/проронили от скуки*와 의미적으로 상통한다. 곧, 해당 문장에서 생략된 것은 발화동사군, 넓게는 행동동사군이다. (23b)의 *Тот – совсем иное дело*에는 계사 *быть*의 형태가 생략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장을 ‘제로 계사가 포함된 문장’이라고 칭한다. 제로 계사 구문은 일반적으로 주어 A와 술어성분 B가 같다는 ‘A=B’의 의미를 갖는데, 이 문장도 ‘그 사람’과 ‘전혀 다른 문제’를 동일시한다.

③ 문장의 의미는 맥락이나 상황을 통해 보충될 필요가 없고, 부재하는 구체적인 동사-술어 또한

그로부터 회복되지 않는다.

이것은 표면구조상 유사한 무동사 생략문과 불완전문을 구별하는 무동사 생략문의 변별적 자질이다.

- (24) a. У него дрожала челюсть, растерянно бегали глаза: «Мало ли чего не бывает между друзьями... Я ж тебя не вдарил... А ты – за грудки...»
b. – Жена звала его Емельяном Константиновичем, дети – папайкой, а приказчик магазина – Цапой.

(24b)의 선행절과 후행절은 [~는 그를 ~라고 불렀다]라는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후행절에서 표현되지 않은 동사-술어 ‘불렀다(звали, звал)’는 선행절에 언급된 동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누락된 것으로 쉽게 복원된다. 따라서 (24b)는 불완전문이다. 반면 무동사 생략문 (24a)의 경우 생략된 동사가 주어진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전치사구 за грудки ‘가슴(꽂)을’과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룰 수 있는 행위 동사들을 상정할 수 있다. 그중에는 взял, схватил ‘(움켜)잡았다’, потянул, притянул ‘끌어당겼다’, приподнял ‘들어올렸다’, тряс ‘흔들었다’ 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동사 생략문은 환유적 인접 원리에 따라 동사-술어가 생략된 결과로서 불완전문, 제로 계사를 포함한 구문, 주격문과 구별되며, 어느 ‘완전한’ 문장에서 도출되어진 것이 아닌, 표현적 통사론의 요소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3. 결론

러시아어에는 다양한 유형의 생략 구문이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무동사 생략문은 구어체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동사 생략문이 그와 형태·구조가 유사한 구문들(맥락적/상황적 불완전문, 제로 계사를 포함한 문장, 주격문)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구문적으로 접근 가능한 선행사가 없는 즉, 공지시를 갖지 않는 동사의 생략이 어떻게 가능한지 환유적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문장의 구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장성분이 서술어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술어의 의미 특성에 의해서 문장의 구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동사 생략문의 경우 동사-술어가 어휘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문장 구조의 완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사 단위는 온전한 문장이 그렇듯이 특정한 의미 내용을 전달한다. 본고는 문맥이나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문장에 실현된 성분들에 근거하여 전체 구문의 의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동사군을 비어 있는 술어 성분의 자리에 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참조점 관계라는 동사 생략의 요인과 더불어 무동사 생략문의 특성을 3가지로 규정함으로써 다른 유형의 무동사문과의 경계를 확실히 그었다는 점에 있다. 이를 토대 삼아 무동사 생략문의 성분 구조를 밝히고 그 동사-의미적 분석에 따라 문장을 분류해보거나, 코퍼스-기반 연구로 사용역별 무동사 생략문의 분포를 살펴보는 시도는 후속 연구과제로 이어 나가겠다.

참 고 문 헌

<국문>

- 남혜현(2020), “러시아어 반수동문의 범위와 분포에 대한 고찰”, 슬라브학보 35(3). 116-120.
이남경(2018), “계사(copular)의 진화: 러시아어 명사술어 구문의 분석적 경향 연구”, 러시아어문학연구
논집 60. 347-374.
이인영(2004), “BE와 무(無)에 대하여: 러시아어의 경우”, 러시아연구 14(1). 167-210.
여건주(2005), “러시아어 무동사문 연구 - 주격문을 중심으로”, 동유럽발칸학 12(2). 3-20.

<노문>

- Апресян, Ю.Д.(1986), “Типы синтаксического отсутствия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Проблемы семантики предложения: выраженный и невыраженный смысл. Тезисы краев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111-113. Красноярск: Краснояр. гос. пед. ин-т.
Бабайцева, В.В. и Максимов, Л.Ю.(1987), “Синтаксис. Пунктуация”, Современный русский язык. Ч. 3. 2-е изд., пере- раб. М.: Просвещение.
Бабайцева, В.В. и Максимов, Л.Ю.(1981), Синтаксис. Пунктуация. Современный русский язык. Ч. 3. М.: Просвещение.
Булыгина, Т.В. и Шмелев, А.Д.(1990), “Синтаксические нули и их референциальные свойства”, Типология и грамматика (отв. ред. В.С. Храковский). 109-117. М.
Виноградов, В.В.(1972), Русский язык. Грамматическое учение о слове. М.
Земская, Е.А.(1973), Русская разговорная речь. М.
Камагина И.В.(2020), “О структуре простого эллиптическ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Litera № 11, 97-105.
Каменская, О.Г. и Логинова, Г.С.(1997), “К вопросу об эллиптических предложениях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Атриум № 2, 34-39.
Лекант, П.А.(1974), Синтаксис прост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М.
Летучий, А.Б.(2018), “Нулевая связка”, Части речи. Материалы для проекта корпусного описания русской грамматики (<http://rusgram.ru>). На правах рукописи. М.
Мельчук, И.А.(1974), “О синтаксическом нуле”, Типология пассивных конструкций. Диатезы и залоги. (под ред. А.А. Холодовича). 343-361. Ленинград.
Мишина, К.И.(1964) “Безглаголь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с обстоятельственными по значению словами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Современный русский язык. М.
Пешковский, А.М.(1956), Русский синтаксис в научном освещении, М.
Попова, И.А.(1953), Непол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М.

- Nam, H.H.(2013), “Конструкции с внешним посессором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как диатетическое явление и их семантико-дискурсивные функции”, *Russian Linguistics* 37(2), 175-191.
- Сай, С.С.(2002), “Эллиптические конструкции: структура 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 (на материал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Дипломная работа*. СПб.: СПбГУ.
- Сковородников, А.П.(1967), “Безглагольные эллиптические предложения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Автореф. дис.... канд. филолог. наук*. Красноярск: Краснояр. гос. пед. ин-т.
- Стародубова, Т.А.(2009), “Эллиптические слож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Автореф. дис.... канд. филолог. наук*. М.
- Тестелец, Я.Г.(2001), *Введение в общий синтаксис*. М.: РГГУ.
- Ширяев, Е.Н.(1973), “Лексико-семантически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высказываний с нулевыми глаголами-предикатами (на материале разговорной речи)”, *Теория и практика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го описания разговорной речи*. Сб. 4. 152-161. Горький.
- Шульгина, В.И.(1990), “Структурно-семантические типы эллиптических конструкций в русской разговорной речи”, *Автореф. дис.... канд. филолог. наук*. Киев.
- Щаднева, В.(2000), “Дискурсивно обусловленные невербализованные компоненты высказывания”, *Dissertationes philologicae slavicae universitatis tartuensis* 8. Тарту: Tartu Ülikooli.
- Грамматик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2 т. / под ред. В.В. Виноградова, Е.С. Истриной, С.Г. Бархударова. — Т. I. — М., 1953; Т. II. — М., 1954; 2-е изд. — М., 1960.*
-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 под ред. В.Н. Ярцевой; Ин-т языкознания АН СССР. — М.: Сов. энцикл., 1990.*
- Современный русский язык: Учебник / под ред. Н.С. Валгиной. — 6-е изд., перераб. и доп. М.: Логос, 2002.*

<영문>

- Frazier, L. & Clifton, C.(2005), “The syntax-discourse divide: Processing ellipsis”, *Syntax* 8(2), 121-174.
- Greenberg, J.H.(1960), *A Quantitative Approach to the Morphological Typology of Language*. *International Journal of American Linguistics* 26(3), 178-194.
- Hankamer, J.(1971), “Constraints on deletion in syntax”, *Ph.D. thesis*, Yale University.
- Kovecses, Z.(2002/2010),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W.(2008), *Cognitive Grammar: A Basic Introduc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Reference-Point Constructions”, *Cognitive Linguistics* 4(1), 4-5.

- Lerner, Jean-Yves, & Pinkal, M.(1995), “Comparative ellipsis and variable binding”, The Proceedings of SALT 5, 222–236. Ithaca: Cornell Linguistics Club Publication.
- McShane, M.J.(2005), A Theory of Ellipsi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oss, J.R.(1970), “Gapping and the order of constituents”, M. Bierwisch & K.E. Heidolph (eds.), Progress in linguistics: A collection of papers. 249–259. The Hague: de Gruyter.
- Vallduví, E. & Engdahl, E.(1996), “The Linguistic Realization of Information Packaging”, Linguistics 3, 459-519.

<기타>

- Evreinov, Irina(1973), “Die Semantik einer Nullform: Versuch einer neuen Definition der Kopula im Russischen”, Linguistics 98, 41-57.
- Weiss, D.(1993), “Die Faszination der Leere: die moderne russische Umgangssprache und ihre Liebe zur Null”, Zeitschrift Fur Slavische Philologie 53(1), 48–82.
- Wiemer, B.(1996), “Analityczne passivum w języku rosyjskim i polskim”, V. Koseska-Toszewa & D. Rytel-Kuc (eds), Semantyka a konfrontacja językowa. 167-178. Warszawa: SOW.

러시아어 주격에 관한 고찰: 무표격으로서의 주격에 대한 재고

Исследование именительного падежа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переосмысление именительного падежа как немаркированного падежа

조 서 진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석사 2학기)

1. 서론

러시아 아카데미 문법서(АГ 80)에 따르면, 격(падеж)은 하나의 문법범주를 형성하는 명사류의 어형변화범주(словоизменительная категория)로 정의된다. 이어지는 정의로부터 러시아 언어학이 격에 대해 보이는 형태·통사·의미론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형태론적 차원에서, 격은 대립되는 6항 체계로 표현되며, 서로 다른 격 형태(падежная форма)로 나타난다. 통사론적 차원에서, 격은 어결합(словосочетание) 또는 문장(предложение)의 일부로 명사와 다른 단어, 특히 주로 어형태(словоформа)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의미론적 차원에서, 여섯 개의 각 격 항은 범주적인 형태론적 의미 집합의 보유자로서 기능한다. 이를 요약하자면, 러시아 언어학에서 격은 “대응되는 모든 형태론적 범주가 구성하는 일련의 체계(система)로, 격 의미의 공통적 체계에 의해 결합한 다양한 격 형태”를 의미한다(АГ 80 I: 473-474).

러시아 언어학에서 격이 차지하는 위상만큼, 러시아어 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야콥슨(Якобсон 1936/1985; Jakobson 1958/1971)으로 대표되는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격 체계 기술을 위해 유표이론(markedness theory)의 관점에서 변별적 격 자질을 도입한다. 필모어(Fillmore 1968)를 시작으로 출현한 격 문법(case grammar)에서는 심층격(deep case)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행위주(Agent), 피영향주(Patient) 등의 심층격 목록이 제시되고, 이것이 통사 규칙을 거쳐 표층적으로 실현된 것이 표층격(surface case)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진다. 일반언어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필모어의 연구는, 러시아어를 포함한 다른 많은 언어의 격 설명에 적용되었다. 베쥐비츠키(Wierzbicka 1980)는 의미적 메타언어를 도입하여 격을 기초적 단위로 분석하여 기술하는 의미원소(semantic primitive) 접근법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얀다(Janda 1993)는 격에 인지 문법의 영역을 결합하여, 격 의미를 기술하기 위해 인지 모델(cognitive model)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러시아어의 6격 중 상대적으로 의미가 복잡한 것은 여격, 조격, 생격이다. 황서경(2004)에서는 조격, 생격, 여격의 의미 목록을 요약하고 이를 비교하였는데, 조격은 15개의 하위 의미를, 생격은 7개의 하위 의미를, 마지막으로 여격은 7개의 하위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제시된다.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갖는 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단순한 의미를 갖는 주격, 대격, 전치격에 대해서는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지지는 않았다. 본고의 논의 대상이 되는 주격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그 개수가 특히나 현저히 적은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관점에서의 설명이라도 주격을 가장 기본적인, 격 파라디그마에서의 근원격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주격의 지위에 대한 물음, 즉 “주격을 가장 기본적인 격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던지면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주격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관점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특히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주격에 대한 기술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3장에서는 새로운 격 자질의 도입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주격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시도한다.

2. 주격에 대한 전통적 관점

주격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관점은 의미적 관점에서의 명명설과 주어설, 통사적 관점에서의 AGR 지배설, 구조주의적 관점에서의 무(표)격설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각 가설에 대해 이인영(2002: 210-217)에 상세한 기술이 이루어져 있다. 본고의 논의를 위해 필요한 가설은 명명설, 주어설 및 무(표)격설이므로, 이 세 가지 가설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도록 한다.

2.1. 명명설

주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선택되는 번역 대응어인 ‘nominative case’나 ‘именительный падеж’는 명명설에 그 기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조어적 관점에서 영어 번역어는 동사 ‘nominate(지명하다)’를, 러시아어 번역어는 명사 ‘имя(이름)’를 파생모어로 갖는 것으로 각각 분석될 수 있다. 명명설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물의 명칭은 그 사물의 천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특수한 재주를 가진 이가 그 사물의 본성에 맞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즉, 명명설이란 주격이 명명, 즉 사물에 이름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바라보는 관점이다. 러시아어에서 예를 들자면, 이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부르기 위해 “Иван!”이라고 부르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이는 러시아어에 있던 호격이 사라지고, 호격의 기능을 주격이 대체했기 때문에 부름말(обращение)로 주격이 기능하게 된 것이다.

이인영(2002: 211-212)에 따르면, 이러한 명명설은 몇 가지의 문제점을 갖는다. 우선 명명설이 보이는 두 가지의 특징은 첫째로 표층에 실현된 형태로 격을 정의한다는 것과, 둘째로 주격이 문장의 다른 성분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이른바 탈관계적인 격으로 정의된다는 점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 특징의 경우, 주격을 표지하기 위해 특정한 형태가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가질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경우, 주격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사 ‘이/가’를 요구하는데, 이 경우에는 명명을 할 때에 발생하는 형태와 주격으로 실현된 표층적 형태가 같지 않다. 두 번째 특징의 경우, 주격이 수행할 수 있는 관계적 기능을 간과하고 있다. 주격을 갖는 하나의 단어만을 발화하더라도 그것이 일성분 문장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때의 문장은 필연적으로 관계적 기능을 갖는다.

명명설은 결국 언어의 다양한 기능 중 메타언어적 기능에 집중하여 주격을 기술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의는 불충분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격을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간주하고, 이 형태로부터 어미 곡용(флексия)이 나타난다. 그러나, 불활성체(неодушевлённое) 명사에서는 주격과 대격이 형태를 공유하는 격 융합(싱크리티즘, синкретизм)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명명설은 주격에 대한 정의로는 불충분하다.

2.2. 주어설

주어설은 주격을 “주어(субъект) 및 주어에 대한 서술이나 한정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격”으로 정의하는 가설이다. 주격에 대해 가장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가 주어설로, 주격이라는 용어 역시 주어설로부터 비롯된 용어이다. 주격이 ‘주어격’의 줄임말로 처음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쿠릴로비치(Курилович) 역시 주어설에 입각하여 격을 분류하였다. 쿠릴로비치는 인도유럽어의 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먼저 부름(обращение)의 차원과 제시(представление)의 차원을 설정하여 호격(вокатив)과 기타 격을 이분한다. 제시의 차원으로 분류된 격은 다시 통사적 기능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동사와 결합하는 ‘동사결합격’, 명사와 결합하는 ‘명사결합격’, 마지막으로 주어를 표시하는 ‘주어격’으로 구분된다. 쿠릴로비치에 따르면 명사류가 문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크게 네 가지¹⁾로 한정할 수 있는데, 그 중 ‘주어’의 기능은 주격의 일차적 기능, ‘술어’의 기능은 주격의 이차적 기능이 된다(Курилович 1949: 200).

인도유럽어에 대해서는 주어설이 주격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방법이 될 수 있다. 주어설과 관련하여, 통사론에서 주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규칙을 떠올릴 수 있다(Carnie 2012: 238).

(1) 확대투사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이하 EPP)

모든 절은 주어를 가져야 하며(즉, 시제구(TP)의 지정어는 한정사구(DP)나 보문사구(CP)로 채워져야 하며), 어휘정보는 모든 층위에 표현된다.

(2) 허사삽입규칙(Expletive Insertion Rule)

시제구(TP)의 지정어 위치에 허사대명사(expletive pronoun)를 삽입하라.

모든 절이 주어를 가져야 한다는 EPP에 따라, 인도유럽어에서는 만약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면 it과 같은 허사대명사를 삽입하여 반드시 주어의 자리를 채워 주어야 한다. 모든 절에서 주어의 표층적 실현은 주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어설은 합리적인 가설이 된다. 그러나 슬라브어에서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 러시아어에서는 무인칭구문(безличное предложение)이 꽤나 빈번하게 실현된다. 무인칭구문이란 “문장구조상 외항인 주격 주어의 부재로 인해 주어와 동사 간의 성·수·격의 문법적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문장”으로 정의된다(Пешковский 2001; 김형섭 2010). 보충어의 존재 여부 및 실현된 격의 종류에 따라 절대(역경) 무인칭 구문, 여격 무인칭 구문, 대격 무인칭 구문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공통적으로 주격 주어로 실현되는 행위주 표현이 결여되어 있다²⁾.

1) 주어, 다른 명사 또는 술어부에 대한 한정어, 술어, 동사 혹은 명사류에 대한 간접적 한정어.

2) 김형섭(2010)에서는 인도유럽어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어 역시 형식 가주어가 심층구조에 존재하지만 가

(3) Смеркается. ⇔ It is getting dark.

“어두워지고 있어요.”

(김형섭 2010:87에서 인용)

예문 (3)에서, 러시아어의 예문은 주격 주어 없이 동사만 실현된 일성분문장(односоставное предложени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성분문장 역시도 충분히 문장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데, 스코블리코바(Скобликова 2012: 96)에 따르면 일성분문장 역시 문장의 독립적인 구조-의미적 단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동일한 의미의 영어 예문에서는 “be getting dark”만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없어, 허사대명사인 it을 삽입하고 있다. 따라서 주어절은 인도유럽어가 아닌 슬라브어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력을 가지는 가설이라고 볼 수 없다.

2.3. 무(표)격설

본고의 논지 전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설은 무격설이다. 2.3장에서는 무격설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자세히 점검하고, 3장에서는 무격설에서의 논의를 기반으로 새로운 자질을 추가하여 주격을 유표적 격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무격설은 야콥슨(Якобсон)의 이론에 기반하는데, 야콥슨은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변별적 자질(distinctive features)의 도입을 통한 유표이론을 통해 격의 의미를 기술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어휘 의미를 기술하기 위해 의미론의 영역에서 사용하던 자질이 형태론의 영역까지 확장되어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의의가 있다. 야콥슨이 도입한 자질은 총 세 가지인데, 각각 [방향성(направленность)], [경계성(объёмность)], [주변성(периферийность)]이다³⁾. 러시아어의 주격은 [-방향성], [-경계성], [-주변성]으로 설명된다. 즉, 주격은 세 자질 모두에 대해 무표적인 격이다.

야콥슨식의 기술 방법에서 ‘유표적(маркированный)’, ‘무표적(немаркированны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동일 범주 내의 두 하위범주(подкласс) A, B가 존재한다. 이때, 범주 A와 B는 각각 고유하고 실제적인 정도의 의미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로 대립된다고 가정하자.
- 만약 범주 A가 자질 α 에 대해 신호한다면(сигнализация), 범주 B는 자질 α 에 대해 신호하지 않는다.
- “신호하지 않는다.”의 의미는 매우 상위적인 개념이다. 즉, 자질 α 의 부정이나 부재를 신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질 α 에 대해 “어떠한 사실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정 조건(visibility condition)을 충족시키지 못해 음성적 실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본다.

3) 야콥슨의 전기 문헌(Jakobson 1936/1985)에서는 자질 [형성성(оформленность)]이 자질 목록에 포함되지만, 후기 문헌(Jakobson 1958/1971)에서는 자질 [형성성]이 제외된다. 자질 [형성성]을 도입하면 생격과 전치격을 각각 일차격과 이차격으로 나누어 러시아어에 총 여덟 개의 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대 러시아언어학에 받아들여지는 러시아어의 격 개수는 여섯 개이므로, 이차격을 기술하기 위한 자질인 [형성성]은 제외하고 논의한다.

- 즉, 범주 Б는 자질 α 를 보유할 수도, 보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이 때 범주 А를 ‘유표 범주’, 범주 Б를 ‘무표 범주’라고 부른다. 표기상으로 유표 범주는 [+ α], 무표 범주는 [- α]로 나타나지만, 개념적으로 무표 범주는 [non- α], 즉 [$\emptyset \alpha$]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먼저, 주격은 대격과 달리 객체(объект)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존재 또는 부재에 대해 어떠한 사실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질 [방향성]에 대해 무표적이다.

(4) Время^{ИМЕН} — деньги^{ИМЕН}.

시간은 돈이다.

(5) Сын^{ИМЕН} наказан отцом^{ТВОР}.

아들이 아버지에게 벌을 받았다.

(Якобсон 1936/1985: 140에서 인용)

예문 (4)는 주어와 술어 위치에 모두 주격이 사용되었다. 이 때의 주격은 술어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행위의 존·부재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실도 언급하지 않는다. 예문 (5)는 주어가 행위주가 아닌 피행위주를 나타내는데, 이 때의 주격 사용은 주격으로 표지된 주어의 행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차원에서 주격을 ‘제로격(нулевой падеж)’이라고도 부르며, 무격설은 ‘제로격설’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다음으로, 주격은 생격과 달리 발화에 의해 지정된 대상의 참여적 경계(предел)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질 [경계성]에 대해 무표적이다. 생격의 다양한 용법 중 주체(субъект)의 의미를 나타내는 주체 생격과 주격의 쓰임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6) Людей^{РОД} собралось.

“(그) 사람들이 모였다.”

(7) Люди^{ИМЕН} собрались.

“사람들이 모였다.”

(Якобсон 1936/1985: 147에서 인용)

생격이 사용된 예문 (6)의 경우 모인 사람들에 대해 ‘그 사람들’이라는 집합을 형성해주는 효과가 나타난다.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중 모인 사람들로 한정해주는 의미로 부분 생격이 사용되었다. 이와 달리 주격이 사용된 예문 (7)의 경우에는 단순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였음을 알리는 의미만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주격은 조격과 달리 명사류가 전체적인 발화 구성에 있어서 부차적·주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질 [주변성]에 대해 무표적이다. 주격과 조격은 자질론적 관점에서 비교의 가치가 충분한데, 주격은 [-방향성], [-경계성], [-주변성]으로 기술되며 조격은 [-방향성], [-경계성], [+주변성]으로 기술된다. 즉, 두 격은 자질 [주변성]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것인데, 따라서 만약 조격

에서 [주변성]의 자질이 제거된다면, 조격의 쓰임이 예상되는 문맥에서 주격이 쓰이는 경우를 빈번하게 살펴볼 수 있다.

(8) Течение^{ИМЕН} отнесло лодку.

“물살이 배를 움직였다.”

(9) Течением^{ТВОР} отнесло лодку.

“물살로 인해 배를 움직였다.”

(Якобсон 1936/1985: 153에서 인용)

“물살로 인해 배가 움직였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예문 (8)과 (9)는 모두 사용 가능하다. 주격을 사용하는 경우와 조격을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격으로 표지된 명사가 발화 내용에서 중심적인지, 주변적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예문 (8)과 같이 주격이 사용된 경우에는, 명사 течение가 해당 문장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예문 (9)와 같이 조격이 사용된 경우에는, 명사 течением가 해당 문장에서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예문 (9)는 역경 무인칭 구문(adversity impersonal sentence)의 예시가 되는데, 이 때 주어의 자리를 대신하는 조격 명사는 발화 내용상 상대적으로 주변성을 갖는다. 즉, 예문 (8)에서는 무엇이 배를 움직였는지가 중요한 내용이지만, 예문 (9)에서는 배가 움직였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무엇이 배를 움직였는지는 전달이 되지 않아도 무관한 부차적인 내용이 된다.

이러한 야콥슨식의 기술 방식을 따르면, 주격은 모든 자질에 대해 무표적이므로 러시아어의 여섯 격 중 ‘최대무표격’이 되며, 전치격⁴⁾과 여격이 가장 유표적인 격이 된다⁵⁾.

야콥슨의 이론에 기반한 무(표)격설은 세 개의 자질만으로 모든 격에 대한 기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간결함을 갖는 가설이지만, 충분한 예견력과 설명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양하고 직접적인 비판을 마주하게 된다. 야콥슨의 방법론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빌리(Bilý)와 하스펠마트(Haspelmath)를 언급할 수 있다.

빌리(Bilý 1989)는 야콥슨이 격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론이 매우 자의적(arbitrary)임을 지적했다. 빌리는 모든 격 언어(case language)는 다른 모든 격의 일반 의미를 결정하는 출발점으로서 기능하는 ‘절대적 무표격(absolutely unmarked case)’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는데, 야콥슨의 설명 방식에 빌리의 견해를 적용한다면, 러시아어에서 절대적 무표격은 주격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격 기술의 문제는 설명력을 위해 자질 목록의 개수를 임의로 조절하는 것은 물론, 직관적이지 못한 설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4) 야콥슨 문헌에서의 기술 방식을 따르면, 용어 ‘전치격’보다는 ‘처소격’이 비교적 올바른 번역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현대 러시아어의 격 체계를 다루고 있으므로, 현대 러시아어언어학에서 채택하는 용어 ‘전치격’을 사용한다.

5) 자질 [형성성]을 고려한다면, 이차전치격(L2)이 [-방향성], [+경계성], [+주변성], [+형성성]으로 기술되어 ‘최대유표적’인 격이 된다. 그러나 후기 문헌에서 자질 [형성성]은 제외되어 기술되므로, 여격이 [+방향성], [-경계성], [+주변성], 전치격이 [-방향성], [+경계성], [+주변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 격이 두 개의 자질에 대해 유표적이므로, 둘 중 어떠한 것이 더욱 유표적이라고 설명할 수 없어 본고에서는 전치격과 여격을 가장 유표적인 격으로 기술한다. 최대유표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자질목록 간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지 않아 전치격과 여격을 동등한 정도로 유표적인 격으로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점이다. 특히 구조주의적 유무대립(привативная оппозиция)으로 격 의미를 설명할 때, 어떤 자질에 대해 무표적이라는 것이 그 자질에 대해 비어 있는(empty) 것으로 오해되기가 쉬운데, 이는 야콥슨의 독특한 유·무표성 정의로부터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자질론적 접근 방식을 통해 격을 설명했을 때, 논리 함의 검증(logical entailment test)을 통해 자질에 대한 유무대립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격에 대해서는 이러한 검증이 적용될 수 없다.

- (10) a. Книга прочитана Иваном^{ТВОР}.
b. *Книга прочитана Иван^{ИМЕН}.
(11) a. Иван любит Наташу^{ВИН}.
b. *Иван любит Наташа^{ИМЕН}.
(12) a. Иван выпил чашку чаю^{РОД}.
b. *Иван выпил чашку чай^{ИМЕН}.

(Bilý 1989: 28에서 인용)

논리 함의 검증을 적용했을 때, (10)~(12)의 예문 (a)가 예문 (b)를 논리적으로 함의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없다. (10)의 경우 조격은 [+주변성], 주격은 [-주변성]을 갖고, (11)의 경우 대격은 [+방향성], 주격은 [-방향성], (12)의 경우 생격은 [+경계성], 주격은 [-경계성]을 갖는다는 유무대립의 차원에서 논리 함의 검증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적용할 수 없을뿐더러, 예문 (b)는 모두 비문에 해당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빌리는 러시아어의 격에 대해 구조주의적 유무대립의 방법을 적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하스펠마트는 유표성(markedness)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하스펠마트는 그의 저술(Haspelmath 2006)에서 용어 ‘markedness’가 사용되는 열두 가지의 의미를 분석하고, 각 의미로 사용되는 ‘markedness’를 각각 다른 용어로 대체할 것을 주장한다. 격 기술의 차원에서 사용되는 관점에서의 markedness는 “형태론적 어려움 또는 부자연스러움으로서의 유표성(Markedness as morphological difficulty/unnaturalness)”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움(naturalness)의 보편적인 척도는 구조적 도상성(constructional iconicity), 통일성(uniformity) 및 투명성(transparency)으로 나타나므로, 이때의 유표성은 이와 같은 용어로 바꾸어 표현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야콥슨의 격 기술 방법을 하스펠마트는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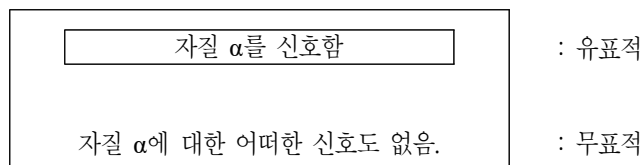
하스펠마트의 견해는 용어 ‘유표성’의 중의성으로 인해 해당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으로 요약된다. 실제로 학자마다 유표성을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동일한 학자의 다른 저술에서 유표성이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아래는 야콥슨의 저술에서 사용된 유표/무표의 의미 변화를 정리한 표이다(유승만 2006: 278). 1930년에 사용된 ‘무표적’의 의미는 이후 저술에서의 ‘무표적’의 의미와 다소 다른데, 후기의 용어가 조금 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

	유표적(marked)	무표적(unmarked)
1930년	α	α 가 아님
1932년	α 를 신호함	α 를 신호하지 않음 α 가 아님을 신호함
1939년	α	제로 용어(zero term)
1957년	α 를 진술함	α 를 진술하지 않음 α 가 아님을 진술함

【표 1】 야콥슨의 저술에서 사용된 유표/무표의 의미

하스펠마트의 견해처럼, 용어의 중의성 문제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유표 이론은 여전하게도 분석하려는 체계 내의 각 항이 맺고 있는 논리적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다. 연구자가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유표성/무표성을 무엇으로 정의하는지를 밝히고 이를 일관된 의미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유표이론은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야콥슨이 정의한 ‘유표적’이라는 개념은 결국 어떤 자질을 신호할 때, ‘무표적’이라는 개념은 어떤 자질에 대해서 아무런 사실도 언급하지 않을 때 사용된다. 해석하자면, 결국 어떤 자질에 대해 무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자질에 대해 유표적이라는 사실을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은 그림이 도출된다.



【그림 1】 ‘유표적/무표적’ 개념에 대한 도식적 정의

위와 같은 조작적 정의는 논리적인 모순을 낳을 수 있다. 무표가 유표를 포함한다는 것은, 해당 자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표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3장의 논의에 앞서, 논리적 모순을 피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유표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아래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야콥슨의 정의와는 다르게 완전히 이분적인 도식이 도출된다.

- 동일한 체계를 구성하는 n 개의 항에 대하여 각각 자질 α 를 고려했을 때, 만일 해당 항이 자질 α 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유한다면 ‘유표적’, 보유하지 않는다면 ‘무표적’으로 정의한다.

자질 α 를 보유함	자질 α 를 보유하지 않음
유표적	무표적

【그림 2】 ‘유표적/무표적’ 개념에 대한 새로운 도식적 정의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취하고자 하는 접근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니들의 연구(Neidle 2012)를 언급할 수 있다. 니들(Neidle 2012: 2-6)은 야콥슨의 자질에 변화를 주어, 세 개의 자질이 아닌 네 개의 자질로 격 의미를 기술한다. 니들이 설정한 자질은 [위치성(locational)], [양화성(quantifying)], [방향성(directional)], [부분성(partial)]으로, 니들의 자질 [위치성]과 [방향성]은 야콥슨의 자질 [방향성]을 분리하여 얻은 자질이며, 니들의 자질 [양화성]은 야콥슨의 자질 [경계성]과 동일한 것이다. 야콥슨의 자질 [주변성]은 삭제되었으며, 이차격을 구분하기 위해 야콥슨의 자질 [형성성] 대신 [부분성]이라는 자질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니들의 수정된 자질에 따르면라도 주격은 최대무표격이 된다. 즉, 주격은 [-위치성], [-양화성], [-방향성], [-부분성]의 자질로 기술된다. 가장 유표적인 격은 Jakobson(1958/1971)의 견해와 동일하게 일차생격 및 이차생격이 된다. 니들의 연구는 야콥슨의 자질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수정하였다는 의의가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야콥슨의 연구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니들의 방법론을 차용하지만, 자질에 실질적인 수정을 가함으로써 주격을 유표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3. 주격에 대한 재검토

2장에서는 주격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관점인 명명설과 주어설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2.3장에서는 야콥슨을 위시한 무격설 및 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살펴보았고, 추가로 ‘유표적’이라는 용어에 대해 야콥슨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유사한 방법론을 취한 연구로 니들의 저술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자질의 도입을 통해 주격을 유표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한다.

3.1. 정보구조론적 자질의 도입: 자질 [테마성]

정보구조론의 영역에서 ‘테마’와 ‘레마’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된다. 이는 실제 정보적 분절(актуальное членение предложения)에 따라 발화를 나누었을 때 분절되는 각 요소에 해당하는데, 테마(тема)는 문장의 출발점이 되며 이미 주어진 정보인 ‘구정보(данное)’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레마(рема)는 발화에서 테마를 제외한 부분으로 테마에 대한 실제적 정보를 표현하며 새로운 정보인 ‘신정보(новое)’에 해당한다(Скобликова 2012: 13). 테마는 화제(topic)나 초점(focus)이라는 용어로, 레마는 평언(comment)이라는 용어로 다르게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테마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층위에서 논할 수 있는데, 한 층위는 문장, 또 다른 층위는 담화(высказывание) 또는 텍스트(текст)라고 할 수 있다. 발화된 문장이 모여 담화 또는 텍스트를 구성하기 때 문에 담화가 텍스트보다 큰 개념이 되는데, 문장 테마는 텍스트와 무관하게 해당 문장만을 살펴봤을 때 이루어지는 실제 정보적 분절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면, 담화 테마 또는 텍스트 테마는 해당 담화 또는 텍스트가 무엇을 주제로 이야기하는지에 따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담화 테마는 문장 테 마와 다를 수 있다. 본고에는 테마를 문장 테마에 국한하여 논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질 [테마성] 은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므로, [대하여성(또는 대합성, aboutness)]으로 대치 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주격의 사용은 문장에서 테마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13) a. Латвия^{ИМЕН} соседствует с Эстонией.

“라트비아는 에스토니아 옆에 있다.”

b. Эстония^{ИМЕН} соседствует с Латвией.

“에스토니아는 라트비아 옆에 있다.”

(Якобсон 1936/1985: 143에서 인용)

예문 (13a)와 (13b)는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가 인접해 있다”라는 동일한 내용을 전달한다. 그러나 문 장 (13a)는 라트비아에 대해, 문장 (13b)는 에스토니아에 대해 설명한다. 즉, 문장의 첫 부분에서 주격 명 사류(имя)로 나타난 부분이 문장에서 테마로 기능하는 것이다. 정보구조론적 관점에서 자질 [테마성(тема -тичность)]을 도입했을 때, 주격은 이에 대해 유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격의 의미를 기술할 때 [+테마성]의 자질로 격 의미가 기술된다.

또 다른 예시로 테마주격의 사용을 언급할 수 있다. 테마주격(именительный темы)은 테마주격 구문 (конструкция с именительным темы)을 구성하는 구성소로 간주되는데, 파노프(Панов 1968: 302) 에 따르면 테마주격구문은 “휴지(пауза)를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전반부는 테마에 해당되어 구문 적으로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주격의 상응지시체를 동반하는 문장”으로 정의된다. 김명자(1998)에서 는 테마주격구문 <테마주격/ 상응지시체 포함 주문//>⁶⁾의 형태를 갖는 문장으로 한정하여 논의하며, 본고 에서 역시 이로 한정하여 예문을 언급한다.

(14) a. Болезни^{ИМЕН}. Это была совсем особая жизнь.

“질병. 그것은 완전히 특이한 삶이었다.”

b. Болезни были совсем особые жизни.

“질병은 완전히 특이한 삶이었다.”

(임수영 2014: 14에서 인용)

6) 젤스카야(Земская 1978: 21)에 따르면, ‘/’는 미완료 역양의 통합소를 나타내고 ‘//’, ‘!’, ‘?’는 발화의 완 료를 나타내는데, ‘/’는 ‘//’에 비해 휴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것을 나타낸다. (김명자 1998: 243 재인용)

(15) a. Маша^{ИМЕН.}. Она меня любит.

“마샤.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

b. Маша меня любит.

“마샤는 나를 사랑한다.”

(김명자 1998: 247-248에서 인용)

예문 (14)~(15)의 a는 테마주격구문의 예시이며, b는 이를 일반 구문으로 수정한 것이다. (14a)와 (15a)에서 ‘Болезни’와 ‘Маша’가 각각 테마주격에 해당한다. 후행하는 맥락 없이 테마주격만 위치하는 구문을 상정했을 때, 이는 고유 명명(собственно номинация)의 기능과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고유 명명의 기능을 갖는 주격과 테마 제시의 기능을 갖는 주격에는 두 가지의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지시 대상의 위치적인 관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고유 명명 주격의 경우 언어외적(extra-linguistic) 상황을 지향하지만 테마주격의 경우 바로 후행하는 맥락에서 나타나는 요소를 지향한다. 다음으로 완전한 문장 구성 여부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고유 명명 주격의 경우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을 구성하지만, 일반적으로 테마주격은 그 자체만으로는 완전한 문장을 구성하지 않고, 테마주격구문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다(김명자 1998: 244; 임수영 2014: 14).

테마주격의 경우 상응지시체의 격과는 무관하게 주격의 형태를 갖는다. 라프테바(Лаптева 1966: 50) 등에서 대격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음이 드러나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며 보편적으로 주격의 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정보구조적 측면과 테마주격의 사용 측면을 고려했을 때, 주격은 자질 [테마성]에 대하여 유표적인 격이라고 할 수 있다.

3.2. 통사-의미론적 자질의 도입: 자질 [주어성]

주어성(субъективность)이란, “주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문장 속에서 구조적으로 주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일컫는 말”로 정의된다(김형섭 2014: 252-253). 일반적으로 러시아어에서 주어의 자질, 즉 주어성에 대한 전통적 · 규범적 개념은 아래와 같다.

(16) 러시아어의 주어성 자질

a. 주어는 ‘주격’으로 형성된다.

(Подлежащее оформляется именительным падежом.)

b. 주어는 (술어로 쓰인) 정형동사(финитивный глагол)와 성·수·격 범주에서의 일치를 강제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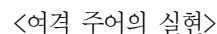
(Подлежащее контролирует согласование с финитным глагол по категориям лица, числа или рода.)

(Тестелец 2001: 318-319에서 인용)

(16a)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주격은 주어를 형성하는 가장 주요한 격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문장에서 주격이 주어로 사용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어에서는 주어가 없는 것으로 설명

(김형섭 2014: 260에서 인용)

주격 주어의 발생은 정형동사절의 TP 및 VP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는다(Pesetsky&Torrego 2001). TP가 갖는 자질 [EPP]에 의해 지정어 자리에 명사가 이동되며, TP가 갖는 또 다른 자질인 [격: 주격] 자질에 의해 명사에 주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여격 주어의 발생 역시 TP 및 VP와 연관을 맺는데, 이 때의 TP는 불완전(defective)하므로 자질 [주격]을 보유하지 못하며, SPA 역시 당연히게도 일어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무인칭구문은 단수·중성 명사의 경우를 상정하는 무표적 일치(default agreement)가 나타나게 된다. 주격 주어와 여격 주어의 통사적 실현 구조는 다음과 같다(김형섭 2014: 258-259).



그렇다면 정말로 자질 **[주어성]**은 주격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여격과 같은 기타 다른 격은 자질 **[주어성]**에 대해 휴표적이라고 할 수 없는가? (16)에 기술된 테스텔레츠(Тестелец)의 주어성 자질은 주어에 대한 형태-통사론적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주격만이 유일하게 주어성 자질을 보유할 수 있는 격이 된다. 따라서 주어로 실현될 수 있는 격은 주격이 유일하며, 여격 등에 대해서는 주어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주어성을 테스텔레츠의 정의보다 다소 확장적인 개념으로 간주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주어성의 개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테스텔레츠의 견해를 일부 따르되, 다음과 같이 새로운 개념적 차원에서 주어성을 정의한다.

(18) 주어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

- a. 주어는 ‘주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 b. 굴절소구(IP) 또는 시제구(TP)의 지정어 위치에 주격이 아닌 다른 격이 할당될 경우, 해당 격을 주어로 간주한다.
- c. 의미적으로 행위주(Agent) 또는 경험주(Experiencer)⁷⁾의 의미역을 할당받을 수 있는 격은 주어가 될 수 있다.

여격도 주어로 간주할 수 있다는 소위 ‘여격 주어설’은 러시아 언어학계에서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이다⁸⁾. 그린버그와 프랭크스(Greenberg&Franks 1991: 75-79)는 세 가지의 증거를 들어 여격을 주어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먼저는 여격 주어와 주격 주어와 동일한 의미역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여격 주어와 채귀대명사(свой, себя)를 지배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동사파생명사(gerund) 및 чтобы 절 내의 주어를 여격 주어와 지시할 수 있다는 점이 이유로 제시된다. 첫 번째 이유는 (18a)와 관련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세 가지의 증거를 요약하자면, 결론적으로 주격 주어와 여격 주어는 동일한 통사적 기능(syntactic functions)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 예문 (19a)에서의 Лора와 (19b)의 Емуже는 동일하게 행위주 또는 경험주의 의미역을 할당받으며, 예문 (20)과 (21)은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를 입증하는 예문이 된다.

(19) a. Лора^{ИМЕН} пишет список.

“로라는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b. Емуже^{ДАТ} жаль эту девушку.

“그는 그 소녀를 불쌍히 여겼다.”

(Greenberg&Franks 1991: 71에서 인용)

7) 행위주와 경험주는 유사하지만 서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행위주는 서술어에 의해 표현되는 행위를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경험주는 지각, 감정, 인지, 사유 등의 작용을 경험하는 존재가 된다.

8) 이인영(2007)에 따르면, 여격 주어 구문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여격 + V.inf : Куда нам поставить этот ящик? “우리 이 껌깍을 어디에 놓아야 하지?”
2. 여격 + 상태범주(category of state) : Мне холодно. “나는 춥다.”
3. 여격 + 양상소사 + V.inf : Мне надо/нужно заниматься. “나는 공부해야 한다.”
4. 여격 + V-ся : Мне не спится. “나는 잠이 안 온다.”
5. 여격 + V-ся + 주격 : Мне вспомнилась Москва. “나는 모스크바가 회상되었다.”

‘여격 주어설’ 역시 유형 1~5의 여격을 모두 주어로 간주하는 의견, 유형 1~4의 여격만을 주어로 간주하는 의견, 유형 1의 여격만을 주어로 간주하는 의견의 세 가지로 하위분류할 수 있다. 본고에서 여격 주어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따르는 논리인 Greenberg&Franks(1991)은 유형 1의 여격만을 주어로 간주하는 세 번째 유형의 하위 의견에 해당한다.

(20) Мне^{ДАТ} жаль себя.

“나는 스스로를 불쌍히 여겼다.”

(21) а. Слушая этот рассказ, мне^{ДАТ} было страшно.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나는 무서웠다.”

б. Мне^{ДАТ} довольно было этих дней, чтобы понять и почувствовать материнскую.

“(내가) 모성애를 이해하고 느끼기에 충분한 요즘이었다.”

(Greenberg&Franks 1991: 76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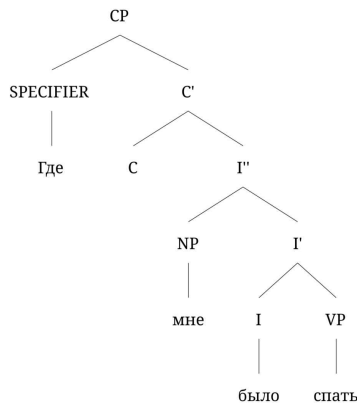
격 할당 규칙(case assignment rule)에 따른 여격 주어 구문의 통사적 실현에서도 여격 주어를 주어로 간주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아래 예문 (22)에 대한 통사적 수형도 (23)에서 I'의 지정어 위치에 여격 주어 Мне가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굴절소구(IP)의 지정어 자리는 일반적으로 주어의 자리로 간주된다. 수형도 (23)에서 I'의 지정어 위치에 여격 명사 Мне가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실로부터, Мне를 통사적으로도 주어로 간주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8b)와 관련된 설명이 된다.

(22) а. Где мне^{ДАТ} было спать?

“저는 어디에서 자야 했나요?”

(Greenberg&Franks 1991: 79).

(23)



(18c)와 관련하여, 여격은 일반적으로 간접목적어(indirect object)로 사용되는 쓰임이 특징적이므로 수혜자(Beneficiary)의 의미역을 할당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여격 주어 구문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여격 명사가 행위주나 경험주의 의미역을 할당받게 된다. 따라서 새롭게 정의내린 주어성의 개념에 따라 의미적으로도 여격에 대해 자질 [주어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자질 [주어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구문 유형은 바로 ‘대격 무인칭 구문’이다. 본고의 2.3장에서 다룬 예문 (9)가 대격 무인칭 구문의 예시인데, 이러한 유형의 구문을 대격 무인칭 구문 또는

역경 무인칭 구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Babby 1994). 설명의 편의를 위해 예문 (9)를 재인용한다.

(9) Течением^{твор} отнесло лодку^{вин}.

“물살로 인해 배를 움직였다.”

(Якобсон 1936/1985: 153에서 인용)

자연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물살에 의해 움직인 주체가 ‘배’이므로, 해당 문장의 (의미상) 주어는 대격으로 표시된 лодку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 때의 лодку 역시 의미역으로는 경험주를 할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경 무인칭 구문에서 사용된 대격 명사 역시도 자질 [주어성]에 대해서는 유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주격, 여격 및 대격은 자질 [주어성]에 대해 유효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2장의 말미에서 상세하게 기술한 바와 같이 여격 주어가 주격 주어와 통사적 기능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무엇보다 본고에서의 자질 [주어성]이라 함은 테스텔레츠의 주어성 자질 논의를 넘어선 확장적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격에 대해 [주어성]의 자질을 인정하는 것은 납득 가능한 격 기술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한적으로나마 역경 무인칭 구문에서 의미상 주어가 대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 때의 대격에 대해 [주어성]의 자질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머지 생격, 조격, 전치격은 [-주어성]으로 기술될 수 있다.

[주어성]과 [테마성]은 밀접한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주어로 표현되는 것은 문장에서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러시아어는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워, 어순(word order)이나 억양(intonation)에 따라서도 정보구조가 결정될 수 있어 [주어성]과 [테마성]이 온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격은 [+주어성]의 자질을 갖는 것으로 기술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자질은 동일하게 여격 및 대격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절대적 무표격으로 간주되는 러시아어의 주격에 대하여 ‘유효적’인 격으로 간주할 여지는 없는지 몇 가지 자질의 신규 도입을 통하여 검토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니들의 연구처럼 야콥슨의 자질에 대한 실질적인 수정을 통해 유효적 주격을 검증할 수도 있었지만, 본고에서는 새로운 자질을 도입함으로써 주격의 유효성을 보이고자 하였다. 기존의 자질을 ‘형태-의미론적 자질’로 간주하고, 새로운 두 개의 자질을 각각 ‘정보구조’와 ‘통사의미론’의 영역에서 가져옴으로써, 작은 문법적 단위에서부터 큰 문법적 단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위의 차원에서 주격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자질 목록을 구성하였다.

본고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야콥슨의 자질 목록과, 본고에서 새롭게 추가한 자질 및 이에 따른 주격의 유효성 여부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자질의 범주	자질의 목록	해당 자질에 대한 주격의 유효성 여부
형태-의미론적	방향성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무표적
	경계성 (объёмность)	무표적
	주변성 (периферийность)	무표적
정보구조론적	테마성 (тематичность)	유효적
통사-의미론적	주어성 (субъективность)	유효적

【표 2】 자질에 대한 주격의 유효성 여부

정보구조론적 차원에서 도입된 자질 **【테마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는 두 발화에서 주격으로 사용된 명사가 문장의 중심적 내용이 된다는 점과, 테마주격이 사용된다는 점을 들어 주격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통사의미론적 차원에서 도입된 자질 **【주어성】**에 대해서는 러시아어의 전통적인 주어성 자질을 기반으로 의미적 개념이 추가된 주어성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여격 주어 구문에서의 여격 명사가 주어로 인정될 수 있음은 물론 역경 무인칭 구문에서 사용된 대격 명사의 주어성을 입증하여 주격, 여격 및 대격에 모두 **【+주어성】**의 자질을 부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효이론에 대한 하스펠마트(Haspelmath 2006)의 비판 이후로 실제로 형태론 영역에서 유효이론을 사용한 저술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유효이론은 언어학 제분야에 있어 유용한 이론이며, 연구자가 생각하는 ‘유효적’의 정의를 온전하게 밝힌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을 줄이고 연구 대상이 되는 체계 내에 속한 다양한 항목들이 보유하는 논리적 관계를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본고는 유효이론을 통하여 절대적 무표격으로 인식되는 주격의 유효성을 보이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하스펠마트 및 격 이론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실질적인 비판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자질 목록을 수정해야 했지만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새로운 자질을 도입하기만 했다는 점에서 완전한 비판이 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슬라브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유효적 주격’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Dixon 1994 등).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주격에 대해 새로운 각도로 접근하고 연구하기 위한 시도는 향후 과제로 남긴다. 3.2장에서 자질 **【주어성】**이 주격을 제외한 다른 격인 여격과 대격에도 유효적임을 보임으로써 새로운 자질로의 도입 타당성을 검증하였지만, 자질 **【테마성】**을 통한 다른 격 기술 시도는 본고에서 미처 완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자질 **【테마성】**으로 다른 격을 기술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향후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참 고 문 헌

<국문>

- 김형섭(2010), 러시아어 무인칭 구문(impersonal constructions)의 통사적 구조에 대한 재고찰: A Minimalist Approach. 노어노문학, 22(4), 83-107.
- _____(2014), 러시아어의 주어성 연구: 주어-동사 일치의 문제. 외국학연구, (28), 251-278.
- 김명자(1998), 테마주격구문과 좌측전위. 슬라브어 연구, 3, 243-276.
- 유승만(2006), 로만 야콥슨의 유표성 이론 연구. 러시아연구(Russian Studies), 16.
- 이인영(2002), 주격에 대하여 - 소위 “주격 목적어”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Russian Studies), 12, 207-242.
- _____(2007), 러시아어 여격 주어 구문 재고. 러시아연구(Russian Studies), 17, 205-242.
- 임수영(2014), 러시아어에서 주격과 주격구문의 의미와 기능 (연구과제번호 2012S1A5B5A07038171).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https://www.krmt.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39245&local_id=10060347
- 황서경(2004), 러시아어 조격, 생격, 여격의 의미 연구: 동사 어휘의미를 기준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영문>

- Babby, L. (1994). A theta-theoretic analysis of adversity impersonal sentences in Russian. In Formal Approaches to Slavic Linguistics (Vol. 2, pp. 25-67).
- Bílý, M. (1989), The case of the invariant case reconsidered. Slovo: Journal of Slavic Languages and Literatures, (37), 5-33.
- Carnie, A. (2012), Syntax: A generative introduction, vol. 19.
- Dixon, R. M., & Dixon, R. M. (1994). Erg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llmore C. J. (1968), The Case for Case, Bach E. & Harms R. (eds.), Universal in Linguistics Theory 1-88, NY.
- Greenberg, G. R., & Franks, S. (1991). A parametric approach to dative subjects and the second dative in Slavic.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71-97.
- Haspelmath, M. (2006). Against markedness (and what to replace it with). Journal of linguistics, 42(1), 25-70.
- Jakobson, R. (1958/1971), Морфологические наблюдения над славянским склонением. Selected writings. Word and Language, 154-183. Mouton: The Hague – Paris.
- Janda, L. A. (1993), A geography of case semantics: The Czech dative and the Russian instrumental (No. 4). Walter de Gruyter.
- Neidle, C. (2012). The role of case in Russian syntax (Vol. 10).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Pesetsky, D., & Torrego, E. (2001). T-to-C movement: Causes and consequences. *Current Studies in Linguistics Series*, 36, 355-426.

Wierzbicka A.(1980), “The case for surface case”, Ann Arbor: Karoma.

<논문>

Земская, Е. А., & Капанадзе, Л. А. (Eds.). (1978). *Русская разговорная речь: Тексты*. Наука.

Курилович, Е. (1962), “Проблема классификации падежей” *Очерки по лингвистике*. 175-203, М.

Лаптева, О. А. (1966). О некодифицированных сферах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 *Вопросы языкознания*, 2.

Панов, М. В. (Ed.). (1968). *Морфология и синтаксис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 Наука.

Пешковский, А. М. (2001). Русский синтаксис в научном освещении/вступ. ст. ЕВ Клобукова.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1980) т. I. м. (=АГ80)

Скобликова, Е. С. (2012), *Современный русский язык. Синтаксис сложн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теоретический курс)*.

Тестелец, Я. Г. (2001). *Введение в общий синтаксис*. Федер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бюджетно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гуманитар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Якобсон, Р. О. (1936/1985), “К общему учению о падеже”. *Избранные работы*. 133-175, М.

<Abstract>

**A Study on the Nominative Case in Russian:
Rethinking the Nominative Case as a Marked Case**

Cho, Seo-Jin

This paper starts by asking the question “Is the nominative case the most basic and unmarked case?” For this, we deeply see the various traditional perspectives on the nominative case named “nomination theory”, “subject theory” and “unmarked case theory” or “zero-case theory”, including Jacobson’s ‘distinctive case feature’ theory, which i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paper. Existing qualities presented by Jakobson — [marginal], [quantifying], [ascriptive] are regarded as “morphological-semantic” qualities. We add two new qualities — [thematicity], which is drawn from the information structure, and [subjectivity], which is drawn from the syntax-semantic. Since the nominative case has [+thematicity] and [+subjectivity],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to open the space that the nominative case is no more simply regarded as an “absolutely non-marked case”, but a “slightly marked case”.

<Keywords>

Case, Nominative Case, Markedness, Markedness Theory, Case Features, Unmarked Case, Marked Case

<주제어>

격, 주격, 유표성, 유표이론, 격 자질, 무표격, 유표격

jsj8255@yonsei.ac.kr

러시아어 전치사 'в'와 'на'의 의미 차이 연구: 동일 명사와의 결합을 중심으로

Анализ семантической разницы между русскими предлогами «в» и «на»: в фокусе сочетания с одним и тем же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м

이예린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석사 1학기)

1. 서론

제2언어(L2) 학습자가 느끼는 주된 어려움은 L1(모국어)와 L2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학습자는 언어를 습득하며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모국어와 비교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를 L2 습득 과정에서의 L1의 간섭(interference) 현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주로 학습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두드러진다.¹ L2로서 러시아어 학습자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느끼는데, 특히 한국어가 모국어인 러시아어 학습자는 한국어와 뚜렷이 구별되는 러시아어의 문법, 곧 격, 상, 어순, 전치사 등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중 본고에서 살펴볼 것은 러시아어 전치사 'в'와 'на'의 사용이다.

러시아어에서 전치사 'в'와 'на'의 의미와 사용 양상은 상당히 유사하다. 두 전치사는 주로 장소, 방향, 공간 등을 나타낸다. 그러나 하나의 명사가 'в'와 'на'의 결합 여부에 따라 의미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бумаги лежат в столе(책상에 종이가 올려져 있다)', 'положить бумаги в стол(책상에 종이를 올려놓다)'와 'писать на бумаге(종이에 쓰다)', 'перевести на бумагу(종이에 옮기다)'이다. 이러한 경우 'бумаги лежат в столе(책상에 종이가 올려져 있다)'와 'писать на бумаге(종이에 쓰다)'에서 명사 стол은 전치격을 취하며, 'положить бумаги в стол(책상에 종이를 올려놓다)'와 'перевести на бумагу(종이에 옮기다)'에서 стол은 대격을 취한다. 이 경우 격형태는 그것을 지배하는 동사의 어휘의미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대격은 이동동사에 의해 지배되어 이동의 방향을 가리키고, 전치격은 그 밖의 동사에 의해 지배되는데 주로 동사가 가리키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명명한다. 이렇게 격의 차이가 어미 곡용으로 드러나는 경우 외에 'пойти в оперу(오페라 극장에 가다)'와 'пойти на оперу(오페라를 보러 가다)'에서는 동사와 전치사에 결합하는 명사가 모두 동일하다. 이 경우 어결합의 변별적 의미는 오로지 전치사에 의해 결정된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예시처럼

¹ 최명원(2014)에서는 외국어 학습자들의 L2 언어 습득에 있어서 낮은 수준의 L2 학습자의 경우, 1차적으로 L1의 어휘지식을 동원한 번역을 통해 의미 이해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러한 습득방식을 성인의 L2 습득에 특징적인 방식으로 보았다.

동일한 격에서 전치사만으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국립 코퍼스(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рпу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를 활용하여 두 전치사의 사용 빈도를 비교해 볼 예정이다. 의미 차이의 발생 이유와 더불어 «전치사 'в' 또는 'на' + 명사» 결합이 어떠한 동사와 사용될 수 있는지 기술할 것이다. 특정 의미와 더불어 특정 부류의 동사 또는 특정 상의 동사와 결합하는 경향성이 확인될 경우, 추후 명사구, 절, 더 나아가 문장의 의미를 더 원활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러시아어 전치사 'в'와 'на'의 주요 사전적 정의 및 분류

전치사 'в'와 'на'는 공간전치사로, 장소, 방향, 공간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오체고프 사전(словарь Ожегова, 1949)에서 각 전치사의 뜻을 살펴보면, 'в'의 의미는 결합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그 세 개의 의미는 각각 6개, 3개, 3개의 세부 의미로 나누어진다. 'на' 또한 결합성에 따라 세 개의 의미로 나뉘고, 그 세 개의 의미는 각각 4개의 세부 의미를 가지고 있다.² 이때 결합성이란 명사의 특정 격을 지배하는 특성을 말한다. 전치사 'в'와 'на' 모두 대격과 전치격을 지배하며, 사전은 대격과 전치격에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와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를 기술한다. 오체고프 사전에서 기술된 전치사 'в'와 'на'의 주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전치사 в

I. с вин. и предл. п. 대격, 전치격과 사용됨

1. Употр. при обозначении места, направления куда-н. или нахождения где-н. 장소, 어디로의 방향 또는 어딘가의 위치를 나타낼 때 사용됨. 예) Положить бумаги в стол(책상에 종이를 올려놓다). Бумаги лежат в столе(책상에 종이가 올려져 있다). Уехать в Сибирь(시베리아로 떠나다). Жить в Сибири(시베리아에 살다).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в университет(대학에 지원서를 제출하다). Учиться в университете(대학에서 공부하다).
2. Употр. при обозначении явлений,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собой область деятельности, состояние кого-н. 활동 영역을 나타내는 현상, 누군가의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됨. 예) Вовлечь в работу(일에 열중하다). Весь день в работе(하루 종일 일하다). Впасть в сомнение(의심에 들다). Погрузиться в глубокое раздумье(깊은 고민에 빠지다).

II. с вин. п. 대격과 사용됨

1. Употр. при обозначении соотношений чисел. 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됨. 예) В три раза меньше(3배 적다).

² 오체고프 사전. <https://slovarozhegova.ru/>

2. Ради, для, в качестве чего-н. 무엇인가 때문에, 무엇인가를 위하여, 무엇으로서. 예) *Сделать что-н. в насмешку*(무엇인가를 농담조로 하다). *Не в обиду будь сказано*(이런 말하기 곤란하지만).

III. с предл. п. 전치격과 사용됨

1. Употр. при обозначении расстояния от чего-н., временного отрезка. 어떤 것으로부터의 거리, 시간 간격을 지정할 때 사용됨. 예) *В двух шагах от дома*(집에서 두 걸음). *В пяти минутах езды от города*(도심에서 차로 5분).
2. Употр. при обозначении предметов, лиц, явлений,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рым что-н. происходит, наблюдается. 발생하고 관찰되는 그 무언가, 곧 대상, 사람, 현상을 지칭하는 데 사용됨. 예) *Недостатки в воспитании*(훈육에서의 결함). *Знарок в литературе*(문학에서의 대가). *Разбираться в людях*(사람에 있어 보는 눈이 있는). *Разница в годах*(연도에 있어서의 차이).

전치사 на

I. с вин. и предл. п. 대격, 전치격과 사용됨

1. (на) кого-что и (на) ком-чем. Употр. при обозначении поверхности, на к-рой сверху располагается или куда направляется что-н.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위에). 무엇인가가 표면 위에 위치하거나 그쪽으로 향할 때 사용됨. 예) *Писать на бумаге*(종이에 쓰다). *Перевести на бумагу*(종이에 옮기다). *На столе*(책상 위에). *На стол*(책상에, 책상 위에). *На крыше*(지붕 위에). *На крышу*(지붕에, 지붕으로). *Лежать на диване*(소파에 누워있다). *Лечь на диван*(소파에 눕다). *На ноге*(다리에). *На ногу*(다리에). *Рисунок на фарфоре*(도자기 위의 그림).
2. (на) что и (на) чем. Употр. при обозначении места, области или времени деятельности. 무엇인가의 위에, 무엇인가에. 행위의 장소, 분야 또는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됨. 예) *Орудие на позиции*(대포는 위치에 있다). *Выйти на позицию*(진지로 나가다). *Быть на работе*(일터에 있다). *Идти на работу*(일하러 가다). *Быть на собрании*(회의에 참석하다). *Вынести вопрос на собрание*(문제를 회의에 부치다,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다). *Решить на пленуме*(총회에서 결정하다). *Вынести вопрос на пленум*(문제를 총회에 부치다,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다). *Встреча на будущей неделе*(다음 주에 있을 만남). *Отложить на будущую неделю*(다음 주로 미루다). *Быть на выставке*(전시회에 참석하다). *Идти на выставку*(전시회에 가다).

II. с вин. п. 대격과 사용됨

1. (на) что. Употр. при обозначении срока, промежутка времени. 기간, 시간적 간격을 지정할 때 사용됨. 예) *Запас на зиму*(겨울 동안의 비축품). *План на год*(한 해 계획).

Опоздать на час(한 시간을 늦다). Положение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오늘날의 상황).

2. (на) кого-что. Употр. при обозначении меры, количества, предела. 정도, 양, 한계를 나타낼 때 사용됨. 예) *Купить на сто рублей(백 루블에 사다). На рубль меньше(1루블 적게). Разделить на несколько частей(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다). Разбить текст на параграфы(글을 문단으로 나누다). Обед на пять человек(다섯 명의 점심). Слава на весь мир(온 세상에 영광).*

III. с предл. п. 전치격과 사용됨

1. (на) чем. Во время чего-н. ~ 동안에. 예) *На всем скаку(전속력으로). Птицы замерзают на лету(새는 비행 중에 추위를 탄다).*
2. (на) чем. При помощи чего-н., с чем-н. ~것의 도움으로, ~로. 예) *Жарить на масле(기름으로 튀기다). Развести краску на воде(물감을 물로 희석하다). Тесто на дрожжах(효모 반죽).*

앞서 제시된 사전적 정의는 일부이며, 이외에도 전치사 ‘в’와 ‘на’의 의미와 그에 따른 정의 및 예시가 다수 존재한다. 예시 어결합의 한국어 번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러시아어 전치사 ‘в’와 ‘на’의 의미는 상당히 유사하다. 예를 들어, 전치사 ‘в’의 가장 첫 번째 의미(I.1.)는 ‘장소, 어디로의 방향 또는 어딘가의 위치’이고, ‘на’의 첫 번째 의미(I.1.)는 ‘누군가에, 무엇인가에,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위에)’이며, ‘표면의 위쪽에 위치하거나 어딘가로 무엇인가가 향하는지 나타낼 때’ 드러나는데, 두 전치사 모두 방향과 장소, 위치가 함께 관련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시간적 간격의 측면에서 유사한 의미 또한 존재하는데, 전치사 ‘в’의 의미(III.1.)인 ‘어떤 것으로부터의 거리, 시간 간격을 지정할 때 사용됨’과 전치사 ‘на’의 의미(II.1.)인 ‘시간적 간격을 지정할 때 사용됨’이다. 예시 없이 사전상의 뜻풀이만 보았을 때 사전 사용자에게, 특히 외국인 언어 학습자에게 두 의미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배동사와 결합하는 명사가 동일한 경우 이 두 전치사의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외국어로서 러시아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코퍼스를 통해 살펴본 동일 어결합에서의 ‘в’와 ‘на’의 사용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본고에서 말하는 동일 어결합에서의 전치사 ‘в’와 ‘на’의 의미는 ‘пойти в оперу(오페라 극장에 가다)’와 ‘пойти на оперу(오페라를 보러 가다)’와 같이 전치사의 차이만 있고 나머지 형태적 요소는 동일한 어결합에서의 의미를 말한다. 김자용(2007)에 따르면, 전치사 ‘в’와 ‘на’는 다의성을 가지더라도 그 원형 의미는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는 동일한 명사와 결합한 전치사구라고 하더라도 의미적 차별성을 가지기 때문에 각 전치사구의 의미 차이가 발생한다. 해당 논문에서는 ‘동일한 추상적인 명사와 결합한 전치사구의 의미’는 의미 차이를 갖게 된다는

주장에 대한 예시로 'в переговорах(회의 중에)'와 'на переговорах(회의상에서)'가 제시되었다.³

이와 비슷한 현상은 남슬라브어인 불가리아어에서도 나타난다. 불가리아어에도 전치사 'в'와 'на'가 존재하며, 러시아어 전치사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불가리아어 전치사 'в'는 사방이 막히고, 경계가 뚜렷한 장소를 나타낼 때, 'на'는 경계가 없는 장소나 층수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또한 불가리아어에서 전치사 'на'는 'на работа(일을 하러 가다)'처럼 목적성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드문 현상이다. 그렇지만 불가리아어에서도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전치사 'в'와 'на'가 동일한 환경, 곧 동일한 동사 및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국내 불가리아어 학습서에서의 대화문에 나온 예시는 아래와 같다:⁴

(1) Първо мислихме да отидем **в кино** «Арена», за да гледаме един нов български филм, но после решихме да отидем **в киното** на третия етаж на мола.

먼저 우리는 새 불가리아 영화를 보기 위해 «아레나» 영화관에 갈 생각이었으나, 쇼핑몰 3층에 있는 영화관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2) Бях **на кино** с Гертана.

나는 게르가나와 영화를 보러 갔어.

예문 (1)과 같이 'в кино'는 영화를 보러 가는 장소, 즉 영화관 건물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된다. 해당 문장에서는 두 개의 다른 영화관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в кино'가 두 번 사용되었으며, 두 번째 절에서의 'в киното'는 '쇼핑몰 3층에 있는' 그 영화관에 가기로 결정할 것을 나타내기 위해 관사 'то'가 쓰였다. 예문 (2)에서의 'на кино'는 영화관 건물이 아닌, 영화를 보러 가는 이동의 목적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불가리아어에도 전치사의 차이로 의미 차이가 발생하는 어결합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지만, 이는 거의 유일한 예시이다.

다시 러시아어로 돌아와서, 동일한 명사와 결합하는 전치사 'в'와 'на'의 사용 양상을 '러시아 국립 코퍼스'를 통해 살펴보려 한다. 본고에서 분석해볼 결합은 '(пойти) в оперу(오페라 극장에 (가다))'와 '(пойти) на оперу(오페라를 보러 (가다))'이다.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검색하는 결합은 동사를 제외한 전치사구인 «전치사 'в' 또는 'на' + 명사» 결합이며, 앞선 내용에서 동사 'пойти(가다)'는 원활한 의미 파악 및 전달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고자 한다. 각 전치사구를 지배하는 단어가 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무슨 품사에 속하는지는 분석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검색기간은 19세기 초, 정확하게는 1820년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고자 한다.⁵ 이는 현대 표준 러시아어의 시작을 알린 작가인 알렉산드르 푸슈킨(А. Пушкин)의 초기 작품 «루슬란과 류드밀라(Руслан и

³ 김자용(2007), 러시아어 전치사 В, НА의 의미 확장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서울, 4-5.

⁴ 채유정 외(2020), 나의 첫 불가리아어 (알파벳부터 시작하는 왕초보 불가리아어 첫걸음!) p.207.

⁵ 현대 표준 러시아어는 러시아 대문호 알렉산드르 푸슈킨(Пушкин А. С., 1799-1837)으로부터 확립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파두체바(Падучева Е. В.)는 «Русский литературный язык до и после Пушкина»(2001)에서 «문법에 있어서 푸슈킨의 언어는 푸슈킨과 동시대 작가, 심지어 그 이후 작가의 언어들 보다 여러 측면에서 현재 언어와 가깝다»고 주장했다.

Людмила)»의 작품 완성 연도이다.

3.1. 'в оперу'

먼저 'в оперу'을 살펴보고자 한다. 'в оперу'는 오페라 극장, 즉 극장 건물에 방문하는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정확한 텍스트 또는 문장에서의 맥락을 통해 파악할 수 있겠지만, 주로 오페라 공연을 보러 극장 건물에 출입할 때(공연을 보러 가지만, 공연 자체가 아닌 극장 방문에 초점) 또는 일을 하러 극장 건물에 출입하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국립 코퍼스' 사이트에서 해당 어결합을 검색한 결과, 281개의 텍스트와 431개의 예문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용 빈도를 도표 형태로 나타낸 것은 다음과 같았다:

Панхронический корпус. История употребления сочетания словоформ. (?)

Годы с 1820 по 2021 со сглаживанием 0 Построит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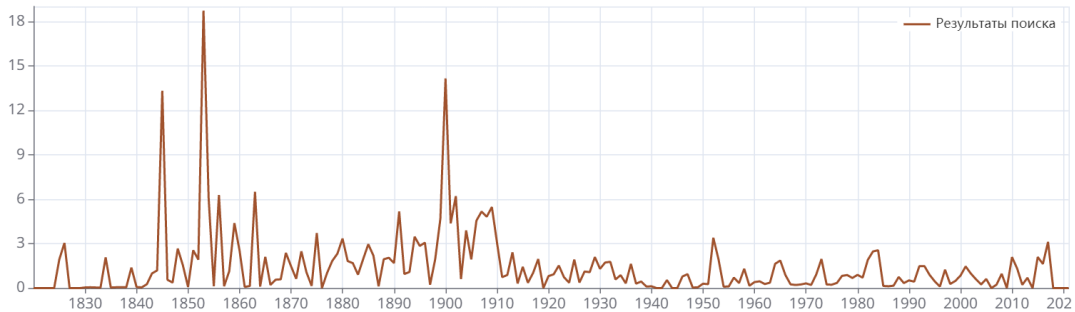


표1. 1820년~2021년 사이에 전치사구 'в оперу'의 사용 빈도 변화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820년부터 2021년까지 'в оперу'가 꾸준히 사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해당되는 예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в оперу'는 주로 동사, 그 중에서도 이동동사 및 이동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와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в оперу'가 오페라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연장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을 가리킴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3) На другой день после обеда милорд, приехав к Фердинальду, вместе с ним поехал в оперу, в которой была и королева. [М. Комаров (обработка). Повесть о приключениях английского милорда Георга и бранденбургской маркграфини Фридерики-Луизы, с присовокуплением к оной истории бывшего турецкого визиря Марцимириса и сардинской королевы Терезии (1782)]
(다음날 점심 식사 후 페르디날드에게 오신 귀인은 여왕도 참석한 오페라에 갔다.)
- (4) Вчера́сь хотел он меня́ везти в оперу́; сие зрелище, как сказывал он мне, чрезвычайна́ ему нравилось... [И. А. Крылов. Почта Духов, или Ученая, нравственная и критическая переписка арабского философа Маликульмулька с водяными, воздушными и подземными духами (1789)]

- (어제 그는 나를 오페라에 데려가고 싶어했다; 그가 나에게 말했듯이 그는 그 광경을 매우 좋아했다...)
- (5) Спрашивали князя Меншикова, почему не едет он хоть раз **в оперу**, чтобы послушать Рубини. [П. А. Вяземский. Старая записная книжка (1830-1870)]
(그들은 멘쉬코프 공작에게 루비니를 듣기 위해 왜 한 번이라도 오페라에 가지 않았는지 물었다.)
- (6) — Тихо, хорошо в этой стороне, только скучно! — говорил Обломов, уезжая в оперу. [И. А. Гончаров. Обломов (1859)]
(— 이쪽이 조용하고 좋아요, 다만 지루할 뿐! — 오블로모프가 오페라에 가면서 말했다.)
- (7) Вместе с послом он осматривает столичны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посещает балы, ездит в оперу. [Леонид Юзефович. Князь ветра (2001)]
(대사와 함께 그는 수도의 명소를 방문하고, 무도회에 참석하고, 오페라에 간다.)
- (8) А что ты думала? Что я **в оперу** петь пойду? [Инна Халыпина. Карниз Европы // «Волга», 2015]
(너는 무엇을 생각했는데? 내가 오페라에 노래를 부르러 간다고 생각한거야?)
- (9) После завтрака отец обещал ему смастерить модель Солнечной системы, жена заказала на вечер билеты в оперу, но тут полицейский курьер звонит в дверь. [Леонид Юзефович. Князь ветра (2001)]
(아침식사 후 아버지는 그에게 태양계 모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아내는 저녁 오페라 티켓을 주문했지만, 경찰이 초인종을 울리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명사 'билеты(티켓, 표)'나 동사 'одеваться(옷을 갈아입다)'처럼 이동의 의미와 관련 없는 단어와 결합하는 용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전치사 'в'는 목적의 의미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오페라 관람을 위한 '표', 오페라 관람을 위해 '옷을 갈아입다'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 (10) И платят большие деньги за билеты в оперу. [Анатолий Гладили. Лодочник // «Октябрь», 2013]
(그리고 그들은 오페라 티켓에 큰 돈을 지불한다.)
- (11) У нас бы пропали билеты в оперу. [Инна Халыпина. Карниз Европы // «Волга», 2015]
(우리는 오페라 티켓이 없어졌을 것이다.)
- (12) Не могу не вспомнить здесь мой последний приход в Оперу. [Роман Карцев. «Малой, Сухой и Писатель» (2000-2001)]
(나는 마지막으로 오페라를 방문했던 것을 여기에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 (13) Одевается утром, одевается к обеду, одевается в оперу, одевается на бал, или на вечер. [К. П. Победоносцев. Московский сборник (1896)]
(아침에 옷을 입고, 점심에 가까워질 때쯤 옷을 입고, 오페라에 가기 위해 옷을 입고, 무도회를 위해 옷을 입거나 저녁을 위해 옷을 입는다.)
- (14) — Это куда? — поинтересовался Шацкий. — **В оперу**... — В небеса, в рай, конечно... [Н. Г. Гарин-Михайловский. Студенты (1895)]
(— 어디로 가는거야? — 샤츠키가 물었다. — 오페라로... — 천국으로, 낙원으로, 물론...)

3.2. 'на оперу'

'На оперу'는 오페라 공연, 예술 행위 자체에 대한 의미를 나타낸다. 코퍼스 검색 결과, 74개의 텍스트와 97개의 예문에서 해당 결합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용 빈도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Панхронический корпус. История употребления сочетания словоформ. (?)

Годы с 1820 по 2021 со сглаживанием 0 Построит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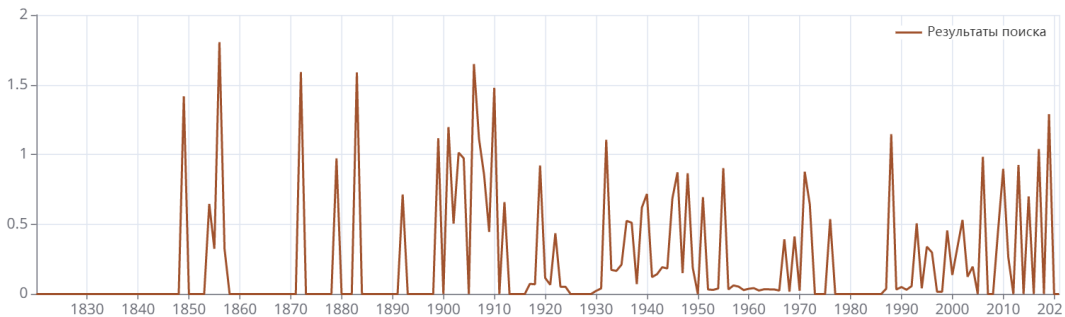


표2. 1820년~2021년 사이에 전치사구 'на оперу'의 사용 빈도 변화

도표 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1820 년부터 2021 년까지 'на оперу'가 꾸준히 사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в оперу'의 빈도 도표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на оперу'의 경우, 특정한 동사 또는 명사 그룹과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이러한 측면에서는 동사, 명사와 자유롭게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전체적인 의미 측면에서 주로 '목적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는 3 장에서 언급한 불가리아어 전치사 'на'의 의미와도 유사하다. 이와 관련하여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5) Папа, носимый в креслах на плечах людских, чрезвычайно походит на оперу «Китайский идол». [Д. И. Фонвизин. Письма родным (1784-1785)]
(사람들의 어깨에 있는 안락의자에 실린 교황은 오페라 «중국의 우상»과 매우 유사하다.)
- (16) Когда барон перестал абонироваться на оперу, он сделался в театре еще заметнее. [И. И. Панаев. Опыт о хлыщах (1854-1857)]
(남작이 오페라 예약을 중단했을 때 그는 극장에서 더욱 눈에 띄게 되었다.)
- (17) Точно так же, как Вы, смотрит на оперу Лев Толстой, который очень советовал мне бросить погоню за театральными успехами, а в «Войне и мире» ... [П. И. Чайковский. Письма Н. Ф. фон-Мекк (1883)]
(연극적인 성공의 추구를 포기하라고 강력히 조언한 레프 톨스토이는 당신처럼 오페라를 관람하고, «전쟁과 평화»에서...)
- (18) Далее разговор перешел на оперу. Впечатление обоих было нелестное, и они решили больше не слушать. [Н. Д. Телешов. На тройках (1892)]
(그런 다음 대화 내용은 오페라로 넘어갔다. 두 사람의 소감은 좋지 않았고, 그들은 더 이상 듣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문 (15)~(18)에서의 'на оперу'는 오페라 공연 또는 공연 내용을 의미한다. 예문 (15)는 교황의 모습이 마치 «중국의 우상»이라는 오페라 공연의 한 장면과 비슷하다고 한다. (16)의

경우, 남작이 중단한 오페라 예약은 오페라 공연 관람을 위한 예약으로 볼 수 있겠다. 이는 'в оперу'에서의 티켓 구매와는 의미적으로 목적이 다르다. 예문 (17)에서는 'на оперу'가 보는 행위인 동사 'смотреть'와 함께 사용된다. (18)에서의 '대화 내용'인 오페라는 이어지는 문장에서 소감에 대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공연 내용에 관한 것이다.

- (19) Сегодня я иду с Павлом в театр на оперу «Черевички». [Рюрик Ивнев. Дневник (1907)]
(오늘 나는 오페라 «체레비츠키»를 보기 위해 파벨과 함께 극장에 갈 것이다.)
- (20) Получив первое жалование, повела она и Маракулина и Веру Николаевну в Мариинский театр на оперу, и билеты обошлись ей не дешево, зато места — хорошие и было видно все и слышно. [А. М. Ремизов. Крестовые сестры (1910)]
(첫 봉급을 받은 그녀는 오페라 관람을 위해 마라쿨린과 베라 니콜라예브나를 마린스키 극장으로 데려갔고, 티켓 비용이 적지 않게 들었지만 좌석이 좋아서 모든 것이 잘 보이고 잘 들렸다.)
- (21) Наконец, когда уже все было открыто — открыли продажу на оперу «Пророк». [В. А. Теляковский. Заметки по управлению Московскими Императорскими театрами с 13 октября 1898 года по 26 ноября 1899 года (1899)]
(마침내 모든 것이 이미 열렸을 때 그들은 오페라 «예언자»의 티켓 판매를 시작했다.)
- (22) Скучно, по-моему, потому, что мало интересных артистов и артисток; между тем я нахожу, что жалование они получают большое, и вообще денег на оперу отпускают вполне достаточно. [В. А. Теляковский. Дневники Директора Императорских театров (1901)]
(내 생각에는 흥미로운 남배우와 여배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루한 것이다. 한편 나는 그들이 많은 봉급을 받고 일반적으로 오페라에서 충분한 돈을 벌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예문 (19)과 (20)의 경우 각각 동사 'идти'와 'повести'가 사용되었지만, 이는 'на оперу'가 아닌 전치사 'в'와 결합된 명사 'теат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в оперу'와 이동동사가 결합한 경우와는 상이하다. 예문 (22)의 경우, '오페라에서 충분한 돈을' 버는 행위는 오페라 공연을 통해 충분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결론

지금까지 러시아어 공간전치사 'в'와 'на'가 동일한 명사와의 결합에서 어떠한 의미 차이가 생기는지 알아보고, 각각의 경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먼저 오체고프 사전을 통해 전치사 'в'와 'на'의 개별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두 전치사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в оперу'와 'на оперу'의 용례를 '러시아 국립 코퍼스'에서 검색했다. 그 결과, 'в оперу'는 281개의 텍스트에서 431개의 용례가 검색되었고, 'на оперу'는 74개의 텍스트에서 97개의 용례가 검색되었다. 그리하여 'в оперу'가 'на опер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사용빈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표1과 2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체르파소바 외(Черпасова и др. 2007; 엄순천 2011: 70 재인용)는 문학 및 미디어 텍스트에서 94개의 공간전치사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전치사

'в'가 173,809회, 'на'가 84,524회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⁶ 'на оперу'와 'в оперу'의 빈도 분석 결과를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В оперу'의 경우 'ехать', 'поехать', 'уезжать', 'везти' 등과 같은 이동동사 및 이동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와의 결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в оперу'가 이동의 목적으로서 우선 오페라 공연이 열리는 '공연장'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을 지시함을 보여준다. 이 밖에 'билеты в оперу', 'одеваться в оперу'와 같은 어결합에서 전치사 'в'는 목적과 기능을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 'на оперу'의 경우, 특정한 그룹의 동사 혹은 명사와 사용되는 경향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는 'на оперу'가 오페라 공연장이 아닌, 오페라 공연의 내용 그 자체를 가리킨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또한 'денег на оперу'처럼 목적성의 의미도 포함하는데 이는 같은 슬라브어 친족어인 불가리아어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в оперу'와 'на оперу'는 물리적인 공연장과 추상적인 공연 내용을 가리킨다는 측면에서 구별되고, 이에 따라 결합하는 지배어도 결정된다. 그러나 이 두 전치사구는 모두 목적성의 의미를 표현함에 따라 동일한 지배어와 결합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의미에서 두 전치사구는 경쟁한다. 비교) Не доставай мне, пожалуйста, два билета на оперу. [М. Лемперт. Связи (1988) // «Труд», 01.04.1988] – Есть свободный билет в оперу и женщина к нему, свободная на вечер. [Дарья Симонова. Без Россини (2002)]. 그러나 목적성의 의미는 전치사 'на'에 의해 좀더 전형적으로 표현되는 것 같다. 일례로 'деньги на оперу'는 가능하지만 'деньги в оперу'는 불가능하다.

물론 이 글에서 다룬 'в оперу', 'на оперу'의 비교를 통해서 이 두 전치사의 섬세한 의미차이를 다 밝힐 수는 없을 것이다. 더 정확하고 세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시를 살펴보고 분석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예문을 선정하여 자동번역기를 통해 러·한 번역을 시도하는 것이다. 번역 결과를 확인하여 러·한 번역 과정에서 존재하는 장단점과 유의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 김자용(2007), 러시아어 전치사 В, НА의 의미 확장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서울
- 엄순천(2011), 러시아어 공간전치사 В의 공간적 원형의미 및 의미 분포 양상 분석. 유럽사회문화, 7(0), 69-96.
- 채유정 외(2020), “나의 첫 불가리아어 (알파벳부터 시작하는 왕초보 불가리아어 첫걸음!)”,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지식출판원(HUINE).

⁶ 체르파소바 외(Черпасова и др. 2007: 132)에 따르면, 문학 및 미디어 텍스트에서 94개의 공간 전치사를 분석한 결과, 'в'가 173,809회, 'на'가 84,524회, 'по'가 10,314회 순으로 나타났고, 그중 'в'의 사용률이 가장 높았다. (엄순천 2011: 70 재인용)

최명원(2014), 한국어 모국어(11) 성인 화자의 독일어(12) 학습수준에 따른 복수명사 어미의 선호도와 학습 성과. 독일언어문학, (65), 121-142.

Падучева, Е.(2001), Русский литературный язык до и после Пушкина. Heidelberger Publikationen zur Slavistik A. Linguistische Reihe·Band 13, Hrsg.: Baldur Panzer.

인터넷 사이트:

러시아 국립 코퍼스. <https://ruscorpora.ru/>

오체고프 사전. <https://slovarozhegova.ru/>

러시아어와 영어의 상 범주에 기초한 기계번역 결과 분석

Анализ результатов машинного перевода по категориям вида на русском и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ах

임 혜 민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석사 1학기)

1. 서론

러시아어를 비롯한 슬라브어에서 동사 상은 독립적인 문법범주로 존재한다. 반면, 영어는 상 언어(aspect language)라기보다는 시제 언어(tense language)에 가깝다. 영어에도 진행형이나 완료상과 같은 상 표지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러시아어처럼 특정한 동사 미정형(infinitive)만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동사의 파라디그마의 일부로써 존재한다. 이처럼, 러시아어는 상 범주의 문법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된 언어, 즉 문법적 상이 발달한 언어이고, 영어는 시제가 발달한 언어이기에 어휘적 상 개념으로 영어의 상을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접근 방식이다. 더불어, 두 언어에서 뚜렷하게 발달한 문법 범주가 상이기 때문에 영어와 러시아어의 시상 범주 간에는 완전한 1대 1 대응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은 자명하다.

한편, 같은 어족의 언어보다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하는 언어 사이에는 공통된 문법적 개념이 부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게르만어족에 속하는 영어의 현재완료와 슬라브어족에 속하는 러시아어 불완료상-완료상 과거시제 간 번역 결과물은 전적으로 번역자의 관점에 달려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2장에서 러시아어와 영어의 상 범주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봄, 상 언어인 러시아어와 시제 언어인 영어에서 상 연구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한다. 3장에서는 2장의 내용을 토대로 상의 형태·의미적 대립을 살펴본다. 이때 분석 대상은 관계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영어의 현재완료 및 러시아어 불완료상-완료상 과거시제가 포함된 예문으로 한정하며, 두 언어 사이의 시상 대응을 세 가지 기계번역 엔진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더불어, 기계번역 엔진 간 번역물 품질을 비교해 보며, 추가로 원문의 의미 소실이 최소화되는 번역 방법에 대해서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2. 러시아어와 영어의 상 범주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1. 러시아어의 상 범주

러시아어의 거의 모든 동사는 반드시 완료상 혹은 불완료상에 속하며, 상의 짝을 가진다. 러시아어의 상 범주는 문법상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동사에 문법 형태소, 즉 문법적 상 표지가 결합하여 동사 및 동사구가 지시하는 상황을 무표적인 불완료상(imperfective) 혹은 유표적인 완료상(perfective)으로 나타낸다. 러시아어 동사가 형태적으로 불완료상-완료상의 이원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어 원어민 화자는 발화 순간에 본능적으로 동사의 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예컨대, 외국어에서 차용된 동사는 도입 초기에는 완료상과 불완료상이 하나의 형태에 담겨 있는 ‘양상동사’의 단일 형태로 사용되지만, 구어에서 접두사 파생 혹은 접미사 파생을 거쳐 사전에는 없는 임시적 완료상 혹은 임시적 불완료상 형태가 만들어져 점차 상짝으로 굳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표준어 단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현대 러시아 젊은 세대의 ‘슬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영어 동사 ‘eat’에서 차용된 러시아식 동사 ‘итать’에 접두사 ‘по-’가 붙어 완료상 ‘поитать’가 형성된다. 따라서 김성완(2021:16)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가능해진다. “Ты уже поитал?(이미 밥 먹었어?)” 세대를 막론하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러시아어의 언어 체계에 뿌리내리고 있는 이분법적 상 범주로 인해 러시아인은 양상동사의 상 의미를 명확하게 가시화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러시아어 상의 짝 연구에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불완료상-완료상 상짝에서 두 동사의 어휘의미는 동일해야 하며 오로지 상적 의미의 차이만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러시아어 불완료상에 다양한 접두사가 결합해 여러 가지 완료상 동사를 파생하더라도 하나의 불완료상 동사에서 조어론적으로 파생된 모든 완료상이 해당 불완료상의 상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러시아어 불완료상 동사 писать는 다양한 접두사와 결합하여 написать, переписать, записать, списать와 같은 완료상 동사를 파생할 수 있지만, 이 동사의 상짝은 오로지 написать 뿐이며, 주어가 3인칭 단수 남성인 경우 해당 상짝의 시제에 따른 형태는 아래 [표 1]와 같다.

	불완료상	완료상
과거	писал	написал
현재	пишет	-
미래	будет писать	напишет

[표 1] 시제에 따른 상의 형태 (박현아 2011:174)

2.2. 영어의 상 범주

앞서 살펴본 것처럼, 러시아어의 모든 동사는 문법적으로 완료상 혹은 불완료상 중 최소한 하나로 구분된다.¹⁾ 그러나, 영어는 상 언어(aspect language)보다는 시제 언어(tense language)에 가깝기 때문에, 러시아어처럼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문법적 상 표지를 가진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나마 문법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뚜렷한 형태적 상 표지를 가지는 진행형과 완료형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의 문법상에 대해 논하기 전에 먼저 상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관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1) 하나의 형태로 완료상과 불완료상 모두를 지시하는 양상동사 혹은 이중상 동사(двувидовый глагол)도 존재한다.

안동환(1990)에 따르면, 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상황의 내적 시간 구성을 보는 화자의 관점’으로 보는 학자들과, ‘화자의 관점이 아니라 묘사되는 상황의 내재적 성질(동작류)’로 보는 학자들로 양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견해를 가지는 대표적 학자로는 콤리(Comrie 1976)를 들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야콥슨(Jakobson 1971), 프리드리히(Friedrich 1974) 등이 있다. 스미스(Smith 1983)는 전자의 견해를 ‘관점상’으로, 후자의 견해를 ‘상황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하고 있다.

스미스에 의한 용어의 정의는 매우 흥미로운데, 관점상의 경우 화자의 ‘관점’을 나타내는 상이며, 이는 곧 화자가 상을 구분해 주는 문법적 표지를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본인의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주관적인 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상황상은 주어진 ‘상황’에 관한 것으로, 문법적 표지보다는 어휘적 의미로써 표시되는 상이며, 상황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성격(character) 그 자체이므로 객관적이다. 이를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관점상 (Aspectat)	상황상 (Aktionsart)
문법적 상	어휘적 상
주관적 상	객관적 상
상(aspect)	성격(character)

[표 2] 관점상과 상황상

영어의 상 범주에 대해 연구할 때, 형태적 접근법만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안동환(1990)에 따르면, 슬라브어에서 상 범주가 발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슬라브어의 상 체계가 다른 언어의 상 연구를 진행할 때 모델이 되어야만 한다는 가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 또한, 정정원(2013)은 영어의 경우 진행형과 같은 문법적 상 표현 방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독립적인 단어로 존재한다기보다는 동사의 변이형으로 존재하는 것이기에, 러시아어에서 동사 미정형(infinitive)만으로 상을 논하는 것과는 그 결이 다르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영어를 비롯한 시제 언어에서의 상 연구는 ‘시제 범주와 문법적 상 범주(진행형, 완료형) 간의 상호작용’ 및 ‘동사의 내재적 의미에 의해 표현되는 상황상’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손중선(2014)은 영어의 시제 범주와 문법적 상 범주 사이의 상호작용을 아래 [표 3]과 같은 12시상으로 제시한다.

상\시제		과거	현재	미래
단순	예문	I played soccer.	I play soccer.	I will play soccer. I'm going to play soccer.
	핵심의미	과거에 끝난 사건	현재의 반복적 사건 (습관, 직업, 불변의 현상)	미래의 사건 (의지, 계획, 추측)
진행	예문	I was playing soccer.	I am playing soccer.	I will be playing soccer.
	핵심의미	과거 특정 시점에	현 시점에 진행되고	미래 특정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건	있는 사건	진행되고 있을 사건
완료	예문	I had played soccer until the school closed.	I have played soccer since I was five.	I will have fallen asleep when you arrive.
	핵심의미	과거 특정 시점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	과거에 했거나 시작되었던 일이지만 현재 상태에 초점을 맞춘 사건 묘사 (사건 발생 시점 제시 안 함)	미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완료된 상태에 있는 사건
완료 진행	예문	I had been playing soccer for three hours since noon.	I have been playing soccer since noon.	I will have been playing soccer for three hours by the time you arrive.
	핵심의미	과거 특정 시점까지 지속된 사건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 시점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	미래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사건

[표 3] 영어 12시상 요약 (손중선 2014:280-281)

슬라브학계에서 보통 동작류(Aktionsart)로 명명되는 상황상은 동사의 내재적 의미에 의해 표현되는 상을 의미한다. 언어학자들이 상황의 내적 시간구성에 따른 관점상 위주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면, 언어철학자들은 동사의 내재적 의미자질을 파악하여 언어 외적 상황을 분류하고자 해 왔다. 동사의 내재적 의미 자질에는 행위자성(agency), 변화성(change), 지속성(duration), 제한성(limitation) 등이 있는데, 이 자질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동사 자체의 자질이라기보다는 동사와 관련되는 술부, 혹은 문장 전체의 자질이다. 대부분의 언어철학자들은 상태/비상태(stative/non-stative), 순간/지속(punctual/durative)의 이원적 구분으로 상황상을 구분하고 있다.

내재적 의미를 기초로 한 동사 분류체계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제노 벤들러(Zeno Vendler 1967:97-121)의 분류이다. 벤들러는 동사를 ‘상태동사(states)’, ‘행위동사(activities)’, ‘성취동사(accomplishments)’, ‘목표달성동사(achievements)’의 네 종류로 분류한다. 영어의 어휘상 연구는 벤들러의 동사 분류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영어의 모든 동사와 동사구는 벤들러가 제시한 동사의 네 가지 범주 중 하나에 반드시 속한다. 벤들러의 동사분류에 따른 동사의 예시는 아래 [표 4]와 같다.

상태동사 (states)	know, hate, love, believe, see, ...
행위동사 (activities)	push, pull, run, walk, laugh, ...
성취동사 (accomplishments)	close, cover, open, run a mile, write a letter, ...
목표달성동사 (achievements)	die, find, lose, reach, spot, ...

[표 4] 벤들러가 분류한 4종류의 동사의 예 (안동환 1990:165)

상태동사(states)는 정적이며, 끝점이 없는 상황을 나타내므로 진행형을 취할 수 없다. 목표달성동사(achievements)의 경우에도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발생하는 사건을 지시하므로 상태동사와 마찬가지로 진행형을 취할 수 없다. 하지만 목표달성동사는 상태동사와 달리 끝점이 있다.

행위동사(activities)는 동적이며, 끝점이 없는 상황을 지시한다. 성취동사(accomplishment)는 끝점이 있는 상황을 가리키며, 사건이 점층적·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행위동사는 다른 동적인 사건인 ‘성취동사’와 ‘목표달성동사’와는 달리 시간에 따라 발전하지 않는 동질성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진행되는 어떤 단계에서든지 진행형의 사용이 가능하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동일한 형태의 동사가 행위동사로도, 성취동사로도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run’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동질적인 사건을 지시하기에 행위동사로 분류되지만, ‘run a mile’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지 않은 이질적인 사건을 지시하기에 성취동사로 분류된다. 그렇기 때문에 ‘run’은 행위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진행형을 사용해 상황을 묘사할 수 있지만(“He is running.”), ‘run a mile’의 경우에는 오직 행위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만 사건을 묘사할 수 있다(“He ran a mile.”).

벤들러의 동사분류 네 가지 사이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비교하기 위해 의미자질을 표시해 보면 [표 5]와 같다.

	±STATIVE	±DURATIVE	±TELIC	±HOMOGENEOUS ²⁾
상태동사 (states)	+	+	-	+
행위동사 (activities)	-	+	-	+
성취동사 (accomplishments)	-	+	+	-
목표달성동사 (achievements)	-	-		

[표 5] 벤들러의 동사분류 (안동환 1990:166)

3. 상 범주에 기초한 러시아어와 영어 간 기계번역 결과 분석

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어는 상 범주의 문법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된 언어인 반면, 영어는 상 언어라기보다는 시제 언어에 더 가깝기에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문법적 상 표지가 부재한다. 그렇기에 상 범주에 있어 두 언어 간에 완전한 1대 1 대응이 어렵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논의를 보다 확장해 보자면, 임의의 두 자연어 사이에는 공통된 문법적 개념이 존재할 수도, 부재할 수도 있는데, 특히 두 언어가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두 언어 간에 공통된 문법적 요소가 부재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를테면 영문법에서의 관사 개념이 러시아어 문법에는 부재하기에 러시아어가 모국어인 영어 학습자들은 관사의 개념을 학습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2) [±HOMOGENEOUS]: 부분과 전체의 동질성 여부를 나타내는 자질 (안동환, 1990:166)

이러한 애로사항은 비단 외국어 학습의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통계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계번역이 보편화됨에 따라 과거보다 기계번역 결과물의 품질이 월등히 좋아졌음은 사실이나, 영어와 러시아어처럼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하는 두 언어 간의 기계번역 결과물의 품질은 여전히 인간의 프리에디팅(사전편집, pre-editing) 및 포스트에디팅(사후편집, post-editing)에 상당 부분 의존함이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러시아어와 영어 간 기계번역 결과물을 인간번역의 결과물과 비교해 보고, 기계번역 결과물의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적절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3.1. 연구 방법

한현희(2020)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연구 절차를 구성했다. 우선 원문(Source Text)과 적절한 인간번역 예시 모두를 확보할 수 있는 텍스트를 분석 자료로 선정했다. 영어 원문은 현재완료가 포함된 예문 위주로 선정했으며, 러시아어 원문은 상의 형태·의미적 대립이 잘 관찰되도록 과거시제 예문 위주로 선정했다. 영어 원문 및 상응하는 러시아어 번역문은 박현아(2011:183-184)에서, 러시아어 원문 및 상응하는 영어 번역문은 영미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어 학습서(В пути, 2nd ed. Kagan et al.)에서 각각 발췌하였다.

이후 발췌한 원문을 기계번역 엔진에 입력하여 번역문을 생산하여, 인간번역 예시와 함께 엑셀로 병렬 데이터화한다. 이때 현존하는 수많은 기계번역 엔진 중 구글 번역(Google Translate), 파파고(Papago), 안텍스 번역(Yandex Translate) 세 가지로 분석 대상을 한정한다.³⁾ 기계번역 방식 중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는 통계 기반 기계번역(SMT,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과 인공신경망 기계번역(NMT, Neural network Machine Translation)이다. 전자는 기존 기계번역에 주로 사용된 형태로, 초기 구글 번역 엔진과 안텍스 엔진이 속한다.⁴⁾ 후자는 통계 기반 기계번역보다 발전된 형태로, 현재의 구글 번역 엔진과 파파고 엔진이 인공신경망 기계번역에 해당한다. 인공신경망 기계번역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통계 기반 기계번역과는 달리 문맥의 파악이 가능하기에 기존의 기계번역보다 더 자연스럽고 정확한 번역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박혜경 2018:164) 본 연구에서는 전후 문맥이 없는 문장의 번역에서 안텍스로 대표되는 통계 기반 기계번역 방식과 구글 및 파파고로 대표되는 인공신경망 기계번역 방식 간에 유의미한 품질 차이가 존재하는지까지도 추가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3.2. 영어에서 러시아어로의 번역: 현재완료를 중심으로

영어의 현재완료는 기준시점인 현재와 관련된 과거의 상황을 나타낸다. 박노민(2012)에 따르면, 현재완료의 ‘과거의 상황’은 두 가지 방식으로 현재와 관련된다. 우선, 상황 자체가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방

3) 러시아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인 안텍스에서 제공하는 안텍스 번역 엔진과 함께 세계적으로 이용자 수를 가장 많이 확보한 구글 번역 엔진, 그리고 국내에서 러시아어-영어 번역 기능을 제공하는 번역 엔진인 네이버의 파파고로 분석 대상을 한정한다.

4) 안텍스 엔진은 통계적 기계번역(SMT)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3년 전부터 인공신경망 기계번역(NMT) 방식으로의 전환을 진행 중이다. 향후 전환 작업이 완료되면 더 높은 품질의 번역물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이 있으며, 다음으로 상황이 발생하는 기간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연결하는가에 따라 현재완료의 용법이 결정되며, 전자는 ‘계속완료(continuative perfect)’로, 후자는 ‘부정완료(indefinite perfect)’로 정의된다. 부정완료는 어상 혹은 문맥에 따라 연관된 의미를 나타내는 세부적인 용법들을 가지며, 관련 용법으로는 근접 부정과거(recent indefinite past), 결과적 부정과거(resultant indefinite past), 경험의 부정과거(experiential indefinite past)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영어의 현재완료에 정확히 대응하는 러시아어 문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영어를 러시아어로 번역할 때 현재완료 형태의 동사를 일정한 형태로 번역하기란 쉽지 않다. 번역자마다 영어로 묘사된 상황을 이해하는 바가 다르기에 러시아어 번역 결과물도 역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쉽다. 이에 박현아(2011)는 영어의 현재완료에 견주어지는 러시아어 시상체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영어의 현재완료를 전통 문법의 접근법을 활용해 네 가지 의미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의 경우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러시아어 동사 형태를 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6]은 영어 현재완료의 계속적, 경험적, 완료적, 결과적 용법이 러시아어 동사의 어느 시상에 적절히 대응하는지를 보여준다.

영어 현재완료		러시아어
사건적 차원	계속	불완료상 과거, 현재
	경험	(일반사실적) 불완료상 과거
	완료	전형적으로 완료상 과거 (종종 일반사실적 불완료상 과거)
결과적 차원	결과	완료상 과거 (조동사가 생략된 완료상 과거분사)

[표 6] 영어 현재완료 유형에 따른 적합한 러시아어 동사 형태 제안 (박현아, 2011:182-184)

3.2.1. 계속적 의미

(예시 1)

원문: I have waited for three days. / I have been waiting for three days.

인간번역: Я жду уже три дня.

구글 번역: Я ждал три дня. / Я жду уже три дня.

파파고: Я ждал три дня. / Я жду уже три дня.

얀텍스 번역: Я ждал три дня. / Я жду уже три дня.

현재완료의 계속적 의미는 ‘계속완료(continuative perfect)’로도 정의되며, 상황 자체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문맥에 따라서 미래에도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현재완료의 용법이다. (박노민 2012:61) (예시 1)의 원문은 현재완료의 계속적 용법이 사용된 문장으로, 원문에서는 현재완료가 가지는 ‘계속’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현재완료진행(have been waiting)까지도 추가하여 예문을 제시하였다. [표 6]에서 박현아가 현재완료의 계속적 의미는 러시아어 불완료상 동사의 과거와 현재 시제에 해당한다

고 지적인 바와 같이 인간번역과 기계 번역은 모두 영어의 현재완료의 계속적 의미를 러시아어 불완료상 동사의 과거와 현재시제로 번역한다.

인간번역은 현재완료가 사용된 ‘I have waited for three days.’와 현재완료진행이 사용된 ‘I have been waiting for three days.’에 상응하는 러시아어 번역을 ‘Я жду уже три дня.’ 한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적절한 번역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데, 영어 원어민 화자들은 원문에서 제시된 두 가지 문장을 동질적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영어 원어민 화자가 현재완료가 사용된 원문의 첫 번째 문장(“I have waited for three days.”)을 발화하거나 혹은 들었을 때, 그들은 본능적으로 ‘완료’된 상황을 가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화자는 (무언가를) 3일이나 기다렸지만, 현재는 더 이상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해당 문장이 발화된다. 하지만 현재완료진행이 사용된 원문의 두 번째 문장(“I have been waiting for three days.”)은 완료보다는 ‘진행’에 초점을 맞춘 발화이다. 즉, ‘과거에 시작된 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니며, 그렇기에 해당 문장은 화자가 무언가를 과거에 기다리기 시작했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중임을 나타낸다.

현재완료는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를 과거의 어느 시점에 수행했는지보다는 그 행위가 현재 완료되었는지, 혹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현재완료를 의미의 소실 없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면, 영어 동사 하나를 러시아어 동사 두 개로 나누어 번역하는 방법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래의 (예시 2)와 같이 영어 현재완료(have lived)의 의미를 러시아어 완료상 과거(переехал)와 불완료상 현재(живу)의 결합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예시 2)

원문: I have lived here for ten years.

인간번역: Десять лет назад я переехал(а) сюда и до сих пор живу здесь.⁵⁾

따라서 의미 소실 없이 원문의 첫 번째 문장을 적절하게 번역하기 위해 아래의 (예시 3)과 같이 시제 전환을 활용한 번역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예시 3)

원문: I have waited for three days.

인간번역: Я ждал три дня, но больше не жду.

나는 3일간 기다렸지만,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한편, 기계번역의 결과는 인간번역의 결과와 달리 현재완료가 쓰인 문장과 현재완료진행이 쓰인 문장을 구분하고 있으며, 본고에서 사용된 세 기계번역 엔진 모두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현재완료가 사용된 문장인 ‘I have waited for three days.’를 번역할 때 기계번역은 ‘현재는 더 이

⁵⁾ 손중선(2014)에 따르면, 현재완료가 사용된 문장인 ‘I have lived here for ten years.’는 ‘I came here ten years ago and I’m still living here.’처럼 단순과거와 현재진행을 섞어서 시제전환이 가능하다. (예시 2)의 인간번역의 결과물은 과거시제와 현재진행의 혼합으로 시제전환된 두 번째 영어 문장을 러시아어 원어민이 러시아어로 번역한 문장이다.

상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보다는 ‘3일이라는 시간이 지속되는 동안 기다렸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불완료상 과거(ждал)로 번역한 반면, 현재완료진행이 사용된 ‘I have been waiting for three days.’를 번역할 때에는 현재와 관련이 있으며 현재까지 계속 그래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불완료상 현재와 부사의 결합(жду уже)으로 번역하였다는 점이다.

3.2.2. 경험적 의미

(예시 4)

원문: I have read War and Peace.

인간번역: Я читал Война и Мир.

구글 번역: Я прочитал «Войну и мир».

파파고: Я читал «Война и мир».

얀텍스 번역: Я читал "Войну и мир".

현재완료의 경험적 의미는 ‘경험의 부정과거(experiential indefinite past)’에 상응하며, 주로 문맥에 의해 알 수 있으며 주어 혹은 화자의 경험을 나타낸다. 경험의 부정과거는 결과적 부정과거와 유사하게 보이나, 결과적 부정과거가 외적으로 분명히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낸다면, 경험의 부정과거는 다소 주관적으로 경험이나 지식으로 남아 있는 결과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박노민 2012: 65-66)

(예시 4)의 원문은 현재완료의 경험적 용법이 사용된 문장이다. [표 6]에서 영어의 현재완료의 경험적 의미는 러시아어 불완료상 동사의 과거시제의 일반사실적 의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간번역과 파파고, 그리고 얀텍스 번역은 (예시 4)의 원문을 불완료상 동사의 과거시제로 번역한다. 하지만 구글 번역에서는 완료상 과거 ‘прочитал’이 선택되었는데, 이는 원문이 제시하는 ‘과거에 읽은 적이 있다’는 의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적이 있다’는 의미까지도 부가하므로, 적절한 전후 문맥이 제시되지 않는 한 올바른 번역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2.3. 결과적 의미

(예시 5)

원문: I have got tired.

인간번역: Я устал.

구글 번역: Я устал.

파파고: Я устал.

얀텍스 번역: Я устал.

현재완료의 결과적 의미는 부정과거의 세부적 용법 중 하나인 ‘결과적 부정과거(resultant indefinite

past)’이며, 상황의 결과를 비교적 분명하게 현재 시간에 읽을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박노민 2012:64) (예시 5)의 원문은 현재완료의 결과적 용법이 사용된 문장이다. [표 6]은 영어의 현재완료의 결과적 의미는 러시아어 완료상 동사의 과거시제, 혹은 드물게 불완료상 과거시제의 일반사실적 의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원문의 ‘have got tired’는 이미 ‘피곤해졌다’는 결과를 현재에 읽을 수 있음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는 러시아어 동사 ‘устал’, 곧 완료상 동사의 결과적 상태의미에 의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전달되므로 인간번역과 기계번역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3.2.4. 완료적 의미

(예시 6)

원문: I have just arrived.

인간번역: Я как раз приехал.

구글 번역: Я только что прибыл.

파파고: Я только что приехал.

얀텍스 번역: Я только что приехал.

현재완료의 완료적 의미는 부정완료에 속하는 용법으로 ‘근접 부정과거(recent indefinite past)’에 해당한다. 근접 부정과거는 상황이 발생한 시간이 현재에서 멀지 않은 과거임을 나타내며, 이러한 의미를 잘 나타내 주는 부사 ‘just’, ‘already’, ‘still’, ‘yet’, ‘recently’, ‘lately’ 등과 주로 사용된다. (박노민 2012:62-63) (예시 6)의 원문은 현재완료의 완료적 용법이 사용된 문장으로, 부사 ‘just’를 사용하여 가까운 과거에 발생한 상황을 보여준다. [표 6]은 영어의 현재완료의 완료적 의미는 러시아어 완료상 동사의 과거시제 혹은 조동사가 생략된 완료상 동사의 과거분사에 대응한다고 지적한다. 인간번역과 3가지 기계번역 엔진도 모두 영어의 현재완료의 완료적 의미를 완료상 동사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번역은 원문의 ‘just’를 ‘как раз’로 번역하는 반면, 기계번역은 ‘только что’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인간번역의 오역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마침(как раз) 도착했다’의 의미보다는 ‘방금, 지금 막(только что) 도착했다’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글 번역의 경우 ‘have arrived’를 ‘прибыл’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도착의 의미라기보다는 공식적인 도착의 의미, 이를테면 ‘대통령이 도착했다’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 적절하므로, 일반적인 담화 상황을 가정한다면 파파고와 얀텍스에서 선택된 동사 ‘приехал’이 더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영어의 현재완료형 동사의 러시아어 번역을 분석했다. 논의를 정리하면, 영어의 현재완료는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 러시아어 과거 혹은 현재시제로, 경험적, 완료적, 결과적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 러시아어 과거 시제로만 번역되고 있다. 즉, 시제는 고정된 채 상만 변화하면서 현재완료의 다양한 의미를 적절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3.3. 러시아어에서 영어로의 번역: 과거시제를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러시아어에서 영어로의 동사의 시상형태 번역을 살펴본다. 박현아(2011)에 따르면, 러시아어 상의 형태적 대립은 과거 시제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며,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어의 불완료상과 완료상의 형태·의미적 대립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과거 시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러시아어 원문의 시제를 과거시제로 고정시킨 채로 상의 의미에 따른 영어 번역물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3.3.1. 불완료상 과거 시제의 번역

3.3.1.1. 불완료상 과거의 일반사실적 의미 (общефакт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예시 7)

원문: Вы сегодня читали газету?

인간번역: Have you read (looked at) today's paper?

구글 번역: Have you read the newspaper today?

파파고: Have you read the newspaper today?

얀텍스 번역: Have you read the newspaper today?

(예시 7)의 원문은 러시아어 불완료상이 사용된 문장으로, 동사 ‘читали’는 읽는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6]에 따르면, 불완료상 동사의 일반사실적 의미는 영어에서 현재완료의 경험적 의미에 가장 근접하다. (예시 7)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번역과 기계번역도 이를 영어 현재완료의 경험적 의미로 해석하여 ‘have read’로 번역하였다. 하지만 러시아어 불완료상 동사는 행위의 완결을 표시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원문에서 사용된 ‘читали’의 경우 ‘신문을 읽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므로, 동사 ‘читали’는 현재완료보다는 단순과거로 번역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즉, 영어의 현재완료의 경험적 의미는 러시아어의 불완료상 동사의 일반사실적 의미에 근접하지만, 러시아어 불완료상 동사를 영어로 번역할 경우 현재완료의 경험적 의미 외에 단순과거시제도 가능하다. 이는 영어의 현재완료의 경험적 의미와 러시아어 불완료상 동사의 일반사실적 의미가 명확히 동일한 의미영역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시 7)의 적절한 인간번역으로 다음을 제안할 수 있다.

(예시 7a)

원문: Вы сегодня читали газету? 당신은 오늘 신문을 읽으셨나요?

인간번역: Did you read the newspaper today?

3.3.1.2. 불완료상: 지속적 행위나 반복적 행위 의미

1) 지속적 행위

(예시 8)

원문: Она спала после обеда.

인간번역: She slept after dinner. / She would sleep after dinner.

구글 번역: She slept after dinner.

파파고: She slept after dinner.

얀텍스 번역: She was sleeping after lunch.

(예시 8)의 원문은 러시아어 불완료상이 사용된 문장으로, 인간번역에서 동사 ‘спала’는 저녁 식사 후에 잠을 자는 행위가 짧지 않은 시간동안 지속되었거나(She slept after dinner), 혹은 ‘그녀는 저녁 식사 후에 잠을 자곤 했다(She would sleep after dinner).’와 같이 반복되었던 행위를 나타낸다. (예시 4)에 서와 마찬가지로, 전후 맥락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복적인 행위를 가정하기보다는 일회성 행위를 가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러한 이유에서 구글과 파파고는 조동사 없이 단순과거 ‘slept’만을 사용하여 해당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얀텍스의 경우 단순과거 대신에 과거 진행형 ‘was sleeping’을 선택해서 번역하였는데, 이러한 번역은 구글과 파파고의 번역보다 덜 정확하다고 평가된다. 진행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주어진 맥락 속에서 다른 행위 혹은 특정 시점과 비교하여 그 행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전후 맥락이 부재하는 원문을 단순과거가 아닌 과거 진행형으로 번역해야만 하는 뚜렷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 반복적 행위

(예시 9)

원문: Когда мы вошли, они пели.

인간번역: When we walked in, they were singing.

구글 번역: When we entered, they were singing.

파파고: When we went in, they sang.

얀텍스 번역: When we entered, they were singing.

(예시 9)의 원문은 러시아어 불완료상이 사용된 문장으로, 인간번역에서 동사 ‘пели’는 과거 진행형인 ‘were singing’으로 번역되며, 이는 ‘우리가 어딘가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었음’을 보여준다. 구글과 얀텍스는 과거진행을 사용하여 번역함으로써 인간번역과 동일한 의미전달에 성공했으나, 파파고는 단순과거로 번역하였다는 점이 아쉽다.

한편, 원문의 ‘вошли’를 인간번역에서는 ‘밖에서 안으로 걸어서 들어오는 1회성 행위’라는 동사의 의

미를 비교적 뚜렷하게 살리기 위해 ‘walked in’으로 번역했으나, 기계번역에서는 ‘entered’ 혹은 ‘went in’으로 번역되었다. 이는 러시아어 동사 войти가 원문에서는 “걸어서”라는 이동수단보다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동의 방향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세부적인 의미 소실 없이 원문의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아직까지 인간번역이 기계번역보다 우세하다고 평가된다.

3.3.2. 완료상 과거시제의 번역

3.3.2.1. 완료상: 행위 완결의 의미

(예시 10)

원문: Вы прочитали газету? Можно её взять?

인간번역: Are you through with the paper? May I take it?

구글 번역: Have you read the newspaper? Can I take it?

파파고: Have you read the newspaper? Can I take it?

얀텍스 번역: Have you read the newspaper? Can I take it?

(예시 10)의 원문은 러시아어 완료상이 사용된 문장으로, 동사 ‘прочитал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행위를 완료하여 다 읽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뉘앙스는 인간번역에서 ‘be through with’으로 번역됨으로써 ‘끝나다(finish)’의 의미, 즉 다 읽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사용된 세 기계번역 엔진 모두에서 원문의 정확한 뉘앙스를 살리지 못한 채 (예시 7)의 동사 ‘читали’ 기계번역에서와 동일하게 현재완료 ‘have read’로만 번역된 점이 아쉽다.

3.3.2.2. 완료상: 접두사를 통해 표현되는 다양한 동작류 의미

1) 행위의 짧은 지속성

(예시 11)

원문: Она немного поспала после обеда.

인간번역: She took a nap after dinner.

구글 번역: She slept a little after dinner.

파파고: She slept a little after lunch.

얀텍스 번역: She got some sleep after lunch.

(예시 11)의 원문은 러시아어 완료상이 사용된 문장이다. 러시아어 동사 ‘поспала’는 ‘잠시 눈 붙이다’의 의미를 지니며, 잠을 자는 행위가 일회성으로 짧게 지속됨을 나타낸다. 인간번역에서는 ‘поспала’가 지니는 의미를 ‘took a nap(낮잠자다)’으로 어휘적 수단(nap)을 동원하여 번역하고 있다.

한편, 기계번역에서는 동사 ‘поспала’를 ‘a little’ 혹은 ‘some’과 같은 부사를 활용해 ‘поспала’가 가진 ‘행위의 짧은 지속 정도’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는 원문에서 제시된 부사 ‘немного’를 단순히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래의 (예시 11a)에서 부사 ‘немного’를 제거한 문장 ‘Она поспала после обеда.’가 주어졌을 때의 기계번역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시 11a)

원문: Она поспала после обеда.

구글 번역: She slept after dinner.

파파고: She fell asleep after dinner.

얀텍스 번역: She slept after lunch.

(예시 11)의 원문에서 부사 ‘немного’를 제거하자 기계번역은 완료상 동사 자체의 뜻인 ‘잠시 잠을 자다’를 정확히 번역하는 데에 실패하였다. 구글과 얀텍스에서는 ‘잠시’라는 의미의 소실이 발생했으며, 심지어 파파고는 완료상 동사 ‘поспать’가 잠을 자기 시작한다는 의미를 지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접두사 ‘по’를 시작의 의미로 파악하여 ‘поспала’를 ‘fell asleep’로 오역하였다.

2) 행위의 시작

(예시 12)

원문: Когда мы вошли, они запели.

인간번역: When we walked in, they started singing.

구글 번역: When we entered, they sang.

파파고: When we went in, they sang.

얀텍스 번역: When we entered, they began to sing.

(예시 12)의 원문에서 사용된 동사 ‘запели’는 ‘петь’동사가 접두사 ‘за-’와 결합하여 파생된 완료상 동사로서 ‘행위의 시작’이라는 동작류 의미를 표현한다. 인간번역은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어휘적 수단을 사용하여 ‘started singing(노래 부르기를 시작했다)’이라고 번역했다. 얀텍스의 경우 이러한 시작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인간번역과 유사하게 ‘began to sing’으로 번역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과 파파고의 경우 단순과거 ‘sang’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시작점’의 의미를 뚜렷하게 전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얀텍스의 번역물에 비해 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번역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인공지능경망 기계번역 방식에 기반을 둔 구글 번역과 파파고, 통계적 기계번역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얀텍스 번역을 사용하여 주어진 원문을 번역하였다. 구글 번역, 파파고, 얀텍스 번역 모두 때로는 정확한 번역문을, 때로는 잘못된 번역물을 산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테면 (예시 9)에서는 구글 번역과 얀텍스 번역은 동일한 번역물을 산출해 내며 정확한 번역을 했으나, 파파고의 경우 오역을 하였으며, (예시 12)에서는 얀텍스만이 오역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문맥이 주어지지 않은 단순한 문장을 번역

할 때 두 기계번역 방식 간 유의미한 품질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3장의 예문에서 사용된 원문 모두가 전후 맥락이 생략된 채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제시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망 기계번역의 특징인 문맥 파악 능력이 활용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정한 문맥이 주어졌을 경우 두 방식 간 유의미한 품질 차이가 존재하는지는 향후 후속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4. 결론

러시아어는 문법적 상이 발달한 언어로, 거의 모든 러시아어 동사는 완료상 혹은 불완료상에 속한다. 러시아어의 발달된 상 범주는 러시아어 화자의 세계관을 형성한다. 즉, 러시아인은 어느 현상이나 상황을 바라볼 때 ‘상’의 관점을 벗어나서 생각하기 어렵다. 화자의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동일한 상황이 때로는 불완료상으로, 때로는 완료상으로 묘사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미스(1983)는 이러한 주관적인 문법상을 ‘관점상’이라는 용어로 정의한다.

반면, 영어는 상 언어라기보다는 시제 언어에 가깝기 때문에, 러시아어와 같이 일관적인 문법상 체계를 가지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영어의 상은 ‘시제 범주와 문법적 상 범주 간의 상호작용’ 및 ‘동사의 내재적 의미에 의해 표현되는 상황상’ 위주로 파악되어야 한다. ‘상황상’이라는 용어 정의는 스미스(1983)에 의한 것으로, 관점상과 달리 주어진 상황 그 자체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성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황상은 객관적이며, 문법적 표지보다는 어휘적 의미 자체로 나타나는 상이다. 상황상은 슬라브권에서는 ‘동작류(Aktionsart)’라는 용어로, 영미권에서는 ‘어휘상’이라는 용어로 더 자주 사용된다. 영어의 어휘상 연구 중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은 벤들러(1967)의 네 가지 동사 분류이다.

이처럼, 러시아어는 문법적 상이 발달한 언어이고, 영어는 시제가 발달하여 상은 주로 어휘상에 의해 표현되는 언어이기에, 적어도 시상 범주에 있어 두 언어 간에는 완전한 1대 1 대응이 일어나기란 어렵다. 그렇기에 최근 기계번역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와 러시아어처럼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하는 두 언어 간의 기계번역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특히 영어의 현재완료와 러시아어 불완료상-완료상 과거시제 사이의 상호 번역은 아직까지도 일관된 형태가 없이 번역 엔진마다 제각각 번역되고 있는 실상이다. 또한, 전후 문맥이 부재할 경우 통계적 기계번역 방식과 인공지능망 기계번역 방식으로 산출된 번역물 간에는 유의미한 품질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러시아어-영어 기계번역 결과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두 언어의 시상 체계에 관한 현실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상 연구가 문법적 상(вид)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문법상과 어휘상을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상(аспект)으로서 연구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발달된 상 체계를 가진 언어인 슬라브어의 상 모델이 모든 자연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화자의 발화를 의미의 소실 없이 화자의 의도대로 번역하기 위해서 상 연구에 있어 화용론적 접근법의 도입이 요구된다. 즉, 화용론적 관점에서 발화 당시의 상황이 주어지거나 혹은 발화 이면에 숨은 맥락상의 연결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상 연구에서 화용론이 지니는 위상은 문맥 파악이 가능한 인공지능망 기계번역의 발달과 더불어 점차 높아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성완(2021), “현대 러시아 젊은 세대의 ‘슬랭’ 연구”, 노어노문학 제33권. 3-30.
- 박노민(2012), 영어의 상(Aspect in English). 북코리아.
- 박현아(2011), “영어의 현재완료와 러시아어의 완료상/불완료상”, 이중언어학 제46권. 159-190.
- 박혜경(2018), “식사 과정의 기계번역 수업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제19권. 163-193.
- 손중선(2014), “영어의 시제 이해와 초등영어 시제 지도”, 신영어영문학 제59권. 271-290.
- 신지선(2020),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관한 해외 연구 동향”, 번역학연구 제21권. 87-114.
- 안동환(1991), “영어의 상 체계에 관한 연구”, 새한영어영문학 제25권. 153-180.
- 정정원(2013), 러시아 언어문화. 한국문화사.
- 한현희(2020), “한-노 기계 번역, 어디까지 왔나?: Google과 Papago 번역 성능 비교를 기반으로”, 노어노문학 제32권. 63-93.
- Hees, M.V. (2015). Web-based automatic translation : the Yandex.
- Kagan, O., Miller, F., & Kudyma, G. (2005), V Puti: Russian Grammar in Context (2nd ed.). Pearson.
- Voroniak, D. (2023, January 17). Machine translation systems: Market size and things to consider when choosing an Mt. CrowdIn Blog. Retrieved January 25, 2023, from <https://crowdin.com/blog/2022/01/28/machine-translation-engines>

<Abstract>

**Examining Machine Translation Results
with respect to Aspectual Categories in Russian and English**

Im, Hyemin

The main focus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aspectual categories of Russian and English. In chapter 2, the existing studies on the aspectual categories of Russian and English are examined and it is confirmed that aspectual studies should be approached differently in Russian, an aspect language and English, a tense language. In Chapter 3, the morphological and semantic opposition of aspect is analyzed using examples of the English present perfect and Russian Imperfective-perfective past tense in order to effectively illust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languages. The correspondence of tense and aspect between the two languages is analyzed using three machine translation engines and the quality of translations between these engines is compared. Additionally, the paper proposes a method to minimize loss of meaning during translation.

<Keywords>

Aspect Language, Tense Language, Machine Translation, Google Translate, Papago, Yandex Translate

<주제어>

상 언어, 시제 언어, 기계번역, 구글 번역, 파파고, 안덱스 번역

(mia.hyemin@gmail.com)